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성균관 유생들의 나날

1

밝긴 하였으나 깨끗한 도포를 입고 갓을 쓴 곱상한 선비가, 두 손으로 보자기를 힘겹게 들고 서책이 빼곡한 책방 안으로 들어서며 주인을 찾았다.

“어험! 안에 누구 없소?”

가녀린 목소리를 숨기고 애써 사내답게 외치는 목소리였다. 이에 안쪽 책장들 사이로 사람의 기척이 나는가 싶더니, 세상 물정이 덕지덕지 묻은 나이로 보이는 주인장이 고개를 숙 내밀었다.

“아이고, 도련님!”

“그간 별고 없었소?”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선비의 눈매가 구름과도 같이 풍성한 속눈썹으로 인해 아름답게 그려졌다. 주인장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며 서둘러 말했다.

“별고고 뭐고 간에, 그러잖아도 도련님께 어떻게 연락을 취하나 노심초사하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있었더랬죠. 제가 도련님에 대해 아는 거라곤 김 도령이라는 것뿐이지 않습니까요.”

“무, 무슨 큰일이라도?”

여러 가지 찢리는 일이 많은 듯 선비의 표정이 놀란 것과는 달리, 주인장은 입가에 기분 좋은 웃음을 실실 흘리며 능청을 떨었다.

“암요, 큰일입죠. 큰일이고 말구요.”

주인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귓속말을 건넬 양으로 귓가로 다가오자, 흠칫 놀란 선비는 뒤로 성큼 물러서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말했다.

“우선 이전에 가져갔던 이것의 값이나 넉넉히 셈해 주시오.”

그는 손에 들려 있던 서책 꾸러미를 옆에 있는 평상 위에 올려놓고, 그 자리에 앉았다. 선비에게는 그 꾸러미가 무거웠던지 두 손으로 힘껏 들어 올렸음에 반해, 주인장은 가볍게 한 손으로 그것을 잡아 옆으로 밀치며 중얼 거렸다.

“이건 급한 게 아니래도 그러시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러면서 허리춤에 매달린 주머니를 뒤져 엽전 몇 개를 집어 선비에게 건넨 후, 서책 꾸러미를 사이에 두고 그의 옆에 앉았다. 선비가 돈을 쥐고 말했다.

“가져온 것을 확인이나 하고 계산해 주시오.”

“아이고, 도련님의 필사 솜씨야 제가 확인 안 해도 오자, 탈자 하나 없는데 뭘요, 필체 또한 사대문 안 제일의 과장 사수(寫手)-글씨를 베끼어 쓰는 사람이란 뜻이지만, 과거장에서는 불법으로 돈을 받고 응시자를 대신해서 글씨를 써 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신데 더 말해 무엇...”

“어허, 이 사람이!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선비는 얼른 말을 가로막고는, 주위를 살피며 손끝으로 갓을 잡아당겨 자꾸만 얼굴을 가렸다. 그런다고 얼굴이 가려지는 않지만, 이걸 그의 버릇인 듯하였다. 주인장도 같이 두리번대다가 목소리를 낮춰서 소곤거렸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도련님도 소문 들었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식년초시가 있질 않습니까요.”

선비가 슬깃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필사한 서책을 돈으로 바꾸기 위한 것은 핑계였다. 그것보다 그가 오늘 이곳에 방문한 더 큰 이유는 식년초시 때의 일거리 때문이다. 과장의 사수는 불법이기 때문에 더욱 돈이 되는 일이다. 하루 당일로 하는 사수 돈벌이가 1년 내내 밤을 새우다시피 서책을 필사하여 버는 돈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게다가 중개인이 잘만 움직이면 한 번의 과거장에서 두서너 명의 과유의 일을 한꺼번에 해 줄 수도 있을뿐더러, 생원시와 진사시 두 군데서 일감을 차지할 수도 있었다. 그런 식으로 일을 맞추면 단 이틀 동안 거액을 손에 넣게 된다. 그러니 사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때가 대목인 셈이다.

선비에겐 사수의 일거리 외에도 노리는 것이 또 하나 있었다. 그건 사수보다 훨씬 보수가 좋은 거벽(巨擘)-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란 뜻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이지만, 과장에서는 불법으로 과거 시문을 대신 지어 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일거리였다. 이런 욕심을 가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다. 열 달 전쯤에 있었던 별시에서 그가 사수를 맡기로 되어 있던 과유의 거벽이 심한 고열로 인해 그만 불참하고 말았다. 그래서 망연자실한 과유를 대신해서 선비가 거벽 일까지 했고, 우연인지 실력인지 합격을 하게 되었다.

그 뒤 중개를 해 준 주인장이 선비한테, 사수가 거벽 일까지 다 하게 되면 거벽들은 뭐 먹고 살아야 하냐고 너스레를 떨며 축하를 했었다. 그러면서 아마도 다음 과거에는 거벽 일도 들어올 수 있을 터이니 준비를 해 두라는 귀띔도 했었다. 저번의 합격이 생원시이니, 진사시는 두고라도 적어도 생원시 거벽 일 하나쯤은 분명 들어오리라. 그런데 주인장은 선비가 원하는 정보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오직 사수 일거리에 대한 말만 주야장천 하고 있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러니까 생원시에서 두 사람 것을 하고, 진사시에서 세 사람 것을 하면 도합 다섯 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빠듯할지도 모르지만 도련님 솜씨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요.”

“그것이 다요?”

“네? 더 이상은 무리일 것 같은데쇼? 시권(試券)을 빨리 제출할수록 합격이 유리하다는 건 동네 코흘리개도 다 아는 사실이래…….”

“아, 아니, 내 말은 그것이 아니라…
….”

선비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미적거리자, 눈치 빠른 주인장이 얼른 말을 낚아챘다.

“저기, 거벽 일은 말입죠,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요.”

“왜? 지난번에 왔을 때만 해도 가능하
다 하지 않았소?”

이번에는 주인장이 미안한 마음에 미적거리며 말을 쉬이 내놓지 않았다.

“참 죄송스러워서……. 제가 된다 하여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놓고서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뭣 하지만, 저번 별시의 일만 가지고 거벽 일을 맡기기엔 불안하다고들 하여서요. 아무래도 나이도 너무 어리시고, 또 생원이나 진사 중에서 어느 하나도 아니질 않습니까요. 아무리 과거를 볼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곤 하지만……, 다른 거벽들은 모두 생원 아니면 진사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들한테로 다리를 놔 달라고들 합니다요. 도련님을 쓰는 건 거의 도박과 마찬가지로…….”

주인장이 선비의 눈치를 슬쩍 살피니, 분칠을 한 기생보다 고운 그의 얼굴에 실망한 기운이 역력하였다. 그래서 더 미안하여 뜻도 없이 주절거렸다.

“그래도 그 별시 때문에 도련님의 사수 몸값은 많이 올랐으니 좋은 일 아닙니까. 글씨만 잘 쓰고 다른 건 영 실력이 없어서 과거 응시를 하지 않는 거로만 생각하였는데, 그게 아니었던 게지요? 생원이나 진사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되어도 거벽 일은 물밀듯이 들어올 터인데, 하다못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초시라도……. 이 바닥에 거벽과 사수를 한꺼번에 해낼 수 있는 인물이 원체 드물기 때문에 더 그럴 겁니다. 대체 과거를 볼 수 없는 도련님의 그 속사정이란 것이 무엇이기에…….”

“그만 하시오. 속사정이랄 건 따로 없소. 그깟 소과에 합격하여 보았자, 조정 에 줄 달아 있는 인맥이 없어 말단 관직 하나 얻기 힘들기에 그런 것뿐이니.”

“그럼 조금 더 공부해서 대과에 합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요? 도련님은 실력도 있으시고, 아직 나이가 어려 인생이 구만 리나 남아 있으니까요. 거벽이나 사수 일을 하는 인간들은 죄다 나잇살 먹어 더 이상 대과를 바라보기 힘들기에 그걸로 밥벌이하는 이들 아닙니까요. 물론 대과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가문이 형편없어 큰 벼슬자리는 기대하기 힘든 이유도 있지만요. 도련님은 그들과는 많이 다르지요.”

“그게 말처럼 쉬우면 세상사람 모두가 정승이 되어 있을 것이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선비는 낙담한 듯 긴 한숨을 내뿔었다. 주인장은 몇 년 전에 그가 처음 이 책방에 책을 빌리러 왔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완전히 어린애였다. 몇 번 책을 빌려가곤 하던 그가 우연히 필사하는 사람을 보고는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싶다며 당차게 말해 왔다. 집에 병든 사람이 있어 약값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불쌍하기는 하였지만 아무에게나 일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라 거절할 명목으로 서체를 한번 보자고 하였더니, 어린애 같지 않은 놀랄 만큼 정갈한 솜씨로 해서체를 써 보였다. 이에 당장 일을 맡겨 보았다. 숙달된 이도 족히 이틀은 걸리는 분량의 일거리를 가져간 그는 고작 하루가 지난 그 다음 날 시뻔결게 실핏줄이 선 눈으로 끝내서 가져왔다. 그리고 다시 일을 가져갔다. 잠이란 걸 모르는 사람처럼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다. 단지 매일 오던 것이 줄어들어 며칠 만에 한 번씩 오게 된 건, 그만큼 많은 일감을 가져가기 때문일 뿐이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러다가 그가 필사한 책을 본 어떤 이가 필체가 뛰어나다며 사수 일을 의뢰했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그는 발각되면 극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 때문에 일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이렇게 몇 년을 알아 오고 있는 사이지만, 주인장은 선비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사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름의 두 글자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주인장에게 있어서 더 신비로운 것은 그의 행적보다 사내답지 않은 아름다운 외모였다.

그 외모 때문에 한때 사내 복장을 한 계집이 아닐까 의심도 한 적 있었다. 보통의 계집들보다 키가 크긴 하였지만, 웬만한 사내들보다 키 큰 계집도 더러 있기에 그런 의심은 거뒀지 않았다. 하지만 사내의 증거인 호패를 지니고 있는데다가, 보통의 벼짱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사수 일을 너끈히 해내고 있기에 서서히 의심을 접게 되었다. 게다가 수줍은 미소를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짓는 선비를 본 계집들마다 하나같이 자 지러지는 것이, 같은 사내들은 알지 못하는 선비만의 남성미가 필시 있는 것이리라 여겨졌다.

“오늘은 이만 가야겠소.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알아봐 주시오.”

선비가 옷을 툭툭 털며 일어섰다.

“하지만 사수 일을 부탁한 쪽에선 빨리 답변해 주길 바라는데…….”

“조만간 다시 들르리다. 그때 다시 명확히 하도록 하오. 필사할 것이나 좀 챙겨 주시오.”

주인장은 어쩔 수 없이 혼잣말인 양 중얼거리며 서책과 공책을 주섬주섬 챙겼다.

“그놈의 생원시만 합격해도 될 터인데. 도련님 실력이야 저는 알지만, 생판 모르는 사람은 어찌 알겠습니까요. 제가 목이 잠기게 잘한다 잘한다 노래를 불러도, 열여덟밖에 안 되는 도련님 나이만 듣고는 뒤로 나가 앉는데 별 수가 없었습죠. 사수처럼 해서체 써 놓은 걸 일일이 보여줄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선비는 가지고 왔던 서책 꾸러미를 풀어 평상에 내어 놓고, 주인장이 주는 것들을 보자기에 다시 싸서 챙겼다.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로 주인장에게 인사하였다.

“주인장의 노고는 내 알고 있소. 그러니 그렇게까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오. 그럼 며칠 안팎으로 늦지 않게 다시 오리다.”

돌아서 나가는 선비의 힘없는 뒷모습을 주인장은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하이고, 언제 봐도 호리낭창한 것이 계집들 애간장 다 녹이네.”

뒷덜미 쪽에서 침 삼키며 내뿜는 소리에 주인장은 화들짝 놀라 뒤돌아 보았다. 주인장의 아내가 한 말이었다.

“이 여편네가 또 숨어서 보고 있었구먼!”

“숨어서 보든지 말든지 당신이 뭘 상관 이람. 우리 같은 팔자에 저런 사내 향기를 언제 한 번 맡아 볼 수 있다고.”

“아무리 봐도 가운뎃다리가 시원찮을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것 같구먼. 야리야리한 것이. 그런데 웬 여편네들이 저 김 도령만 보면 오줌을 지리고 난리들일까 몰러.”

아내는 주인장의 다리 사이를 흘기며 빈정거리듯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야리야리하지도 못하면서 어째 가운뎃다리도 시원찮나 몰라?”

주인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 여편네가!”

“흥! 산 과부나 다름없는 내 신세에 저 선비라도 흠쳐보아야 덜 처량하지 않겠수?”

“산 과부? 어젯밤 당신 다리 사이에 들어갔다 나온 건 그럼 어느 놈 거야?”

“에구, 뼈꼭새 뒤집어져서 날아가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눈 깜빡할 사이에 들어왔다 나간 걸 갖고 생색낼 염치가 있수? 덩치만 큰 사내보다는 방금 그 선비야말로 진국이란 걸 모르니, 잠자리에서 제 여편네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지.”

“이 여편네 이거, 김 도령 가운뎃다리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를 본 거 아니야? 그러니 매번 이 지랄이지.”

“이그이그, 사내가 가운뎃다리만 맛인가? 찻찻.”

“내가 내 혀 깨물고 만다. 김 도령만 왔다 가면 밝히는 이 여편네와 허구한 날 입씨름이야. 당신이야말로 뭘 모르나 본데, 저런 사내는 오히려 제 집으로 태어났어야 해. 모르긴 몰라도 장안 제일의 기생이라는 초선이라도 그 미모에 울고 갈걸?”

“내가 누구 미모 때문에 운다고요?”

주인장 부부가 뜨끔한 표정으로 말싸움을 멈추었다. 바로 그 초선이 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말대로 빼어난 미모의 여인이다. 짙은 분칠에 붉은 입술, 사내를 흘리는 간드러지는 몸짓, 움직일 때마다 겨드랑이 아래가 살짝살짝 보이는 야한 옷차림에 값비싼 장신구들, 그리고 탐스러운 가체 위에 빼뜰게 쓴 전모까지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 않았다.

“초선이 왔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방금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초선이 미모에 사내 여럿 운다는 그 말이지.”

주인장은 어물쩍 말을 돌리고 웃었다. 초선의 시샘 많은 성격을 익히 알기에 그런 것이다. 그녀가 장안에서 유명한 것은 미모 하나만이 아니다. 사내 후리는 것도 따를 이가 없다. 그녀를 본 사내 중에 혹 하지 않는 놈도 없지만,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녀 자존심에 그냥 보내지 않는다. 물론 그 중에 초선이 상대하는 건 돈 많은 사내로 한정되어 있긴 하였다. 그 돈 많았던 사내들 가운데 그녀에게 금은보화 갖다 바치느라 지금은 거지가 된 이들도 부지기수다. 그러한 소문 때문에 주인장의 아내는 굶직한 호박가락지를 낀 초선의 손가락이 꼴 보기 싫을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초선의 가느다란 눈웃음에 가운뎃다리를 추켜세우는 남편 꼴을 보니 더더욱 그러했다. 어젯밤 잠자리에서도 저리 발딱발딱 세웠더라면 덜 미웠을 거다. 그래서 있는 힘껏 남편의 팔을 꼬집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어 비틀며 통명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로 왔나?”

“저번에 부탁해 놓은 화첩이 들어왔나 하고요.”

주인장은 아내의 눈 흘김에 재빨리 책을 찾아다가 초선에게 내밀었다. 원래는 공짜로 선물할 생각이었는데, 아내가 도끼 눈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말했다.

“요즘은 청의 화첩보다 조선의 화첩이 더 인기가 좋아서 구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가격이 좀 비싼데…….” 초선도 공짜를 기대했다가 돈을 요구하니 썰쩍해져서 물었다.

“얼마죠?”

옆의 아내가 주인장보다 먼저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다섯 냥이란 뜻이었다. 순전히 바가지였지만 초선은 그동안 공짜로 가져간 것도 많았기에 오늘은 순순히 돈을 지불하였다.

“그나저나 조금 전에 이곳을 나가던 선비님은 누구신가요?”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초선이 관심을 보이자 더욱 도끼눈이 된 아내가 말했다.

“걸인보다 더 가난한 선비이니, 초선이 눈길 줄 필요가 없지.”

“어머! 제가 돈만 보나요, 뭐?”

“당연히 아니겠지. 돈 말고도 권력도 보니까. 그 선비는 아직 초시도 통과 못한 사람이라 권력도 없다네.”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도 하지요. 아직 앓던 기가 채 가시지 않았으니, 대과에 겨우 합격한 늙은이들보다야 훨씬 싹수가 있어 보던걸요.”

초선은 손끝으로 전모를 매만진 후, 등을 돌려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게를 나갔다. 그 엉덩이를 넋 놓고 보고 있던 주인장의 허벅지는 또다시 아내의 꼬집힘으로 멍들었다.

“이 여편네가! 자기도 김 도령 보고 침 흘리면서 나한테만 왜 그래!”

“아주 가관이다! 아예 저년 엉덩이에 코를 박고 죽지 그래? 꼴을 보아하니 그동안 야금야금 가게 돈 갖다 바친 모양인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데, 얼마나 갖다 줬어?”

“갖다 주긴 뭘 갖다 줘! 꼬박꼬박 책값도 다 받았구먼.”

초선은 티격태격 싸우는 부부를 뒤로하고 가게를 나와, 구입한 서책을 하인 떡칠에게 넘기며 거들먹거리듯 종얼거렸다.

“흥! 별 시답잖은 서방 가지고 유세하기는. 언감생심 저런 농한테 내 손모가지 하나라도 잡게 해 줄까 봐? 이 초선이를 어떻게 보고…….”

멀찌감치 서서 초선을 보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앞에서 떡칠은 당나귀 옆에 허리를 숙여 웅크렸다. 그 등을 밟고 당나귀 위에 올라앉은 초선은 머리 한 번 까딱하지 않는 것이 오만하기가 정승 부인 못지 않다. 흔들거리며 걷는 당나귀의 움직임에 그녀의 몸도 따라 흔들리니, 사내들의 숨죽인 신음 소리가 길거리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초선은 그러한 반응들에 익숙한지라, 콧대를 하늘로 향한 채 알록달록 요란한 청나라 부채를 천천히 부쳤다.

책방들이 즐비한 필동에서 얼마 지나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않아, 초선의 눈에 한 남자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책방 앞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 선비였다. 고만고만한 사내들 틈에서 그는 단연 빼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어 단박에 알아차렸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내라 할지라도 금은보화를 갖다 바치게 하는 것이 초선의 진면목이다. 그녀는 먹이를 발견한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떡칠에게만 들리게 말했다.

“떡칠아, 당나귀 좀 빨리 몰아라. 저기저 선비 옆으로.”

재빨리 달리다시피 걸어서 갔다. 당나귀는 그의 옆에 당도해서야 천천히 그의 보폭에 맞춰 걸었다. 선비는 자신의 옆으로 당나귀가 가까워지자 고개를 들어 초선을 힐끔 쳐다보고는 다시 앞만 보고 걸었다. 보통 남자들은 힐끔 보았다가도 다시 재빨리 그녀를 보기 마련이다. 그러면 바로 그녀의 손아귀에 걸려들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선비의 눈동자는 다시 초선을 보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금 전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던 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빛 또한 돌덩이를 보듯 담담하기 이를 데 없어 그녀를 당황케 하였다. 전모 아래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데다 팔랑대는 부채에 가려져서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이리다. 초선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였다. 그녀는 결국 앞만 보고 걷는 선비의 시선에 자신을 맞춰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에구머니나! 이놈의 당나귀가 왜 이리 흔들거리나? 가엾게도 더위에 지쳤나? 어지러워 안 되겠네. 떡칠아, 나를 좀 내려다오.”

칭칭 감길 듯한 콧소리가 분명 선비의 귀로 흘러들어 갔을 텐데도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다른 사내였다면 쭈르르 달려와 당나귀에서 내리는 그녀를 부축해 주겠다고며 부산을 떨어 댕을 것이다. 이런 무관심은 처음 당하는 일이었다. 처음에는 반장난으로 시작하였지만 이젠 오기가 생겼다.

초선은 당나귀에서 내려 선비보다 앞서서 걸었다. 엉덩이를 사뿐사뿐 흔들며 걸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는 그녀 옆에서 떡칠도 당나귀 고삐를 잡고 무뚝뚝하게 걸었다. 자고로 먼저 말을 거는 여인은 매력이 떨어지는 법이다. 상대 쪽에서 먼저 말을 걸도록 유도해야만, 자존심도 지키고 남자도 녹이기 쉽다.

“떡칠아, 내가 있는 모란각에 빨리 가고 싶구나. 모란각에는 시원한 술과 더위를 쫓아 주는 음악이 있는데……. 초선의 노랫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도 많은 사내들이 오겠지…….”

초선은 뒤따라오는 선비의 분위기를 읽기 위해 말을 멈추었다. 등 뒤로 오는 시선일지라도 자신에게로 오는 것은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그녀였다. 몇 명의 남자가 어떤 욕정을 품고 쳐다보는지, 더 나아가서는 쳐다보는 남자들의 나이와 품계, 재산 정도까지 알아차렸다. 그런데 뒤의 선비는 알 수가 없었다. 초선을 보고 있기는 한데, 도무지 끈적거리는 욕정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적어도 보고는 있다고 느낀 그녀는 눈을 게슴츠레 뜨고, 입술은 붕어처럼 둥글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모아 앞으로 내민 채 꼼뻑거리며 고개를 뒤로 돌렸다. 초선의 색기 어린 이 표정에 쓰러지지 않은 남정네는 없었다. 그녀의 계산대로 선비와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선비는 아무렇지 않게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을 뿐 별다른 내색이 없었다.

초선은 올라오는 화를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느라 손에 든 부채를 보았다. 뒤돌아보지 않고도 목표로 하는 남자 앞에 정확히 부채를 떨어뜨리는 것도 그녀의 특기 중 하나다. 초선의 부채는 그녀의 의도대로 걸어오고 있는 선비의 앞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듯 던져졌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냥 지나친다면 이 선비는 사내가 아니라 남장한 여인네이리라.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그가 허리를 숙여 부채를 들어올리는 느낌이 포착되었다.

“어머나, 부채에 날개가 달렸나! 어디로 날아간 거지?”

초선은 혼잣말을 콧소리 섞어 하면서 몸을 선비 쪽으로 돌려 섰다. 그 순간 그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의 다리가 휘청하였다. 노린내 풀풀 나는 미소가 아니라 산뜻한 꽃미소가 조선의 아랫도리를 지그시 밟으며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이 부채가 꽃의 손에 오랏도록 잡혀 있더니, 스스로를 나비라 착각 하였나 보오.”

생각지도 못한 선비의 말이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상하였던 조선의 자존심을 아우르는 동시에 가슴까지 설레게 하였다. 부채를 가지런히 하여 그녀에게 건넨 그는 수줍은 미소로 인사하였다. 가까이서 본 선비의 용모는 아름다움 그 자체였다. 돈 많고 권력 있는 늙은이들만 상대 하던 조선은 새 세상을 접하기라도 한 것처럼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잘나가는 집안의 젊은 남자들도 간혹 상대를 하였지만, 이런 아름다움은 느낄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의 수줍은 미소에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인가. 돈 없는 젊은 사내들만 상대하는 추월 언니를 퇴물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이라 비웃었더니, 나도 벌써 나이가 들어가는 것일까? 이 선비님의 미소 앞에서 기생은 없어지고, 한 명의 인간만이 있게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의 사내들 틈에서 이런 미소를 기다려왔었던가?’

초선은 요란하던 몸짓을 가다듬고, 콧소리도 삼켰다. 그리고 새빨간 입술을 부채로 가리며 수줍게 말했다.

“처음 뵈는 선비님의 그윽한 미소가 웃고름만 흔들고 갈 것인지, 어이 하여 이내 마음도 같이 흔들고 가시나요.”

선비의 얼굴에 순진무구하게도 당황한 기색이 만연하였다. 아직 여인을 모르는 풋사내가 분명하다.

“보시다시피 저의 당나귀 등이 비어 있습니다. 선비님의 서책 꾸러미가 무거워 보이는데, 댁이 어디신지 모르나 저 등을 빌려 드리고 싶어요.”

모란각에 데리고 가서 다른 기생들의 눈독을 들이게 하지 않을뿐더러, 선비의 집도 알 수 있는 일석이조의 속셈이 들어간 말이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친절한 마음 감사하나, 나는 가진 것이 없소. 그 부채의 귀퉁이만 한 비단도 장만키 힘들다고.”

“야속하셔라. 눈빛은 기생으로 아니 보셔 놓고는 입술은 기생 취급을 하시어요?”

초선의 슬픈 듯한 투정에 선비는 더욱 당황하여 말하였다.

“그것이 아니라, 어여쁜 여인에게 무어라도 해 주고픈 사나이의 객기요. 그대가 보기에 내가 사내답지 못하겠지만, 마음은 그럴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난하고 병약한 탓에 아직 여인을 가까이할 수 없어 속상한 내 마음도 헤아려 주오.”

수줍은 듯 내리뜬 선비의 속눈썹이 새까맣고 탐스러웠다. 병약하다니, 아마도 그래서 피부도 새하얀가 싶었다. 하얀 피부에 흐르는 윤기는 병약하다고 하기엔 조금 이상했지만, 초선의 눈에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다.

‘어쩔 이리도 겸손하실까? 옛사람들은 어떠하였는지 모르나, 요즈음의 여인들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꽃처럼 아름다운 남자를 더 좋아하는데.

“사내답지 못하다니요. 아니어요.”

선비가 감사하다는 뜻의 눈인사를 보이며 가려고 하였다. 초선은 급한 마음에 먼저 물어선 안 되는 말을 던졌다.

“어디 사는 누구신지는…….”

가려던 발길을 다시 돌린 선비는 또 한번의 세찬 꽃미소를 흘리며 말하였다.

“김 도령이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 나머지 이름도 나눌 수 있을 거요. 그런 인연이 없다 한다면, 내가 그대를 찾아서라도 가겠소.”

그가 뒷모습을 보이고 서서히 멀어졌다. 떡 벌어진 어깨도 아니고, 흰칠하게 큰 키도 아니고, 우람한 덩치도 아닌데, 초선에게는 다른 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선비만이 몽롱하게 어른어른 보였다. 그가 사람들 틈으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고 나자, 그녀의 정신도 깨어났다.

“내가 더위를 먹었나? 세상이 다 혼미하구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당나귀 등으로 오르려던 초선은 갑자기 놀라서 소리쳤다.

“아차, 선비님이 날 어찌 찾으신단 말 이냐! 초선이라 몇 번이나 말했던 걸 기억하실까? 모란각이라 여러 번 말한 것도 기억하실까? 어찌지? 어쩜 좋아!”

초선이 당나귀 등에 올라 선비를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 없었다. 안절부절못하던 그녀는 급하게 당나귀를 몰아 아까의 책방으로 달려갔다.

2

남산골, 묵동.

김 도령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한 뒤, 지친 걸음으로 깨끗하게 정돈된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어스름이 땅 위에 내려앉으려 하고 있을 즈음이라 방안은 어두컴컴해서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먼저 갓을 벗어 바닥에 두었다. 그 다음 도포와 저고리, 바지 등 옷을 차례로 벗었다. 다 벗은 옷 아래의 가슴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짧은 저고리 아래로 피부가 보이지 않게 여성들이 두르는 허리가리개로 단단히 묶여 있다 허리가리개를 풀지 않아도 어스름 사이에 드러난 선비의 둥그스름한 어깨와 물 흐르듯 부드러운 등줄기, 잘록한 허리 곡선, 절제된 요염함이 스며있는 둥근 엉덩이는 분명 여성의 것이다.

그가 아닌, 그녀는 상투를 꼬꼬 싸고 있는 당줄을 당겨 풀고 망건도 벗었다. 그렇게 풀어헤친 머리카락은 단정히 빗어 쫘쫘 딸아 검은 줄로 묶고, 한 번 걸어 올려 목덜미에 땀기로 새앙머리를 만들었다. 때때로 남장을 하고 나가 남성의 일을 하고, 못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김 도령! 그의 정체는 바로 김윤희란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다.

얇은 벽 너머의 건넌방에서 동생이자, 그녀가 남장하고 출타할 때 지니고 나가는 호패의 원래 주인인 윤식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누님이세요? 콜록콜록!”

기침에 마른 췌소리가 들어가 있다. 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희는 걱정되어 빠른 속도로 옷을 챙겨 입으며 말하였다.

“응. 나야. 어머니는? 구리개에 약 사러 가셨어?”

“외……, 쿨럭! 외가댁에…….”

윤희가 외출하기 전보다 윤식의 상태는 훨씬 나빠져 있는 것 같았다.

“잠깐 말하지 마! 얼른 옷마저 입고 건너갈 테니까. 윤식이 혼자 두지 말라니까. 어머니는 대체 왜 외가에 가신 거야? 가 봤자 안 좋은 소리만 잔뜩 듣고 기분 상해 오실 거면서.”

윤희는 옷을 입고, 서책 꾸러미와 갓과 도포, 호패 등을 챙겨 벽의 한쪽에 나 있는 작은 문을 열고 건너갔다. 방 안은 어두웠고, 방바닥에는 윤식이 누워 있었다. 이 어두운 곳에서 꼼짝 않고 누워 있는 동생이 가여워, 그녀는 손에 든 것을 던지듯 내려놓고 등잔불부터 켜다.

“등잔물이라도 켜고 누워 있지 그랬어? 갑갑하게.”

“괜찮아요.”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누이가 어떻게 버는 돈인 줄 뻔히 아는데, 누워 있을 거면서 고작 갑갑하다고 혼자서 등잔 기름을 태울 수는 없었다. 윤희는 등잔불 옆의 서안 위에 펼쳐져 있는 책을 발견하였다. 그녀가 출타하기 전에는 없었던 것이었다. 그녀의 눈은 자연히 윤식을 향하였다. 낮에 힘겨운 몸을 일으켜 앉아 책을 읽느라 몸이 더 나빠진 것이리라.

“왜 이랬어?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 윤식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바닥에 짚고 앉았다.

“낮에는 몸이 가쁜한 듯하여..... . 제가 어서 과거에 급제를 해야 누님도 고생이 덜할 터인데..... . 쿨럭!”

“너더러 그런 걱정하랬어? 몸부터 우선 건강해져야 과거든 뭐든 할 수 있잖아.”

“죄송해..... . 쿨룩쿨룩! 조만간 식년시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해져서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윤희는 그를 부축하여 이불 쌓아 둔 곳에 등을 기대게 하고, 하루 종일 더위에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지쳤을 동생에게 부채질을 해 주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병에 시달린 탓에 눈이 움푹 들어가고, 입술은 핏기 없이 껌질이 일어나 허옇고, 얼굴은 가족 아래의 뼈가 앙상하게 보이는 윤식을 애달픈 눈으로 쳐다보았다. 열여덟. 한창 나이인 동생이 이렇게 몇 년을 누워 있는데도 어떻게 해주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보여도 보았지만, 다들 비싼 약만 먹인 뒤 결국은 고개 저으며 나가 앉은 것만도 수십번이었다.

동생과 같은 또래의 남자들을 볼 때마다 그녀의 속은 더 상하였다. 그들은 모두 햇살 아래에서 뛰어다니고, 사부학당에 나가 공부를 하고, 어여쁜 여자한테 장가도 들고, 과거를 본답시고 과장에 나갔다. 어려서부터 영리한 동생이어서 더 애가 탔다. 오늘 우연히 만난 그 예쁜 기생의 유혹도 원래는 동생이 받았어야 했다. 윤식은 누이의 속이 덜 상하게 애써 기침을 삼키고, 건강한 척 말을 하였다.

“누님, 나가셨던 일이 잘 안 되었나 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아요?”

“응, 조금……. 거벽 일은 못 얻었어. 사수 일만 잔뜩이더라고. 네 호패를 안 좋은 곳에 쓰니까 아버지가 날 미워하시나 봐.”

“그럴 리가요. 하늘에서 누님을 내려다 보고 가슴 아프셨으면 아프셨지…….”

“아버지는 하늘에서도 책만 들여다보고 계시느라 네가 아픈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실 거야. 살아 계실 때도 우리 다 죽는 줄도 모르고 글만 들입다 읽으신 분이니까. 그래도 아버지께 배운 글 토막으로 밥이나마 벌어먹고 사니까 감사해야겠지.”

“제가 이번 초시에 나갈 수만 있다면, 누님은 사수로 과거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곧 그럴 날이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 하게 그러지 마.”

윤식은 누이의 부채질이 시원하다기보다 안쓰러웠다. 무거운 서책 꾸러미를 들고 먼 길을 걸어갔다 온 것을 알기에, 자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꾸만 그녀의 팔만 보게 되었다. 열아홉. 꽃 같은 나이를 자신의 병 수발로 보내고 있는 누이가 가슴에 멍울졌다. 작아져 팔목이 훑쩍 보이는 낡은 저고리도 그랬고, 처음에는 다홍색이었을지도 모르는 빛바랜 치마도 그랬다. 몇 년 전에 얻어 왔을 때부터 낡고 빛바랬던 것이라 원래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윤식의 가슴에 밟히는 것은 누이의 머리카락이었다. 상투를 틀기 위해 허리 아래까지 땀아 내렸던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고, 이제 는 땀으면 등 정도밖에 오지 않는 것을 숨기기 위해, 한 번 접어 올린 새앙머리만을 하는 그녀를 위해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녀도 여자인지라 예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바깥을 나가서 보면 다른 여인들이 하고 있는 치장을 볼 테고, 그것이 부럽지 않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이가 하고 있는 것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 흔한 은장도 노리개조차 없다. 그녀가 지닌 것 중에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오직 그녀 자신뿐이다.

“누님, 저 안 더워요. 그만 부치세요.”

윤희는 알았다며 싱긋이 웃어 보이면서도 부채질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집에만 있는 동생을 위해 바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유쾌한 어조로 꺼냈다.

“아참! 나, 오늘 엄청난 미인 기생한테서 유혹받았어.”

“네? 어떤 기생이요?”

“기명이 뭐라더라? 아! 삼국지연의에서 여포의 여인과 같은 이름이었어. 초선!”

“그래서요?”

“처음에는 못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오는데, 계속 앞에서 알짱거리면서 내가 먼저 말 걸게끔 유도를 하더라고. 그런 예쁜 여자를 보고 끝까지 모른 척하면 여자란 걸 들킬 것 같아서 결국 말을 걸었지. 마치 나도 반한 것처럼 말이야.”

“그래도 여러 남자를 상대하는 여자라, 누님이 여자인 걸 금방 알아채지 않았을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까요?”

“눈치 못 찬 것 같았다. 내 나름대로는 제법 잘 치근덕거린 것 같거든.”

“치근덕거려요? 누님이요? 하하하.”

윤식이 재미있다는 듯 소리내어 웃자, 윤희는 더욱 의기양양하게 말하였다.

“응, 그랬다니까.”

“혹시 그 기생이 진심으로 누님께 반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에이, 설마. 그냥 손님 끌려고 그랬겠지. 그래서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도망쳤는걸. 멀리 돌아서 오느라고 힘들었어.”

“또 모를 일이죠, 정말 반했을지……. 어쩐지 그 초선이란 기생이 불쌍한걸요.”

“그런 기생조차 내가 여자인걸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남장하고 다니는거 막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언제나 들키면 노심초사하면서 다니는데.”

윤식은 누이가 내뱉은 기생의 눈도 속일만큼 남자다웠다는 말에 웃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보지 않아도 그 기생보다 누이가 훨씬 아름다울 것만 같다.

밖에서 사람의 기척이 들렸다. 윤희는 부채질을 멈추고 바깥을 향해 말하였다.

“어머니세요?”

“.....응.”

윤희는 벌떡 일어나 나가면서 윤식에게 말하였다.

“잠깐만 기다려. 저녁 챙겨서 올게.”

그녀가 방문을 열고 나가니 방 앞의 좁은 마루에 어머니가 힘없이 털썩 주저앉는 모습이 보였다. 외가에만 다녀오면 언제나 그러하였지만, 오늘은 더욱 지친 듯이 보였다. 그래서 방문을 꼭 닫고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다녀오셨어요? 외가 분들은 다 무고하시죠?”

어머니는 멍하니 있다가 딸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쓰개치마를 접으며 작은 소리로 말하였다.

“으응..... 그렇지, 뭐.”

“속상하신 일이라도.....?”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냥. 안 가고 싶어도 다음에 우리 윤식이가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나가게 되면 마주치게 될 터이고, 그러면 힘이라도 되어 주지 않을까하여..... 그걸 부탁할 사람이 그나마 내 혈육이라 여기고 인연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별소리 다 듣지만 가고 또 가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의 눈에서 굵은 물줄기가 흘러내렸다.

외가는 큰 벼슬자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철저한 노론 집안이었다. 그에 반해 돌아가신 아버지는 살아생전 과거 응시를 금지 당했던 남인이었다. 젊어서 우연히 만난 부모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 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둘만의 혼례를 올리고야 말았다.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다면 어머니도 외가에 가서 수모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 인좌의 난 이후 남인의 과거 응시를 금지시켰던 전왕인 영조가 승하하고, 지금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임금이 왕좌에 올라 남인의 과거 응시를 풀어 주기 바로 직전에, 아버지는 그동안 읽었던 책 내용 한 번 써먹지 못하고 덧없이 가고 말았다. 그것이 바로 5년 전의 일이다.

노론과 결혼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 남인 집안 친가와 남인과 결혼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 노론인 외가. 이 둘 사이에서 윤희의 집은 철저히 배격된 채 친척 없는 삶을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수모를 당해 가면서까지 친가나 외가 쪽에 인사 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를 일찍 여읜 자식들을 위해서였다.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윤식이기도 윤식이지만, 우리 윤희……, 언제까지 우리 뒤치다꺼리하느라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잖아. 더 늦기 전에 좋은 신랑 만나 예쁨 받고 살아야지.”

“그런 말씀 마세요! 윤식이 병이 다 나을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요! 나아서 과거 급제하고, 그러면…….”

“네 인생은 어찌고! 부모가 자식한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죄를 짓길 바라는 거냐? 이렇게 네 등골 다 빨아먹어 가며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미치겠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 이려고 있는 거 보기 싫어서, 네 짧은 머리 꼴도 보기 싫어서……. 내가 바보지. 어쩐 일로 친정에서 너한테 만석지기 혼처를 넣어 주나 신나서 가 봤더니, 만석지기? 얼어 죽을!”

어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말을 이었다.

“널모레 오십 줄 드는 영감탱이 후처 자리더라. 줄줄이 첩들도 끼고 있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멸시할 수 있는 건지. 세상에…….”

“아마 어머니 고생하시는 거 마음 아파서 그랬을 거예요. 지금 처지로는 좋은 혼처는 불가능하고, 그나마 그런 곳에 시집가면 윤식이랑 어머니도 지금보다 더 관찰아질지도 모르고. 근데 정말 만석지기가……, 확실한건가요?”

어머니의 눈이 화로 끓어올랐다. 윤희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의도를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진짜 만석지기라면 어찌려고? 너마저 이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니, 좋은 불일지도 몰라요. 무턱대고 그러시지 말고…….”

“네가 심청이냐, 공양미 300석에 팔려 가게? 심청이가 효녀라고? 천만에! 그것처럼 독한 불효는 없는 거야. 자식새끼 팔아먹은 짐승보다 못한 부모로 만드는 거라고! 차라리 내 살점 뜯어서 씹어 먹는 것이 더 행복하지…….”

갑자기 등 뒤의 방문이 열리고 윤식이 일그러진 표정으로 얼굴을 내밀며 소리쳤다.

“누님, 전 그런 자형 싫습니다! 저 때문에 누님이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목매달고 말 것입니다.”

“유, 윤식아.”

“저 이번 초시에 응시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반드시……, 누님을 좋은 곳에 시집보내서 행복하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윤식은 울음만 삼켰다. 과거에 응시를 한다고 해도 이런 건강 상태로는 하루 종일 과장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지만, 합격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었다. 누이를 위해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는 자신이 몸서리쳐질 만큼 저주스러웠다. 어머니도 절망에 빠져 소리쳤다.

“우리 그냥 다 죽고 말까? 응? 가서 너희들 아버지께 실컷 욕이나 하게?”

윤희는 고개를 들어 어느새 하나둘씩 얼굴을 내민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별은 반짝이는데, 세상은 절망스러웠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아등바등 사는데도 살림은 나날이 궁핍해져만 가고, 윤식의 병은 더 나빠져만 간다. 병이 나아 과거에 급제를 하는 날이 오기도 전에 지쳐서 죽을 것만 같다. 그녀는 한숨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말을 뱉었다.

“나라도 과거를 볼까?”

윤희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조금 전 자신이 실수로 흘린 말을 되새겨 보았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내가 윤식이 대신 과거를 보면?”

“뭐라고? 방금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눈이 둥그레져 딸의 표정을 살폈다. 윤식도 어머니와 같은 표정으로 누이를 보았다. 윤희는 주위를 살피고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 앉자마자 급하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매번 남들 과거 대신 봐주느니, 이번에 윤식이 이름으로 생원이나 진사 중에 하나에라도 입격하면, 다음 과거부터는 돈 되는 거벽도 할 수 있을 게 아니겠어요! 그사이 건강을 추슬러 대과부터는 윤식이 직접 응시하면 될 것이고.”

“너무 위험합니다, 누님!”

“그동안 과장에 익숙해졌으니 실수할 일은 없어. 어떤 식으로 초시가 진행되는지도 뻔하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면, 해 보거나 하고 죽자. 또 언제 남인 과거 응시 금지령이 떨어질지도 모르잖아. 당저(當?)-지금 왕위에 있는 임금. 여기서 정조-께서 남인들도 등용하고 있는 이때를 놓치면 영원히 희망은 없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어.”

윤희와 윤식은 잠자코 생각에 빠진 어머니를 보았다.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안 될 것도 없었다. 딸의 말대로 지금 이 시기를 놓쳤다가, 정권이 뒤집어져 다시 과거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이윽고 어머니의 입이 열렸다.

“생각해 보자. 될 거야. 남들 과거 합격시키기도 했는데, 동생이 안 될 이유는 없지. 남들도 그렇게 한다면……. 그래, 윤식이가 이번 소과에만 입격해도, 윤희한테 부유하진 않아도 적어도 제대로 된 혼처는 들어오겠지.”

어머니 말에 윤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소과에 입격한다고 해도 길에 널린 게 놓고먹는 생원 아니면 진사인지라, 나라에서 말단직 하나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누이의 혼처 자리는 달라지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과거에 합격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옳치없는 짓이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면, 누이의 나이가 더 들기 전에 이러는 것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가장 나은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윤식과 어머니는 윤희를 더 나은 곳에 시집보내기 위해, 윤희는 한꺼번에 많은 돈을 손에 짊 수 있는 거벽 일을 하여 윤식을 더 나은 의원한테 보이기 위해, 그렇게 서로 간의 의견을 모았다.

3

소과 초시 중 진사시가 열리는 날이 되었다. 팔월도 반이 지났지만 아직 더위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새벽별이 또렷한 것이 비가 내릴 가능성도 없어 보였다. 윤희는 초시가 열리는 날은 원래 유난히 더운 기운을 내리는 하늘의 심술을 알기에, 일산을 준비하려고 여러 곳을 기웃거렸다. 하지만 턱없이 비싸거나, 아니면 빌리고자 한 데에서는 이미 다른 이들에게 다 빌려 줘서 구할 길이 없었다. 이렇게 되니 한낮에 땀별에 앉아 과거를 봐야 될 판이었다.

윤희에게는 사소한 일사병 따위에 신경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을 쓸 겨를이 없었다. 시험만 생각해도 손끝이 떨려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없을 것만 같아 그것이 더 걱정이었다. 다른 과유들처럼 어려서부터 서당과 사부학당을 거쳐 가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밤낮없이 글공부를 한 것도 아니다. 아버지의 글 읽는 소리를 두서없이 듣고, 순서 없이 이 책 저 책을 마구잡이로 읽어 온 것이 고작인 그녀다. 그래서 짧은 기간 내에 천자문과 소학부터 사서와 사경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훑어보느라 고역을 치러야만 했다.

순서가 없긴 하였지만 분명 그녀가 다 섭렵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아버지 말씀처럼 여겨졌던 내용들이 고봉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졌다. 이상한 것은 어렵게 느껴지는 만큼 책 속의 세계에 매료되었고,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픈 욕구가 생겨났다. 여기에다가 또 어려운 건 시권에 써서는 안 되는 문자와 내용들을 구분해서 외워야 하는 부분이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원래도 정학 이외의 책을 많이 읽긴 하였지만, 필사하는 일을 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 짙어졌다. 무엇이 정학인지, 무엇이 사학인지 헷갈려 자다가도 가위에 눌릴 지경이었다. 그래서 지난 별시에서 그녀가 아무렇게나 써 준 시권이 합격했다는 것이 어쩐지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차신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윤희는 짐을 꾸려 열흘 전 녹명소에서 배정받은 시험 장소인 성균관 비천당으로 향하였다. 등 뒤로 자신을 보고 있는 아픈 동생과 홀로 되신 어머니의 기대감이 어깨를 짊어 눌렀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발을 높이 치켜들어 가며 힘차게 걸었다. 캄캄한 길에는 과장으로 향하는 과유들이 한 명 두 명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하나같이 일산을 허리띠에 끼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비록 그런 것은 없었지만 표정만큼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긴장 되어 있었다.

윤희는 날이 조금씩 밝아져 사람의 얼굴이 구분될 정도가 되어서야 성균관 앞에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도착하였다. 그곳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그래서 비천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까마득하게 보였다. 그녀는 우선 모인 사람들을 쪽 훑어보았다. 사수로 여기 왔을 때는 사람들을 눈여겨본 것이 아니라 들킬 것을 염려해 관원들을 보았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보다 자신의 경쟁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가 더 신경쓰였다.

많은 사람들이 윤희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 보였고, 어려보이는 이들은 간혹 있었다. 그리고 서너 명이 한 접을 이루고 있는 이들도 종종 보였다. 과거에 응시하는 진짜 과유, 그를 도와주기 위해 고용된 거벽과 사수, 그리고 덩치 크고 힘 좋은 선접꾼-과거 때 남보다 먼저 들어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과거장에서 그중에서 몸싸움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싸움꾼을 지칭하는 말로도 쓰임-등으로 한 접이 된 무리들. 초시 때는 다른 과거들과는 달리, 과장의 문이 열리면 물밀듯이 사람들이 밀려들어가게 된다. 그럴 때마다 앞서 들어가 좋은 자리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를 차지하기 위한 몸싸움이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하기도 한다.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힘 좋은 선접꾼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덩치가 커서 한눈에도 책만 들여다보는 서생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녀도 이전까지는 그들처럼 한 접을 이루고, 선접꾼의 보호 아래에 있었기에 그다지 힘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처지가 달라졌다.

윤희는 그간의 경험을 살려 그들 옆에서 되도록 떨어져서 섰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서로 수군거리는 말들을 유심히 들었다. 그중에는 시험과 관련된 정보도 있는 법이다.

“자네는 왜 이번에 거벽이나 사수 없이 왔는가?”

“소문 듣자 하니 이번 초시는 당저께서 친히 재시험을 실시할지도 모른다 하여…

“에이, 아무리…….”

“것도 모를 일이야. 선대왕이신 영조 임금께서 소과에 입격한 이들을 죄다 쫓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에 모아 놓고 친히 일일이 질문해서 시권과 다르게 답한 이들을 축출해 낸 일이 있었지. 불시에 당한 일이나 부정 입격한 이들 대부분이 들통이 났다네. 저번 별시에서도 실력 없는 자들이 합격을 많이 하였으며 주상 전하께서 진노하시었다더군. 그래서 이번 초시에서 예전과 같이 하시진 않을까 하는 소문이 돌고 있는 모양이야.”

“조심들 하자고. 주상 전하의 성명은 익히 아니까. 난 이상하게 영조 임금보다 오히려 더 조용하신 지금의 주상이 더 무서우이. 산전수전 다 겪은 백발이 성성한 노신들도 말 한마디로 제압하신다고 하니.”

“아참! 그것보다 들었는가? 좌상 대감댁 이 도령이 이번 초시를 보러 올 거라 더군.”

“뭐? 결국……. 역시 어명이 무섭긴 무섭군. 이번 식년소과는 이 도령을 위한 자리가 되려나?”

“그게 뭘 말인가? 어명이라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자네는 모르나? 그 덕 도령이 학식이 깊기로 명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며 과거는 아니 보고 글만 읽었지. 좌상 덕이라고 하면 노론의 실세 중의 실세 아닌가. 음서로도 충분히 조정에서 한자리할 수도 있는데 한사코 거부하니, 좌상 대감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나? 그러다가 이 도령에게 상감마마께서 친히 과거에 응하라는 명을 내렸지. 할 수 있나? 어명인데 나와야지.”

“혹시 소문만 그럴듯하고 진짜 실력은 형편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들통 날까 봐 이제껏 과거를 안 봤던 거고. 하하하, 이번에 창피를 툭툭히 당할지도 모르겠군.”

윤희가 소문에 귀 기울이고 있을 때, 무니 열리기 한참 전임에도 불구하고 인산 인해를 이룬 사람들의 인파는 그 수를 감당하지 못해 이리저리 휩쓸리기 시작하였다. 뒤에 도착한 힘 있는 무뢰배들이 앞으로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힘없는 과유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을 밀쳐 내느라 일어난 소동이였다. 이렇게 인파가 요동치자 위험한 건 선접꾼만이 아니라 그녀보다 힘 좋은 모든 남자들이 되어 버렸다. 윤희는 문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버텨 보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점점 더 밀어내고 있었다. 급기야 한 선접꾼의 다리에 걸려 몸이 휘청하였다. 이 인파 속에 넘어지면 압사는 당연지사다.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그 아찔한 순간, 누군가가 손을 뻗어 윤희의 팔을 힘껏 잡아당겼다.

가까스로 넘어지는 것을 모면한 뒤에도 그녀는 놀란 나머지 정신이 혼비백산하여, 누군지도 알 수 없는 힘 있는 그 손에 자신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었다. 그 손 덕분에 더 이상 밀려 나가지도, 휩쓸리지도 않았다. 어느덧 휘청거리던 인파의 물결도 잠잠해졌다. 그와 함께 윤희의 정신도 서서히 돌아왔다. 그제야 말없이 자신의 팔을 단단히 잡고 있는 손을 알아차렸다. 윤희는 손의 주인을 보고 인사를 할 생각으로 고개를 들어 보았다. 그런데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눈에 들어온 건 흰칠한 남자의 하얀 목덜미였다. 그중에서도 그녀의 부끄러운 시선을 묶어 둔 건 특 불거진 사내의 목젓이었다. 보통의 남자라면 목젓이 있어야 정상이기에, 그녀는 괜스레 미미한 자신의 목이 신경 쓰여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숙였다.

“누구신지는 모르나, 덕분에 위험을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받을 일이 아닙니다.”

목젓을 울리며 만들어 내는 소리가 그윽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와중에도 윤희의 팔을 잡은 손은 놓지 않았다.

“이, 이제 괜찮으니 팔을 놓아주십시오.”

“아닙니다. 또 위험해질지 모르니. 과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이러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저, 그것이……. 이렇게까지 폐를 끼칠 수는……”

“서로 뭉쳐 있지 않으면 저도 밀려날듯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하여 그렇습니다. 서로 상부상조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혼잡한 과장에서는 다들 자기 잇속을 챙기느라 정신없는데, 팔을 잡아 준 이는 어딘지 모르게 다른 느낌이 들었다. 초조하고 신경질적인 사람들 틈에서 그만이 어울리지 않게 여유 있고 차분한 분위기라니. 그래서인지 그는 과거를 치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유람이라도 하러 온 기분이 들어, 윤희도 덩달아 초조함이 사라졌다.

이번에는 그의 얼굴이 궁금하여 고개를 들었다. 윤희의 키는 보통 고만고만한 사내들의 키와 비슷한 정도로, 여자치고는 상당히 큰 키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어찌나 키가 큰지 그녀가 고개를 들면 그의 목젓만 겨우 보일 정도이고, 눈을 수평으로 하여 보면 딱 버러진 어깨가 펼쳐질 정도였다.

배곡하여 둘러졌던 주위가 조금 한산해졌다. 윤희도 거동하기가 훨씬 편해지자, 좀더 높이 고개를 들 수 있었다. 그의 얼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굴이 보였다. 그의 얼굴이 한눈에 들어오자마자 화들짝 놀란 그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차마 보고 있기에는 낮이 화끈거릴 만큼 준수한 귀남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남장을 하고 있는 것도 망각하고 얼굴을 붉히고 말았다.

“상당히 앳되어 보이시는데, 거자께서도 이번 초시가 처음입니까?”

갑작스런 질문에 윤희는 또 한 번 화들짝 놀랐다. 다시 들어도 점잖고 멋진 목소리다.

“아, 네. 그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처음입니다.”

“바, 반갑습니다.”

“일산을 안 가져오셨기에 첫 과거가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그건 구하기가 힘들어서이지, 필요한 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같이 사용합니다. 다들 일행들이 있는데, 저만 혼자 이 큰 일산을 펼쳐야 하나 어쩌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렇게까지 폐를 끼칠 수는 없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습니다.”

“관찰합니다.”

윤희는 마음을 가다듬고 귀남자를 다시 쳐다보았다. 그런데 그의 품격있는 얼굴을 미처 다 눈에 담기도 전에 그의 얼굴 너머에서 그녀를 쳐다보는 무언가가 느껴졌다. 눈을 그쪽으로 돌리니 우락부락한 도깨비 얼굴이 순식간에 확 다가왔다.

“악!”

윤희의 외마디 비명 소리에 귀남자도 깜짝 놀랐지만, 뒤쪽의 도깨비는 더 깜짝 놀랐다. 그는 뒤를 보며 그녀가 왜 비명을 질렀는지 알겠다는 듯 싱긋이 웃었다. 새파랗게 질린 윤희를 보며 도깨비가 사람 말로 중얼거렸다.

“뭘 그리 놀라십니까요? 하도 예쁘장한 선비님이라 자세히 보려고 그랬는데……. 찻! 얼굴만이 아니라 간도 콩알만 한 것이 영판 계집입니다요.”

“어허, 순돌이 이놈! 이 무슨 예의 없는 말이냐? 네가 그리 얼굴을 들이대면 보통 담력이 아니고서야 놀라지 아니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사내가 있겠느냐?”

“하지만 몸도 가냘픈 것이…….”

도깨비의 말에 윤희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귀남자에게 잡혀 있던 팔을 힘껏 빼내었다. 지금 자신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여야 했다. 윤희가 야멸치게 손을 거부하자, 그는 화가 나서 팔을 뿌리친 거라 오해하여 당황하였다. 윤희는 여자인 걸 들킬세라 핑계를 대었다.

“제가 어려서부터 병약하였던 탓에 몸이 야윈 것입니다. 그래서 서당이나 사부학당에도 나가질 못하고 혼자 수학하였습니다. 오늘도 아픈 자리를 떨치고 온 거라…….”

“제가 이놈 대신 사죄를 하겠습니다. 비록 외양이 이러하고 말도 마음에 두지 않고 생각한대로 하는 녀석이지만, 결코 고약한 마음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이놈 나름대로는 참으로 고운 선비님이란 뜻에서 한 표현이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척 봐도 지체 높은 가문의 자제인 듯한데, 조금의 시건방짐도 없고 겸손한 것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의 분위기 때문인지 윤희도 민망해졌다.

“화나서 팔을 뿌리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실례를...”

“놀라시는 건 당연합니다. 이 녀석 외양을 보고 놀라지 않는 이가 없지요. 하지만 겉과는 달리 속은 이름처럼 순한 놈입니다.”

순돌이는 미안했는지 안절부절못하여 윤희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도깨비를 보고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키가 큰 귀남자보다 훨씬 더 큰 키에, 산을 옮겨 놓은 듯 거대한 몸집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선하게 느껴졌다.

이제까지 본 어느 선접꾼도 이와 같은 덩치는 없었다. 팔뚝 하나가 윤희의 몸통만 하였다. 아마도 팔을 잡아 준 건 귀남자였지만 두 사람이 밀려나지 않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순돌이의 힘 덕분이었던 모양이다. 순돌이가 등 뒤로 일산과 자리를 지고 있는 듯했지만, 워낙에 큰 덩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로 인해 보이지는 않았다.

“참으로 훌륭한 선접꾼을 두셨습니다.”

“선접꾼?”

그는 윤희의 말을 이해 못 한 듯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돌이를 보자 그제야 알아차리고 말하였다.

“아, 아닙니다. 순돌이는 제가 과장에 들어갈 때까지만 있어 줄 겁니다.”

“아깝게 왜…….”

아깝게 왜 그냥 보내느냐는 윤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순돌이가 확고부동한 태도로 소리쳤다.

“안 됩니다요, 도련님!”

도련님? 그렇다는 건 이 귀남자는 아직 미혼이란 뜻이다. 미묘한 설렘이 윤희의 가슴께를 간질였다. 순돌이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주인어른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도련님을 따라 과장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맡아 주라고 하셨습니다요. 방금도 위험하였는데, 들어가게 되면 더할 것 아닙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까? 도련님께 작은 상처라도 생긴다면 손네는 가슴 아파서 죽을 겁니다요.”

“좋은 자리라는 그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무턱대고 들어가서 뭘 어쩌겠다고 그러느냐? 고생하지 말고 들어가거라.”

귀남자의 점잖은 타이름에 순돌이는 울먹거리며 말하였다.

“제가 멍청해서 주인어른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기억도 못 해서……. 분명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귀남자가 한숨을 쉬며 말하였다.

“내가 너를 따돌리고 왔어야 하였는데. 내 과거인데 애꿎은 널 고생시키는구나.”

“헤헤. 도련님이 그러실 거라며 주인어른께서 아예 방 안에서 대기하라고 하신 겁니다요. 그나저나 주인어른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어떡합죠? 저,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요.”

“과장 안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장소야 다 같질 않겠느냐? 염려 마라.”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이상한 대화였다. 분명 귀남자는 주인이고 순돌이는 하인인데, 하인을 대하는 주인의 태도가 동생을 대하듯 자상하기 이를 데 없다. 밀고 당기는 신경질적인 인파 속에서 홀로 여유 있는 태도도 그렇고, 말투나 표정도 점잖은 것이 아무래도 그의 깊은 내면도 그러리라 생각되었다. 보아하니 과거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피 말리는 투지도 없어 보였다.

윤희는 순돌이를 그냥 보내기에는 아까웠다. 이런 선접꾼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구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슬쩍 말을 꺼냈다.

“장소라고 다 같진 않습니다. 성균관 비천당에도 명당이 엄연히 있지요.”

귀남자는 그다지 솔깃한 기색은 아니었지만, 순돌이는 부리부리한 눈을 부릅뜨고 도깨비 얼굴을 윤희 쪽으로 들이밀었다.

“그곳이 어딴니까요?”

“순돌이라 하였느냐?”

“넵. 예쁜 선비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힘은 물어보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혹여 뒤통박질은 잘하느냐?”

“물론입죠. 제가 덩치는 이래도 날렵합니다요.”

“그렇다면 문이 열리자마자 도련님 뒤를 따라 들어가지 말고, 너 혼자 앞서서 달려들어 가거라. 어느 누구보다 빨리!”

“네? 그렇게 되면 도련님과 선비님은요? 저 없이 자칫 다치시기라도 하면... ..”

“네가 앞서 달려가며 만들어 놓은 인파 사이로 도련님도 따라 뛰면 된다. 넘어지지만 얹으면 다칠 염려도 없느니라. 그러니 뒤돌아보지 말고 최선을 다해 뛰도록 해라.”

“넵!”

“그리고 이제부터 더 새겨들어라. 네가 무조건 뛰어가야 할 장도는 비천당의 오른쪽 편에 쪽 늘어선 나무들 중, 두 번째 나무 아래다. 그곳에서 자리를 펼치고 일산을 박은 뒤 앉아 있도록 해라. 아무도 그 자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하면 도련님은 천천히 들어가도 되느니라.”

“그런데 왜 첫 번째 나무가 아니라 두 번째 나무입니까? 앞일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요?”

“그건 자리를 차지하고 하늘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말대로 하거라.”

“그, 그렇지만…….”

순돌이는 무조건 앞일수록 좋은 자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윤희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에게 귀남자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거자께서 이르는 대로 하거라.”

순돌이가 이해할 틈도 없이 비천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다.

“순돌아, 달려!”

윤희가 외치자, 순돌이는 자신도 모르게 앞으로 냅다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주위로 물길이 갈라지듯 인파가 갈라졌다. 그 사이로 윤희가 뛰어 들어가려고 하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지만, 귀남자의 단단한 손에 잡혀 그만 그를 놓치고 말았다.

“지금 뭐 하십니까? 도련님께서도 어서 뛰셔야지요!”

“거자께서 병약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 뛰면 아니 될 듯하여…….”

‘아! 깜빡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부딪치며 앞으로 몰려갔다. 그들에게 휩쓸리며 윤희가 소리쳤다.

“그러면 도련님이라도 어서 가 보셔야지요.”

“상부상조하기로 하여 놓고 어찌 먼저 말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빨리 가나 천천히 가나, 어차피 순돌이가 잡아 둔 자리에 앉아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귀남자는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세찬 인파가 윤희에게 직접 부딪치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으며 걸어갔다. 스치듯 병약하다고 한 말을 그는 유심히 들었던 모양이다.

순돌이는 자신의 뒤로 두 사람이 못 따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라오는지도 알지 못한 채, 윤희가 말한 나무를 향해 정신없이 돌진하였다. 그의 덩치와 빠르기에 다른 사람들은 부딪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죄다 놀라서 길을 비켜 주었다. 순돌이는 목구멍으로 숨이 차 올랐지만, 수많은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오른쪽의 두 번째 나무 아래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이미 그 바로 아래는 차지한 이들이 있어 어느 정도는 비켜난 자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숨고를 사이도 없이 한주먹으로 일산을 땅에 박고 자리를 깔고 앉았다. 그의 주위 곳곳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선접꾼들의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그에게 시비 걸러 오는 인간들은 없었다.

차차 숨이 가라앉자 순돌이는 아직도 오지 않는 도련님과 선비가 걱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지만, 자리에 꼭 앉아 있으라는 선비의 말 때문에 다시 앉았다. 자기가 도련님을 찾으러 가면 자리를 빼앗길 것은 어리석은 머리로도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멀리서 밀고 당기며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오고 있는 새까만 사람들이 보이자 걱정되어 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다가 또 앉았다. 한참을 좌불안석하고 있으니 멀리 사람들 틈에 갓이 찌그러지고 옷이 구겨져 만신창이가 된 도련님과 선비가 나타났다. 순돌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커다란 두 팔을 흔들었다.

가까스로 순돌이가 잡은 자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쓰러지듯 앉았다.

“도련님, 관찰으십니까요? 선비님은요?”

“관찰다. 허참! 내 이런 복새통은 처음이다. 이게 어디를 봐서 과거장이라 하겠는가. 이건 전장이다. 시제가 걸리기도 전에 벌써부터 이렇게 지치다니……, 저는 그럴다손 치더라도 건강도 좋지 못한 거자께선 힘드시겠습니까.”

윤희는 관찰다며 미소만 지었다. 지쳐서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힘겨웠다. 아마 진짜 윤식이 여기 왔다면, 송장을 치렀을 것이다. 순돌이는 갑자기 생각났는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뭐 하느냐?”

“왜 두 번째 나무 아래여야 하는지 하늘을 보면 안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하늘이 안 보입니다요. 나뭇잎이 너무도 뻑뻑하여……. 바로 아래가 아니라 비켜난 자리여서 그런가?”

순돌이와 함께 하늘을 보던 귀남자가 의미를 알아차리고는 싱긋이 웃었다. 하늘이 안 보이기에 좋은 자리였다. 해가 뜨게 되면 앞의 첫 번째 나무는 앙상하여 그늘이 거의 없겠지만, 이곳 두 번째 나무 아래는 짙은 그늘이 만들어 질 터이니 한낮 더위가 이곳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멀리 왼쪽의 나무 아래는 오전에는 햇볕을 그대로 받고 오후나 되어야 그늘이 지니, 오전의 그늘을 만드는 이 오른쪽 나무 아래가 더 낫다.

그의 눈동자가 윤희를 향해 멈추었다. 윤희의 눈동자도 그를 향해 멈추었다. 새까만 눈썹과 눈동자가 뚜렷하고 강렬한 눈빛을 만들어 내었다. 이렇게 마주하고 앉아 찬찬히 보니, 반듯한 콧날과 강직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입술, 작고 가름한 얼굴선이 흠잡을 곳이 없어서인지 날카롭게도 보였다. 윤희는 그를 마저 보지 못하고 눈빛을 피하였다. 그런데 그의 옷차림을 보게 되자, 또다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를 지체 높은 가문의 자제라 생각한 것은 순전히 얼굴만 보고서였다. 잘생기기도 하였지만 귀한 빛이 스며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의 옷을 보니 고개가 가웃거려졌다. 윤희만큼 낡고 초라한 옷은 아니지만, 지체 높은 가문의 자제가 입고 다니지 않는 검소한 것이다. 비싸 보이지 않는 옷감으로 만든 도포도 그렇고, 허리를 묶은 세조대도 흔한 천을 잘라 만든 것이고, 갓도 등급이 한참 아래인 것이고, 그 갓을 장식한 장신구도 평범하기 그지없다. 손에 든 접는 부채인 접선도 평범한 종이에 큰 치장이 없고, 선추도 달려 있지 않다. 게다가 그의 신은 비단혜가 아니라 미투리다. 이런 그를 전체적으로 보면 평범한 가문의 사람임이 분명하였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희는 그가 친근하게 느껴졌다.

귀남자는 긴 다리를 접어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흐트러진 매무새를 정돈하였다. 그리고 감사한 표정으로 나지막한 미소를 건네 왔다. 눈가와 입가에 번지는 미소가 푸른 하늘처럼 시원스럽고도 매력적이다. 순돌이가 불쑥 말을 던졌다.

“예쁜 선비님께서 과거가 처음이라 하셨는데, 어쩐지 과장에 익숙한 듯 보이십니다요.”

윤희는 지레 발이 저려 옆을 보았다. 과장을 빙 둘러서 쳐 놓은 하인 천막이 보였다. 미적거리다가 핑계를 대는데, 상대는 질문을 한 순돌이가 아니라 귀남자를 향해서였다.

“처음이기에, 그리고 일산도 준비를 못하였기에 그만큼 주위의 경험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여러 가지를 들었습니다. 선 접꾼 하나 없고 기운도 없는 저인지라, 이 자리에 앉게 될 줄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요. 덕분입니다.”

입에 나오는 대로 핑계를 대고 눈치를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슬쩍 살피니, 그는 윤희가 하는 말 그대로를 의심 없이 믿는 듯 보였다. 그리고 보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보여 준 태도는 신뢰였다. 그녀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는 정중하게 믿어 준다. 그래서 윤희가 하는 모든 거짓말이 그에게로 가서는 진실이 되어 버리는 느낌이었다.

드디어 시험이 시작되었다. 일제히 휴대용 작은 벼루를 꺼내 먹을 갈기 시작하였다. 손돌이는 내키지 않는 듯 망설였지만, 도련님의 명령에 따라 과장 밖으로 나갔다. 다른 사람들은 데려온 노비를 곁에 있도록 하였지만, 귀남자는 그것이 도리어 잘못된 것이라며 기어이 손돌이를 내어 보냈다.

현제판에 시제가 걸리자 뒤쪽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일제히 앞으로 달려가서 시제를 베끼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윤희와 귀남자는 명당답게 앞은 자리에서도 현제판이 훤히 보이기에 그런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되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윤희는 시권에 시제를 옮겨 쓰고, 우선 따로 가져온 빈 종이에 연습 삼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들을 적어 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옆의 귀남자를 보았다. 그는 반듯한 허리를 숙여 시권을 작성해 나가고 있었다. 아무리 이 바닥에서 날고 긴다고 하는 거벽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한 뒤에 옮기지, 바로 시권을 써 내지는 못한다. 그런데 그는 연습이란 걸 하지도 않고 시제를 받자마자 한 자 한 자 또박 또박 써 내려가고 있었다.

윤희는 혹시 잘못 보았나 하여 그의 시권을 유심히 보았다. 사조(四祖)와 자신의 이름 등을 적은 끝부분을 피봉한 곳에 녹명소에서 찍어 준 외타인(外打印)이 있는 걸로 보서는 그것이 분명하다. 한 장 밖에 없는 시권에 자칫 실수라도 하게 되면 큰일인 셈이다.

윤희는 그에게 주의라도 주기 위하여 부르려고 하다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붓놀림과 써 내려가는 글들이 수많은 연습을 하고 옮기는 것처럼 빈틈이 없었기 때문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이다. 귀남자는 예사 사람이 아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긴장도 되었다. 윤희는 이러한 긴장이 그와 비교했을 때 형편없는 자신의 실력 때문이라 생각하였다. 이런 남자가 이 과장 안에, 그리고 이곳 이외의 또 다른 시험 장소인 예조 과장 안에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더군다나 지금 성균관의 비천당과 예조에서 치러지고 있는 한성시와, 각 지방에서 치러지고 있는 향시를 거쳐 올라오는 이러한 남자들과 복시에서 만나, 다시 실력을 겨뤄야 한다. 아니, 이런 남자들과 거벽들 틈에서 복시로 올라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녀가 그동안 접한 과유들은 실력이 없어 돈으로 거벽과 사수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뿐, 이 귀남자와 같은 이들이 아니었기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쉽게 낙관하였었다. 그래서 새벽에 집을 나설 때의 긴장과 지금의 긴장이 만나 그녀를 더욱 떨리게 하였다.

이렇게 머리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집에 있는 동생과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안정을 하여야 한다. 윤희는 힘껏 시제에 정신을 집중하였다. 그리고 빈 종이에 이리저리 글을 써 내려갔다. 대충 정리를 마치고 써서는 안 되는 글자나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았다. 그러는 사이, 해는 점점 하늘 위로 떠올라 정오가 되어 가고 있었다.

점검을 마치고도 썼던 내용을 고치고 또 고치기를 되풀이하였다. 어떻게 고쳐도 자신의 실력이 형편없음이 드러나는 것만 같았다.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력으로 거벽 일거리를 탐내고, 자신에게 거벽 자리 하나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였던 것이 새삼 창피스러웠다. 오히려 저번 별시의 합격을 우연으로 보는 그들의 눈이 정확하였던 거다. 윤희는 고치기를 포기하고 시권에 옮겨 쓰기로 하였다.

귀남자가 시험을 끝내고 허리를 들었을 때, 윤희는 연습을 글을 열심히 시권에 옮겨 쓰고 있었다. 그는 유심히 그녀의 붓놀림을 보았다.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이 들어가야 하는 해서체를 날려서 쓰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더 반듯반듯하게 써 내려가는 것이 마치 귀신의 솜씨와도 같았다. 아무리 보아도 그보다 한참 손아래로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글을 읽고 썼으면 저런 묘기를 부릴 수 있을까 생각되었다.

귀남자는 먼저 시권을 제출하러 가지 않고, 그녀가 다 쓸 때까지 정좌를 한 자세로 조용히 부채를 부치며 기다렸다. 윤희는 비록 자신의 답안 내용이 마음에 차지 않는 않았지만, 시권 작성을 끝내고 허리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가 부채를 접으며 힘과 부드러움이 묘하게 섞인 목소리로 말하였다.

“다 되셨습니까?”

윤희는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아니, 다 끝나셨으면 저기 수권소에 제출하고 오셔야지요. 조정(무문) 할수록 그만큼 합격이 유리한 걸 모르십니까?”

“거자도 끝나면 같이 가서 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먼저 가 버리면 초조한 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음이 생겨 혹여 실수라도 하시지 않을까 하여, 거자께서 먼저 끝내고 가 버리면 저는 그러할 것 같아서요.”

정말 모를 사람이다. 물론 귀남자가 먼저 시권을 내려고 가 버리면 더욱 초조해져 버렸을 거다. 그렇다고 처음 만난 사람을 이렇게까지 배려하다니, 대체 이 남자의 여유는 뭐란 말인가. 여기가 어딘가? 바로 무기 없는 전장이라는 과장이 아닌가! 시권을 내는 사람들이 한둘 보였다. 그래서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하였다.

“저도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서 제 출하고 옵시다.”

“아직 거자의 먹물이 다 마르질 않았습니니다. 천천히 재확인해보고 제출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원래가 재확인해서 고칠수록 더 나빠지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내겠습니다.”

윤희가 일어나자, 그도 따라 일어섰다. 그리고 나란히 시관 앞에 가서 시권을 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출하였다. 그러자 뒤이어 줄줄이 시권을 제출하는 사람들이 몰렸다. 제자리로 돌아와 벼루와 일산을 챙기며 자리를 정리 하기가 무섭게 옆에 앉은 과유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과장 곳곳에는 삼삼오오 머리를 맞대고 시권을 작성하느라 여념이 없는 이들도 있고, 먹을거리를 꺼내어 놓고 먹는 이들도 있고, 술인지 물인지 알 수 없는 잔을 입에 기울이는 이들도 있었다. 또 사령들이 주전자를 들고 다니며 과유들에게 물을 따라주기도 하였다. 배곡히 과장 안을 메우고 있는 과유들의 숫자가 수천 명은 되는 듯 보였다.

귀남자는 한 사령에게 다가가 물 한 그릇을 받았다. 그리고 반 그릇은 먼저 마신 뒤, 남은 물을 윤희에게 건넸다. 순간 그녀는 당황하였다. 그의 입술이 닿았던 물을 마시라니. 사내들끼리는 아무렇지 않은 짓이기에, 멀쩡한 찜한 남은 물을 버리고 새로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내내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는데 목이 마르지 않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어쩔 수 없이 마셨다. 물이 단물을 풀어 넣은 것처럼 달았다. 긴 목마름 뒤에 마셔서인지, 아니면 그의 입술이 달았기에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었다.

과장을 벗어나면서 윤희가 말하였다.

“덕분에 편안히 시험을 치렀습니다. 도련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땡별 한가운데서 힘들었을 터인데.”

“상부상조한 겁니다. 거자께선 모레 있을 생원시에도 나가십니까?”

“네. 진사시나 생원시, 둘 중에 하나라도 되었으면 하여…….”

“장소는?”

“생원시는 일소(一所)인 예조로 배정받았습니다.”

“저도 예조입니다. 그럼 모레도 또 만나겠군요.”

윤희는 반가움에 희색이 만연하였다. 하지만 그 표정을 들키지 않도록 괜히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보는 듯 꾸뻘었다. 그가 웃으며 말하였다.

“이런, 저는 반가운데 거자께서는 그렇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지 않은가 봅니다.”

“아, 아닙니다. 반갑지 아니할 리가 있겠습니까?”

윤희가 어색한 마음을 채 거두기 전에 문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던 순돌이가 이들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녀는 어느새 우락부락한 도깨비 얼굴이 정겹게 보였다.

“도련님! 왜 벌써 나오십니까요?”

“끝났기에 나왔느니라. 넌 왜 아직 여기 있느냐?”

“당연히 기다리고 있어야 합지요.”

순돌이는 그의 손에서 일산과 자리를 받아 들었다. 귀남자가 윤희를 보며 말하였다.

“거자를 조금 더 잡고 담소라도 나누고 싶지만, 하루 종일 힘드신 분께 폐가 될 듯하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런 배려까지는 필요 없는데…….’

윤희도 좀더 그와 함께 있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접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럼 살피 가십시오.”

그도 단정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모레 예조 앞에서 뵙겠습니다.”

다음은 기약하는 마지막 그의 말이 아쉬움을 달래 주었다. 윤희는 한 번 더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뒤돌아서서 갔다. 순돌이가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말하였다.

“저 선비님은 한 글자라도 제대로 적었을까요? 나이가 어려 글도 얼마 못 읽었을 것 같고, 붓을 들 힘도 없을 정도로 약해 보이는데…….”

귀남자는 아무 말 없이 오랫동안 그녀를 보다가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하였다.

“보고도 설명하기 힘든 것도 있는 법이다. 내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으니…….”

순돌이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 그의 얼굴보다 딱 두 배 큰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가 입가에 싱긋이 미소를 담으며 말하였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순돌아, 너는 조금 전까지 보았던 저 거자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설명 할 수 있느냐?”

“네? 저 같은 놈이 무슨 말주변이 있어서요, 아유!”

“나도 설명할 수가 없구나. 언뜻 본 저 거자의 시권도 그의 외모처럼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었느니라. 순돌아, 내가 이번 과거에 응시를 한 까닭은 어명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이 정도의 글을 읽었으면 소과를 볼 정도의 자격은 되지 않을까 하는 자만 때문이었다. 그런데 아니었구나. 좋은 글동무를 만나기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온 듯싶다.”

“한데, 도련님. 도련님이야 원래부터 우리 같은 종놈들한테도 친절하시지만, 어째서 처음 보는 저분께 그리 신경을 쓰십니까?”

“내가 신경을 쓴다고?”

“네! 쇠네 눈엔 이상할 정도로 과하십니다요.”

“그래? 내가 그랬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귀남자의 감흥을 깨며 지나가던 어떤 이가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왔다.

“혹여……. 좌상 대감 댁, 이 도령 아니십니까?”

그는 상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답하였다.

“네. 그러합니다.”

“아이고, 이번 소과에 나오신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이렇게 계신다는 건, 지금 치르고 있는 진사시는 이미 끝냈다는……?”

“미흡하게나마 끝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소인은 그냥……. 여기 성균관에 서 일하는 서리입니다요. 예전에 한 번 뵈습죠. 워낙에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서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는 귀남자를 유심히 보았다. 입과 입을 건너 돌아다니는 이 도령은 검소하고 겸손한 선비였다.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보니 헛소문은 아니란 생각이 들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다.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서는 팥이 나는 법인데, 기세등등한 세도가인 아버 밑에서 어떻게 이다지도 다른 아들이 날 수 있을까 신기할 지경이었다. 그가 마저 인사를 하고 가자, 귀남자는 뒤늦게 무언가가 생각난 듯 소리쳤다.

“아차!”

그는 이렇게만 내뱉어 놓고 윤희가 사라진 곳으로 뛰어갔다. 순돌이는 영문도 모른 채 뒤따라 뛰었다. 얼마 가지 않아 지친 어깨의 윤희를 발견하였다. 그는 그녀의 팔을 힘껏 잡아챘다. 갑자기 잡힌 팔로 인해 윤희는 비명을 지를 뻔하였다. 하지만 너무 놀란 나머지 비명이 목구멍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여 여자 목소리는 겨우 잡을 수 있었다.

“깜박 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서로 통성명도 아니 하고 헤어질 뻔했습니다.”

윤희도 그에게서 돌아서서 가면서 줄곧 생각하였지만, 자꾸 만 여자의 마음이 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어서인지 쉽게 물어볼 수가 없어 참았던 것이다. 순돌이다 웃으며 그녀가 알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렸다.

“난 또,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더니만. 지나치게 신경 쓰시는거 맞다니까.”

귀남자는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 말라는 눈치를 준 뒤, 정중하게 말하였다.

“저는 이선준입니다. 본관은 진성이고 자는 강무, 호는 미수입니다. 그리고 나이는 올해도 스물입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묻는 건 가슴을 찡찡 감고 있는 허리가리개의 주인인 열아홉의 김윤희란 이름이 아니라, 이웃과 호패의 주인 이름이다.

“저는 김윤식으로 귀형보다 두 살 아래인 열여덟입니다. 본관은 안동이고, 자와 호는 아직 없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인사한 뒤에 등을 보이며 갔다. 윤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옆의 순돌이와 비교되어 작고 말아보이지, 그만 딱 떼어서 보면 큰 키에 넓은 어깨, 늘씬한 허리, 긴 다리가 완벽한 남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자였다.

“이선준…….”

윤희가 선준의 이름을 발음하자, 달고 시원한 향기가 입 안 가득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다.

4

생원시가 있는 날, 윤희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과장으로 갔다. 진사시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부터 이날 아침까지 윤식이 줄곧 고열과 구토에 시달렸기 때문이었다. 과거를 준비한답시고 필사도 하지 못하고, 사수 일도 다 거절하였에 집에는 돈과 쌀이 다 떨어졌다. 그래서 멀건 액체만 토해내는 윤식에게 약 한 첩 구해 주지 못하였다. 늦도록 윤희가 나타나지 않아서였는지 선준은 예조 앞 육조 거리를 메우고 있는 과유들의 무리에서 떨어져, 뒷짐 진 손에 접은 부채를 잡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고개를 푹 숙인 지친 발걸음의 윤희를 그가 먼저 알아보았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김 도령.”

윤희가 고개를 들어 보자, 그는 짐짓 놀란 표정을 감추었다. 아직은 어둑어둑하여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단 이틀 사이에 그녀의 얼굴이 너무도 창백하고 핏색이 없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희가 옆의 손돌이를 두리번두리번 찾으며 말하였다.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홀로…….”

“아, 손돌이는 저기 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먼저 와서 기다리고 섰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윤희는 수많은 인파 때문에 그를 찾을 수는 없었다.

“우리는 손돌이한테 말기고 천천히 들어갑시다. 오늘은 어떤 일인지 그저께 진사시 때보다 분위기가 더 거친 듯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진사시를 엉망으로 본 사람들이 생원시에는 더욱 날카로워진 신경으로 사활을 걸고 덤비기에, 입장하기도 전부터 싸움 나기가 원래 비일비재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였다. 윤희는 어떤 곳에도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 그저 하자는 대로 인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잠자코 비켜섰다. 옆에 주인 없이 선접꾼만 먼저 들어가면 자칫 세력 있는 과유들의 접에 밀릴 수도 있지만, 순돌이의 힘만 믿고 세세한 것은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만큼 지쳐 있었다. 선준도 어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옆에 가만히 서 있어 주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입장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도 인파의 끝에 서서 따라 들어갔다. 과장 곳곳에는 크고 작은 몸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윤희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어서 시험을 끝내고 집에 가서 윤식을 돌볼 일만 생각하였다. 그런데 멀리 명당이라 불리는 큰 나무 아래에서 일대 패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자세히 보니 큰 몸집의 사내 하나에 여러 사내들이 맞붙은 모양새다. 윤희는 정신이 확 깨어났다. 큰 몸집의 사내는 분명 순돌이다. 그는 막강한 힘으로 사내 한 명을 하늘 높이 번쩍 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어올려 내동댕이치려고 하고 있었다. 선준이 그들에게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이놈, 순돌아! 멈추지 못할까!”

순돌이가 깜짝 놀라 동작을 멈추었다.

하지만 다른 사내들은 멈춘 그를 향해 발길질을 사정없이 퍼부었다. 하지만 순돌이는 선준이 멈추라고 한 그 자세에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 중 한 사람이 소리쳤다.

“이분이 어느 댁 자제 분인 줄 알고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냐!”

순돌이가 억울한 듯 말하였다.

“내가 먼저 차지한 자리요! 그러니 내어 줄 수가 없소!”

윤희는 보지 않아도 알 만하였다. 분명 자리를 먼저 차지한 건 순돌이였다. 그런데 뒤에 나타난 세력가의 접이 혼자 있는 그를 몰아내려고 협박을 하였고, 이를 따르지 않는 순돌이에게 단체로 폭력을 행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순돌이가 반격을 한 것이다. 아마도 건장한 사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덤벼도 순돌이 혼자한테 당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할 수가 없어 권력의 힘을 빌려 협박을 하였으리라. 순돌이도 외쳤다.

“이분이 누구…….”

순간 선준이 긴 팔을 여으로 펼쳐 부채 끝으로 말을 막았다. 단지 그는 팔을 펼쳤을 뿐이다. 그런데 그의 강렬한 분위기에 압도당한 무리들은 조용해졌다. 선준이 차분하게 말하였다.

“순돌아. 그 사람을 내려놓아라.”

그는 도련님의 명령이라 하는 수 없이 화나는 것을 억누르며, 하늘까지 들어올렸던 사람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윤희는 그 무리들의 눈치를 보며 순돌이의 것으로 보이는 나뭇구는 자리와 일산을 챙겨 옆으로 슬금슬금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들 바로 뒤에 자리를 깔고 일산을 펼쳐 놓고는 앉았다. 그들이 비키기만 하면 되었다. 그들 중 누구도 순돌이와 선준에게 신경이 팔려 그녀가 그러한 것을 보는 이가 없었다. 선준이 순돌이에게 물었다.

“이 자리를 먼저 차지한 것이 정녕 네가 맞느냐?”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네, 물론입니다. 차지하고 앉아 있기도 하였습시다요.”

선준의 매서운 눈빛이 이번에는 시비를 건 무리를 향하여 말하였다.

“먼저 차지한 자리를 어이하여 달라 하셨습니까?”

그 무리 중 진짜 과유로 보이는 사치스러운 복장을 한 희끄무레한 사내가 뒤로 슬쩍 빠졌다. 대신 그 과유의 겸종쯤으로 보이는 이가 나서서 말하였다.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왕실의 척신이진 이조 정랑.....”

“왕실의 척신은 제가 알 바 아닙니다! 가문의 위아래를 두었다면 상감 마마께오서 처음부터 자리를 지정하여 주시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것도 흘려보내지 않을 만큼 빈틈이 없었다. 무리들 사이에서 느슨한 기운이 흘렀지만, 끝까지 버티는 이도 있었다.

“옷차림을 보아하니, 한빈한 선비 같은데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물러나시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제 옷차림이 한빈한 것이 아니라, 저 척신의 자제가 사치한 것입니다. 아버가 관직을 하고 나라의 녹을 받는 것이지, 아직 소과에 입격도 못한 이가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버는 돈이 아닌, 아버의 돈으로 이 정도의 옷을 갖추어 입는 것도 충분히 과분한 것이지요.”

사치스러운 복장의 사내 얼굴이 불쾌한 듯 일그러졌지만, 선준은 조금도 물려서지 않았다.

“누구든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먼저 차지한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설명을 해 주는 이는 물론 없었다. 순돌이의 힘보다 더 위력을 가진 그의 분위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들은 화를 내며 물러나고 말았다. 윤희는 그 무리를 보았다. 한 명의 진짜 과유가 한 명도 아닌, 여러 명의 선접꾼을 고용한 모양이다. 보통의 세력이 아니고서야 저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선준이 걱정되었다. 그들이 멀리 가자마자 윤희는 그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자리에 얼른 자리를 밀었다.

선준은 썩 좋지 않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멀리쯤에 자리 잡고 앉아 그들끼리 눈짓을 하며 나누는 모양새가 불길하였다. 그 무리의 진짜 과유와 선접꾼 무리들이 이쪽을 힐끔거리며 귓속말을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시문을 지어 주는 이와 글씨를 써 주는 이를 돈으로 사서 과거를 보는 치가 있다는 말이 사실이었군. 돈이 없어 사람을 사지 못하면 책을 가져와 내려 놓고 보면서 시문을 짓기도 하고…….”

그의 중얼거림에 윤희는 뜨끔하였다.

“그, 그런 이들도 있지요.”

“돈을 받고 시문을 써 주는 이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어이하여 그런 일을 하는지…….”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위험을 무릅쓸 만큼 절박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떤 절박한 사정이라고 하더라도, 범법자들입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 더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도 한 사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한 사람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사정으로 인하여 죄를 용인하여 준다면 세상 어느 누구도 범법자가 아니 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려워도 착하게 사는 이들이 더 억울할 겁니다.”

“법이 있다고 하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만 유리한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이들이 입에 풀칠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 죽음에 준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선준이 부드러운 미소로 윤희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대놓고 거벽과 사수를 옹호하는 말을 한 것은 스스로 사수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그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윤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말하였다.

“그 없는 다수의 선량한 백성을 위하여 과거는 더 엄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만 유리하지 않은 세상은 거저 오지 않습니다. 청렴한 관리를 뽑아야지요. 지금 입에 풀칠하기 위하여 돈으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과거를 치르는 이들을 관리로 갈 수 있게 일을 해 준다면, 훗날 그 이상의 것을 착취하는 관리가 되어 그들 위에 설 것입니다. 하지만 귀공의 말씀을 듣다 보니 제 말에는 허점이 많음을 알겠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는 문제는 배제한 채 하는 말은 공염불일 뿐……. 귀공은 좋은 관리가 될 겁니다. 그들의 고충까지 헤아리니.”

윤희는 자신의 입장을 말하였을 뿐인데, 그는 매사에 흘러보내는 말이 없다. 그녀는 이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였다. 극형 또는 곤장 100대에 처하는 중죄인 호패를 빌리고, 중형에 처하는 사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기함을 하고 두 번 다시는 다정하게 대해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선접꾼들이 과유와 거벽, 사수 등을 남겨 놓고 이쪽에 계속 눈을 두고 과장을 나가자, 선준이 부채를 펼쳐 입을 가리고 손돌이의 컷가에 소곤거렸다.

“손돌아, 먼저 가지 말고 우리가 과거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라.”

“그냥 여기서 기다립쇼.”

“어허!”

“넵!”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돌이를 보며 윤희가 조용한 미소로 인사하였다.

“수고 많았다. 순돌아.”

순돌이는 그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부끄러운 듯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넙죽 절하고 과장을 나갔다. 선준은 짐 중에 작은 상자를 꺼내어 윤희의 앞에 놓고 펼쳤다. 그 안에는 손가락으로 집어 먹기 편하게 나뭇잎에 하나 하나 싹 찹쌀떡과 엿이 담겨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시험 시작 전에 어서 드십시오. 저번에 보니 긴장을 많이 하신 듯하여 가져와 보았습니다. 입에 넣고 있으면 긴장이 조금 가라앉을 겁니다.”

윤희가 보고만 있고 먹지를 않자, 그가 손수 떡을 잡아 나뭇잎을 펼쳐 그녀의 입앞에 갖다 대었다. 마지못해 그의 손에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받아 입에 넣었다.

“맛있습니다.”

“저희 집 반빰아치의 음식 솜씨가 좋습니다.”

미소로 말하는 선준에게 그녀가 대뜸 말하였다.

“그보다는 귀형의 배려가 녹아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왜 이리도 잘해 주시는 겁니까? 고작 그저께 만난 것이 전부인데…….”

일말의 기대감으로 물은 것이다. 혹시 여자인 것을 알아차리고, 마음에 들어 이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이 빚어낸 물음이었다. 하지만 선준은 그녀의 기대와는 달은 말을 진지하게 하였다.

“좋은 글벗을 만나 반가워서입니다. 저도 사부학당을 중간에 그만두어서 글벗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조금이지만 귀공의 시권을 보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초라한 솜씨인데, 부끄럽습니다. 귀형이야말로 남자인 저도 반할 정도로 멋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으십니다.”

“하하하, 남자인 귀공은 안 반하셔도 됩니다. 그저 좋은 벗만 되어 주셔도 감사합니다.”

그의 웃음과 말이 어쩐지 가슴 한구석을 아리게 하였다. 윤희는 표정을 감추며 엿을 들어 나뭇잎을 벗기고 입에 넣었다. 그리고 상자의 뚜껑을 닫아 슬쩍 옆에 챙겼다. 동생과 어머니를 생각해서였다. 선준은 그녀의 행동을 보았지만 고개를 돌려 못 본 척하며 버루의 먹을 갈았다. 윤희는 그의 그런 모습도 멋있어 가슴이 아리었다. 그래서 그녀도 버루의 먹만 열심히 갈았다.

현재판에 시제가 걸렸다. 선준은 이번에도 연습 없이 바로 시권에 써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윤희도 이번에는 시권에 바로 적었다. 저번의 진사시는 시와 부를 짓는 것이라 연습이 필요하였지만, 생원시는 사서와 사경의 암기와 해석을 쓰는 것이기에 가능하였다. 무엇보다 연습해가며 시간을 사용할 여유가 없었다. 어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집에 가서 동생의 병을 돌보고, 필사하는 일거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빴다. 어머니의 샅바느질로는 하루 한 끼를 죽으로만 때우기도 벅차다. 그런데 마음만 바빴지 머리는 전혀 따라 주지 않았다.

옆의 선준이 써 내려가는 속도가 느껴졌다. 그의 거침없는 필력도 느껴졌다. 그의 힘이 느껴질수록 윤희의 손에선 힘이 빠져나갔다. 경서를 외워서 쓰는 건 힘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해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믿을 수가 없었다.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성균관의 비천당과는 달리 예조의 나무들은 앙상하기 그지없어 일산이 큰 영향을 주었다.

윤희는 시권을 뱅뱅하게 메우고서야 허리를 들었다. 선준도 그녀와 거의 비슷하게 끝마쳤다. 윤희는 그에 비해 생각하는 것이 더뎠던 것이고, 선준은 그녀에 비해 해서체를 쓰는 속도가 더뎠기에 얼추 비슷하게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내용에는 자신이 없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두 사람은 나란히 시관 앞으로 가서 시권을 제출하였다. 윤희는 어깨너머로 그의 시권을 훑쳐보았다. 간결하면서도 논리 정연한 내용에 각 시제 끝마다 자신의 식견도 반드시 첨가되어 있었다. 해석에 급급한 그녀의 시권과는 천지 차이였다. 이제껏 보아 왔던 그 어떤 거벽들보다도 달랐다.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과거에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세상에는 이런 남자도 있구나’

알 것 같았다. 과거에 합격하는 시권에 는 바로 이러한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그리고 자신의 낙방을 예감하였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다.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끌고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얼이 빠져 짐을 정리할 정신도 없었다.

후회가 되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면, 그동안 꾸준히 필사하여 배를 곯지도 않았을 거고, 사수 일을 한 돈으로 동생에게 싸구려 약제일망정 달여 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랬다면 동생의 병이 더 악화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어째서 과욕을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부리고,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자만을 하였을까? 이 과육 안에는 과연 가족을 위한 마음만이 있었을까? 늙은이에게 시집가기 싫은 혼자만의 욕심은 정녕 없었을까?

과장 안에는 윤희만 자탄에 빠진 건 아니었다. 젊은 놈, 늙은 놈 가리지 않고 제대로 시권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러하였다. 나이 든 이들 중에는 더러 눈물을 흘리며 소리 내어 신세 한탄을 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면 옆에서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이가 시끄럽다며 구박하기도 하였고, 끝난 이는 그 신세 한탄을 들어주기도 하였다.

여러 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서인지 윤희의 눈에도 어느덧 눈물이 맺혔다. 선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고개를 꼭 숙인 채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쥐었다. 그렇게 눈물을 참는데 그가 옆에 나란히 앉아 다정하게 감싸 안듯이 손으로 어깨를 툭툭 쳤다. 태양은 더운데, 그의 손은 따뜻하여 눈물샘을 더 자극하였다. 결국 억지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참던 눈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였다. 오래전에 상투를 틀기 위해 머리카락을 잘랐을 때도 참아 내었던 눈물이었다. 나이 어린 과유가 눈물을 흘리자, 주위의 나이 지긋한 과유들이 빈축을 샀다.

“아직 나이도 얼마 안 된 놈이 눈물이 뭘 말이야? 나이가 많아 다음 식년시를 또 기다리기 힘든 우리들도 있는데, 찢찢.”

윤희는 그들의 말에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선준을 보기 부끄러워서 눈물을 잘라내고 소매로 물기를 닦았다. 그런데 그가 그녀의 귓가에 입김이 달을 정도로 가까이 입술을 두고 속삭였다.

“모든 인간은 제각각 삶의 추를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추의 무게도 사람마다 제각각이지요. 나이가 어리다 하여 나이가 많은 이들보다 반드시 가벼운 삶의 무게를 지닌 것이 아니니, 눈물을 흘려선 안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윤희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울고 싶었지만, 갓이 걸려서 그러질 못하였다. 대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선준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번지는 염려의 미소를 접하자, 겨우 삼켰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어깨에는 여전히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느껴졌고, 그의 초록 빛깔의 체취도 후각을 자극하였다.

선준이 어깨를 감싸다가 자칫 여자인 것을 눈치 채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할 수 없었다. 어차피 오늘 이후로는 만날 수 없는 사람이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최선의 일은 나이 오십 줄에 접어드는 늙은이의 재취로 가는 일뿐이다. 그래서 이런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눈물보다 더 멈출 수가 없었다.

과장을 빠져나왔다. 문 바로 밖에 순돌이가 마치 문지기인 양 버티고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

“도련님, 이제 나오십니까요! 선비님은? 어?”

인사를 하려던 그는 그녀의 얼굴에서 운흔적을 발견하고 멈칫했다. 선준이 얼른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부채를 펼쳐 입을 가리고 순돌이에게만 들리게 말하였다.

“아까 너와 몸싸움하던 그놈들을 보았느냐?”

“아뇨, 제가 나올 때부터 지금껏 안 보이던데요.”

“그래?”

예상과는 달라 이상하였지만 그만 거이에 대해서는 머릿속을 털어 내었다. 세 사람은 갈림길에 가까워져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선준은 이대로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에 차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저희 집이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습니다. 혹여 시간이 관찮다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가 보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윤희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의 몸 상태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집에 일이 있어서 빨리 가 봐야 하고요.”

그녀의 거절이 아쉬웠다. 자꾸만 조초해져서 무언가 기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것만 같았다.

“그럼 합격자 발표할 때 만날 수 있겠지요?”

“글쎄요 제 이름은 없을 것 같아서…
…”

“그날 기다리겠습니다.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희는 아쉬운 마음을 숙이는 허리와 함께 누그러뜨렸다. 그리고 먼저 몸을 획 돌려 그들에게서 도망치듯 멀어졌다. 선준은 한동안 그녀의 위태로운 모습을 보다가 갈 길을 갔다. 뒤따라가며 순돌이가 물었다.

“도련님 예쁜 선비님이 많이 편찮아 보이십니다. 아무래도 시험도 못 보신 것 같고.”

“잘 못 본 게 아니라 스스로의 실력을 잘 모르는 게다. 병약하여 서당과 사부학당을 못 다녔다고 하니 아마도 비교할 상대가 없었기에 그러겠지.”

“그럼 잘 보셨다는 말씀입니까요?”

“내가 검사관의 실력에 미치지 못하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언뜻 보고 판단한다는 것도 옳지 못하다.”

한동안 말없이 걷다가 선준이 작은 소리로 말하였다.

“순돌아 혹여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는 기척이 없느냐?”

“전혀 없습니다요.”

“이상하다. 그들의 눈빛은 그냥 물러날 것 같지 않았는데……. 설마?”

선준이 가는 길을 돌아섰다. 이미 많은 길을 걸어왔다. 그가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하자 순돌이가 놀라서 물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선비님한테 또 물어볼 것이 계십니까요?”

“그 작자들이 우리를 본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옆에 있던 김 도령일지도!”

“네? 그 약한 선비님을?”

“약하니까! 그들이 무슨 배짱으로 네놈을 옆에 두고 있는 나를 치겠느냐!”

두 사람은 이미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길을 제법 뛰어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지 않았다. 그래서 더 불안해졌다. 절박한 선준의 눈에 과장이 열리는 날이라 길군데군데 서서 장사를 하는 장사꾼들이 보였다. 그들을 잡고 윤희의 인상착의를 말하면서 일일이 물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못 봤다고 하거나 봤다고 하더라도 과유들의 모양새가 워낙에 비슷하여 헷갈려하였다. 안절부절못하는 그들의 질문을 옆에서 듣던 어떤 노인장이 지나가는 말투로 중얼거렸다.

“행색은 과유가 분명한데 어찌 일산도 없이 과거를 보러 왔나 하였지요.”

선준의 눈이 그 노인장을 향해 멈추었다. 그는 불분명한 발음으로 느릿느릿 계속 중얼거렸다.

“그런데 뭘 사내가 그리 예쁘지, 다 늙은 제가 흑해서 봤습죠.”

선준이 다급하게 물었다.

“어디로 가던가요?”

“덱들이 말하는 그 선비가 아닐지도 몰러요. 제가 본 과유는 혼자가 아니었거든. 옆과 뒤에 덩치 좋은 선접꾼들이 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명이던가? 아무튼 그렇게나 따라가던걸
요.”

네 명의 선접꾼이라면 그들이 분명하다!

“어, 어디로? 그들이 가던 곳이 어디입
니까?”

“모르지요, 그건. 사람들이 각자 어디
로 가는지 척 보고 다 알면 무당하게?

부채를 잡은 선준의 두 손에 힘줄이 돋
았다. 손돌이는 옆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공중에 주먹만 휘둘렀다.

그즈음 윤희는 자신의 뒤와 옆을 조여
오는 선접꾼들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과장에서 본 놈들이었다. 누군가가 따라
오는지도 느끼지 못할만큼 넋을 잃고 걸
었던 것이 후회가 되었다. 자기 해가 완
전히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면 더 위험해진다. 윤희는
그들 사이를 뚫고 뛰어야겠다고 생각하였
다. 적당한 간격을 쟀 뒤 냅다 달렸으나
그들 틈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놈의 손에
팔이 잡히고 말았다.

“어이! 갑자기 뛰면 우리가 놀라잖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

“놓으시오!”

윤희는 길에 한두 명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으나 그들은 선접꾼들의 험악함에 놀려 못 본 척하고 가 버렸다. 선접꾼 중 한 명이 윤희의 얼굴을 유심히 보다가 말하였다.

“그러고 보니 그전까지는 사수하던 그 샌님이잖아? 낮짜이 곱상해서 익히 알고 있지.”

“대체 날 왜 잡는거요?”

“우리를 고용하신 양반께서 댁들 기분 나쁘다고 손 좀 봐 주라고 하셔서. 너 하나 만신창이가 되면 네 동료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거야.”

“내가 만신창이가 된다 하여도 그는 모를거요! 우린 모르는 사이니까!”

윤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였다. 그리고 입술도 바들바들 떨렸다. 만신창이로 만든다는 뜻이 무엇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 상태로 가다간 여자인 것이 발각될 텐데 그렇게 되면 이들이 어떨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게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그 사실 외의 다른 생각은 조금도 할 수가 없었다.

“모를 리가 없지. 내일쯤이면 소문이 빠삭하게 날텐데. 어쩌면 그놈은 당한 게 자기가 아니라서 좋다고 할걸.”

“그분을 모욕하지 마라! 너같은 놈들이 100년동안 도를 닦아도 그분의 인품에 미치지 못하니까!”

윤희가 소리를 치자 그중 한 명이 그녀 얼굴을 사정도 없이 쳤다. 딱 한 대였는데 갓이 날아가고 입 안에서 피가 터졌다. 그리고 정신이 어질하여 몽롱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았다.

“양반 새끼들의 인품 타령은 이제 역겨워. 네가 고자 같은 목소리로 그리 뻑뻑 소리 안 질러도 오른쪽 팔을 분질러 더 이상 이 바닥에서 밥 벌어먹지 못하게 해 줄 테니까 닥치고 있어. 아참, 덤으로 혀도 잘라 주라신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팔을 부러뜨리겠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는 소리는 똑똑히 들렸다. 이 팔이 없어지면 혼자 죽는 것이 아니다. 동생과 어머니도 함께 죽게 된다. 윤희는 도망치기 위해 안간힘을 써서 팔을 잡고 있는 남자의 팔뚝을 물어뜯었다.

“악! 이 새끼가!”

윤희는 땅바닥에 패대기쳐져 뒹굴었다.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이 느껴졌다. 일어서서 도망치려고 하였지만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데 선접꾼들이 공격을 멈추고 지나가던 어떤 남자를 일제히 바라보았다. 그녀도 바닥에 쓰러진 채로 눈만 떠서 그 남자를 보았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강한 턱을 가진 남자였지만 모습은 이상했다. 행색은 양반이 분명한데 갓과 옷 여기저기에 검에 베인 흔적이 있고 거기에다가 군데군데가 피에 젖어 있었다. 비단신도 한 짝만 신고 한쪽은 버선도 없이 맨발이었다. 저런 기괴한 몰골로 지나가지 않고 우뚝 서서 이쪽을 물끄러미 구경하듯 보고 있으니 선접꾼들도 폭력을 멈추고 설 수밖에 없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었다. 둘 중 한 명이 말하였다.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갈 길이나
가 보슈.”

“그러지.”

그 남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고는 그
들을 지나쳐서 갔다. 그런데 그냥 지나가
지 않았다. 마지막에 서 있던 선접꾼의
어깨에 자기 어깨를 부딪쳤다. 그러고는
웃으며 말하였다.

“이런 상놈을 봤나? 조용히 지나가는
양반의 어깨를 감히 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남자의 팔꿈
치가 맞부딪친 선접꾼의 얼굴에 작렬했
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는 또
다시 한 선접꾼의 목덜미에 맨발을 내리
꽂았다. 두 번째로 맞고 쓰러진 선접꾼을
향해 그가 싱긋이 웃으며 말하였다.

“미안하지만 네놈이 몇 대 더 맞아 줘
야겠다. 오늘 투전판에서 사기치다가 나
한테 걸린 놈과 똑 닮아서 화가 나거든.
게다가 걸린 주제에 제 패거리를 데리고
와서 칼부림까지 했어. 죄다 못 걸을 정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도로 패 줬는데도 아직까지 화가 안 풀리네.”

그가 다시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자 한놈이 소리쳤다.

“잠깐!”

그 남자의 몸짓은 보통 싸움꾼이 아니란 것을 그들도 간파하였다. 그래서 품에서 단도를 슬쩍 꺼내어 보이며 협박하였다.

“그만 하고 가던 길 가시오. 아무 상관 없는 이 선비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어리석은 짓은 말고 우리도 지체 높은 어느분의 심부름으로 하는 일시오.”

“지체 높은?”

비꼬듯 말을 내뱉은 그는 윤희에게 다가와 손으로 그녀의 턱을 쥐고는 이리저리 훑어보았다.

“지체 높은 분 취향이 남색인가? 그럴군! 이 곱상한 선비가 수청을 거절하였던 게로군. 좋아!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나도 이 선비와 상관이 있어졌네. 그러니까 네놈들을 실컷 패 줘도 되겠지?”

“무, 무슨 상관이란 말시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이 선비를 살려 준 연후에 샅으로 계간(사내끼리 성교하듯이 하는 짓)을 즐기겠단 말이다! 이런 호사품이 또 어디 있겠냐?”

그 남자는 칼 따위는 겁내지 않았다. 아니 죽음을 겁내지 않았다.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삶에 대한 애착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었다. 윤희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그는 선접꾼들을 다 해치우고 나면 그녀를 겁탈할 것처럼 말을 하였지만 혼자 도망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선접꾼들한테 던졌다. 그들은 윤희가 던지는 힘없는 돌멩이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선접꾼들도 싸움개나 한다는 놈들이다. 하지만 네 남자가 한꺼번에 공격하는데도 그 남자 한 명도 감당하기 버거운 듯 보였다. 아차, 하는 순간에 그 남자의 한쪽 팔을 단도로 베었다. 피가 튀었지만 그는 소름끼칠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싱긋 웃으며 말하였다.

“이놈들, 멀쩡한 옷을 찢어 놔? 네놈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한테 옷값도 받아야겠다!”

“이런 미친 양반을 봤나. 이미 너덜너덜한 옷이었잖아!”

“미친? 양반 모독죄도 추가다!”

그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피가 튀는 것도 상관하지 않았다. 그의 팔과 다리에 선접꾼들도 수차례 나가떨어졌다.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어느덧 선접꾼들에게 유리해져 갔다. 그는 이곳에 오기 전부터 이미 기력을 쇠진한 상태였다. 그래서였는지 차차 그가 맞는 횟수가 늘어났다.

윤희가 돌을 던지다가 멈추었다. 갑자기 선접꾼들이 일제히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등 뒤에 붉은 노을을 몰고 누군가가 나타난 듯하였다. 긴 사내 그림자 두 개가 차츰차츰 그녀의 몸 위로 올라왔다가 그녀를 넘어 땅 위에 그려졌다. 선준과 순돌이었다. 뒤에서 다가온 선준이 돌을 쥐고 있는 윤희의 손을 감싸듯 쥐면서 다른 손으로 돌만 빼내어 땅에 버렸다.

“도련님, 화내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오!”

순돌이는 돌을 지나쳐 선접꾼 무리를 향해 돌진하였다. 그들의 힘이 빠져 있기도 하였지만 순돌이의 힘이 워낙에 막강한지라 그들은 숫수무책으로 나가 뒹굴었다. 이 상황에서도 선준은 조용하고 차분하고 점잖았다. 하지만 윤희는 그의 얼굴이 봐지지가 않았다. 조용히 서서 그녀의 손을 다정하게 쥐고 있는데도 무서움이 느껴졌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한 그들은 절뚝거리며 제각각 도망을 쳤다. 그 중 단도를 든 한 놈이 윤희를 향해 달려왔다. 순간 그녀의 눈앞으로 선준의 옥빛 도포의 소매자락이 펼쳐졌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한 쪽 팔로는 그녀의 눈을 막고 다른 쪽 팔로는 부채를 펼쳐 꽃혀 들어오는 단도의 날을 부챗살 사이로 받으면서 동시에 부채를 접어 비트는 것도 보지 못했다. 또한 이 때문에 상대가 단도를 놓치면서 선준의 긴 다리에 복부를 강타당하는 그 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떤 장면도 보지를 못하였다.

눈앞에서 도포 자락을 걸어 갔을 때 윤희의 눈에 보인 것은 복부를 쥐고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져 땅에 뒹구는 놈이었고 눈 깜박하기 전까지 그의 손에 있었던 단도는 선준의 접힌 부채 사이에 덩그러니 꽂혀 있었다. 눈을 가렸던 도포의 움 직임이 전혀 없었기에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옆에 숨소리 하나 바뀌지 않고 서 있는 남자 때문에 소름이 돋았다. 왠지 인간 같지가 않다. 땅에 쓰러져 있는 놈이 기다시피 하여 도망을 쳤다. 순돌이가 잡으로 뛰어가려고 하자 선준이 입을 열었다.

“놔둬라!”

차가운 목소리였다. 그렇다고 감정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었다. 순돌이가 찡끔한 표정으로 그의 가까이에 오지 못하고 멀찌감치 섰다. 무시무시하게 생긴 순돌이도 그가 무서운 모양이다.

선준은 손으로 윤희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얼굴 반쪽이 시뻘겋게 되어 퉁퉁 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어 있고 입가에는 입 안에서 터져 나온 피가 묻어 있었다. 그의 손이 부은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입술을 더듬으며 피를 닦았다. 상처보다 그의 손이 닿은 곳이 더 화끈거렸다.

“뭐야, 계간질 상대가 따로 있었잖아? 에잇! 시간 낭비했군.”

윤희는 투덜거리는 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도와주었던 그 남자가 벽에 겨우 기대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의 곁으로 달려가서 앉으며 말하였다.

“괜찮으십니까?”

그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윤희는 그의 팔에 흐르는 피에 놀라 황급히 소매를 뒤져 손수건을 꺼냈다. 그녀가 오래 살라는 뜻으로 불로초를 수달아서 윤식에게 선물한 거였지만 뜻하지 않게 자신이 사용하게 되었다.

“생긴 것만 계집 같은 줄 알았더니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는군.”

윤희는 빈정거리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피가 흐르는 팔을 묶었다. 그는 아무 말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없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선준을 보았다. 선준이 다가와 허리를 숙여 인사하자 그는 콧방귀를 끼며 기분 나쁜 듯이 말하였다.

“생긴 것이나 표정이나 행동거지나 정말 재수 없군.”

선준은 그의 말에 표정 하나 아랑곳하지 않고 정중하고 예의 있게 말하였다.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어서 치료를 하지 않으시면.....”

“내가 알아서 해!”

그는 비틀비틀하며 가려던 길을 갔다. 선준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다시 말하였다.

“신세졌습니다. 보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가 갑자기 발걸음을 우뚝 멈추었다. 그리고 고개도 돌리지 않고 뒷모습만 보이며 말하였다.

“지금부터 내게 말 걸지 않도록 할 것. 그리고 그 재수 없는 얼굴을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게 하지 말 것. 그것이 보은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다.”

“제가 흑여 심기를 언짢게 해 드린 것이 있습니까?”

“보은!”

말을 걸지 않는 게 보은이라며 그 남자는 그렇게 모두의 손길을 뿌리치고 사라졌다.

5.

윤희는 일주일이 되도록 방 안에 숨어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을 당하였으니 세상이 두려워 밤에도 악몽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어서 용기를 내어 그때 일을 떨쳐야 하는데 이를 악물수록 그 선접꾼들의 무서운 눈과 주먹이 시커멓게 그녀를 덮쳤다. 그러니 필사 일도 전혀 하지 못해 어머니의 삶바느질로 이틀에 한 번꼴로 죽을 썬서 먹어야 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윤희의 병이 별다른 약도 없이 고비를 넘긴 거였다. 윤희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악몽에 시달리는 동안 그녀보다 정작 어머니가 더 야위어 갔고 스스로를 책망하여 고통스러워하였다.

어머니가 일감을 얻어 돌아와서 윤희 앞에 앉았다. 그리고 생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오다가 들었는데 초시 합격자 방이 붙었다더구나.”

윤희는 고개를 숙였다. 어차피 이름이 없을 거란 생각에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겨우 부기와 멍이 가라앉은 딸의 얼굴을 보다가 가져온 일감을 꺼냈다.

“흉악한 놈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가지마라. 네가 여자인 걸 안 들켰기에 망정이지…….”

“전 관찰아요. 금방 기운 차리고 다시 책방에 나가…….”

“관뉘! 그놈들이 그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으며 어찌려고 그래? 이제부터 그 근방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설마 산 입에 거미줄 치겠느냐? 정 뭇하면 내가 구걸이라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도 하러 다니마.”

윤희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어머니가 얻어 온 바느질거리를 뒤적였다. 불행하게도 그녀는 어머니를 도울 수가 없었다. 서체는 그리도 뛰어나건만 여자이면서 바느질 솜씨는 형편없었다. 만약에 어머니를 도와준답시고 건드렸다면 그나마 있는 일거리까지 끊어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윤희는 바느질거리를 하릴없이 뒤적이며 줄곧 선준을 생각하고 있었다. 합격자 명단에 김윤식은 없을지 몰라도 분명 이선준이란 이름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그도 있을 것이다.

‘그날, 기다리겠습니다.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목소리를 더욱 짙게 하였다. 그날 선준과 순돌이가 끝까지 집에 바래다주겠다는 걸 끝끝내 뿌리치고 중간까지만 배웅을 받았기에 서로의 거처도 알지 못하였다.

기다리겠다는 그의 목소리가 또다시 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렸다. 설마 기다리고 있을까 하다가 그러면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쪽으로 머리가 기울었다. 아니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까지 들었다. 윤희는 자기도 모르게 어머니의 옆에 놓인 낡은 쓰개치마를 잡았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어디 가게?”

“잠시만. 합격자 명단만 확인하고 올게요.”

윤희는 어머니가 잡기도 전에 방문 밖을 나섰다.

“윤희야, 안 돼!”

“그들이 노리는 건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면 못 알아볼 거예요.”

윤희는 쓰개치마로 얼굴을 꼭꼭 숨기고 뛰다시피 걸었다. 마음이 바빴다. 그가 자신의 명단만 확인하고 그냥 가 버렸으면 어쩌나 조습하였다. 긴 시간을 뛰었다. 그 내내 머릿속에는 공포는 없고 선준만 있었다.

예조 앞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다. 윤희는 방은 확인하지 않고 사람들 속에 있을 선준을 찾았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모습이라면 굳이 찾지 않아도 바로 눈에 들어올 텐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이름 석 자가 분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진사시와 생원시 각각의 명단 제일 앞에 있는 이선준! 비록 구체적인 그의 이름 한자는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런데 언뜻 낯익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진사시 명단 중 중간에 있는 이름, 그것은 김윤식이었다. 그리고 똑같은 이름이 생원시 명단에서도 중간쯤에 있었다. 한자 획수 하나 틀린 곳이 없었다. 윤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였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녀는 한자도 제대로 모르는 선준의 이름은 확신하여도 한자까지 똑같은 윤식의 이름은 확신할 수 없었다. 당장 예조에 들어가 사조와 사는 곳을 확인해 보아야 한다.

윤희는 급히 예조 안으로 들어가려다 말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여자 옷을 입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온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안은 윤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윤희는 못 들어가는 곳이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야 하나 고민하였지만 오고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안절부절못하는 그녀의 귀에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다. 이선준이란 이름이 오고갔기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이 몰렸다.

“이선준이란 이름이 역시 제일 앞에 있군. 바로 이 사람이 좌상 대감 댁 이 도령 아닌감. 어명을 내릴 만도 하지, 암!”

“도대체 이렇게 이름이 걸리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원…….”

좌상 대감? 이 도령?

윤희의 머리가 휘청하였다. 과장 안에서 최고의 소문이었던 그 사람이 바로 선준이었던 말인가 좌의정이라면 노론의 핵심 세력 중 한 명이다. 그리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가문이기도 하다. 윤희의 머릿속에서 어리둥절한 상황이 정리되기도 전에 예조 안에서 선준이 성큼 걸어 나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쓰개치마로 얼굴을 가리면서 몸을 돌려 섰다. 몸을 막 돌려서는 찰나 선준이 그녀의 뒷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윤희를 알아보지 못하고 옆을 지나쳐 갔다. 뒤돌아서서도 그가 보였다. 선준은 그대로 가지 않고 방이 걸린 벽에서 떨어져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았다. 그가 찾는 건 남자, 윤식이었다.

윤희의 귀에는 주위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우왕좌왕 정신없는 사람들도 눈에 보이지 않았다. 적막함의 한가운데 멀리 서 있는 선준의 모습만 보이고 느껴졌다.

그의 눈이 행복한 듯 방에 붙은 윤식의 이름을 훑고 있었다. 그가 들떠 있는 건 순전히 학문을 같이 할 벗이 반가워서였다. 서로의 발전을 도와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참 어리석고 눈치 없는 갑갑한 사내다.

선준이 갑자기 고개를 돌려 윤희를 보았다. 처음에는 남자들만 북적거리는 이곳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에 여자 혼자 있는 것이 의아해서 본 듯 하였다. 한편으로는 자꾸만 자신을 보는 여인의 눈빛을 느껴서이기도 하였다.

당황한 윤희가 등을 보이며 급히 자리를 떴다. 그런데 그가 뒤를 따라오며 말을 걸었다.

“이보십시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윤희는 더 급히 달아났지만 그의 긴 다리를 따돌릴 수는 없었다.

“한마디만 답해 주고 가십시오. 혹여 김윤식이란 도령을 아십니까?”

결국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 뒤에 선준도 멈췄다. 윤희는 대답하지 않고 우선 쓰개치마 아래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작아져서 팔목이 보이는 저고리와 짧은 머리를 땀아 묶은 새앙머리를 쓰개치마 아래에 필사적으로 감추고 얼굴도 숨겼다. 하지만 그 아래의 빛바랜 낡은 치마는 숨기지 못하였다. 낡기는 쓰개치마도 마찬가지다. 윤희는 아름답지 못한 차암이 처음으로 부끄러웠다.

“외간 남자가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법도가 아님을 알지만 모르면 모른다고
답이라도 해 주십시오.”

윤희는 목소리를 들킬까 걱정되어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다. 선준이 반갑
게 되물었다.

“정녕 김윤식을 아십니까?”

그녀의 고개가 다시 끄덕여지자마자 그
가 대뜸 물었다.

“관찰습니까?”

아니 그렇게만 묻고 답을 기다리면 어떡
하자는 건가? 뭐가 관찰은지를 이쪽에서
물어볼 수도 없는데.

“아! 김 도령의 건강을 묻는 것입니다.
원래도 좋지 못하였던 건강에 그때 다치
기까지 하여 오늘 직접 방을 보러 나오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였기에…….”

윤희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선준은
그녀가 말을 하지 않고 고갯짓으로만 맞
다 아니다를 표현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답하기 좋게 질문을 하였다.

“많이 아십니까?”

윤희의 고개가 끄덕여졌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김 도령과 가족입니까?”

또 고개가 끄덕여졌다. 선준은 예의 있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반갑게 말하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과장에서 김 도령의 도움을 많이 받은 이선준이라 합니다.”

도움을 받은 건 오히려 그녀였기에 고개를 끄덕이지도 가로젓지도 않았다.

“혹시 소저?”

이번에는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김 도령의 누님?”

이번에도 확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키가 커서 여동생보다는 누나로 생각한 모양이다.

“김 도령한테 누님이 계셨군요. 아직은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결례하였습니다. 김 도령의 누님이라면 제게도 누님입니다.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준은 꾸벅 인사하였다. 그에게도 누님이라니 그녀에게 자신보다 나이 많은 남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동생 하나 생길 판이다.

“직접 김 도령한테 병문안을 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윤희의 고개가 세차게 저어졌다. 본인이 이렇게 버젓이 바깥에 나와 있는데 집에 간다면 무슨 소동이 날지 알 수가 없다. 그는 난감한지 한동안 머뭇거리다가 호기하고 말하였다.

“아참! 예조 안에서 확인하여 보았는데 생원 진사 방에 이름 있는 김윤식은 동일 인이고 선친의 함자가 이자 영자라 하였습니다. 맞는지요?”

김이영, 아버지다! 그럴다는 건 생원시와 진사시 모두 합격하였다는 것이다. 이 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윤희는 만세를 부르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았다. 그녀가 집으로 발걸음을 떼자 그도 따라왔다. 그래서 걸음을 멈추고 그만 따라오라는 뜻으로 고개를 저었다.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윤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될 일이었다. 선준은 완강한 그녀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도리질에 자신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였다.

“제가 큰 결례를 하였습니다. 남녀가 유별한 법인데……. 언짢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윤희는 관찰다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김 도령에게 이 말씀은 꼭 전해 주십시오. 그 선접꾼 일당과 그들을 사주한 놈 모두 관아에 잡혀 들어갔으니 안심해도 된다고.”

윤희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하고 기쁜 소식을 가족들한테 빨리 말하고 싶어서 날듯이 뛰어 집으로 돌아갔다.

“네? 그, 그것이 무슨 말이오? 나에게 일거리를 줄 수 없다니?”

오랜만에 찾은 책방 주인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윤희는 머릿속을 몽땅 도려낸 듯 멍해졌다. 거벽 일거리를 위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초시를 치렀는데 앞으로 거벽은 고사하고 사수 일도 둘 수가 없다니. 주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인장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주절주절 말하였다.

“이 바닥이 워낙에 좁아 놓아서……. 도련님 때문에 선접꾼들이 감옥에 갔는데 어느 누가 같이 일하고 싶겠습니까? 벌써 소문이 째악 났습니다요.”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였습죠. 설마 도련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을깁쇼? 허나 나라의 눈을 피해 가며 일하는 이들이지 않습니다. 그들끼리 뭉쳐서 도련님과는 위험하여 안 된다는데 어쩔 수가 없구먼요. 책 팔아 봐야 얼마 안 나오고 거의가 과장 중개해서 버는 돈인데 저도 그들 말을 들어야 먹고 살지요.”

윤희는 책방 한가운데 있는 평상에 앉아 어찌지도 못하고 있었다. 초시를 통과하였으니 이제 내년엔 복시만 치르면 생원과 진사가 되어 돈벌이 좀 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안고 있었는데 희망이 무너졌다. 희망을 세우기는 힘들어도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면 끝나는구나.
그녀는 거의 실성한 듯 땅만 멍하니 보며
말하였다.

“난 돈이 필요하오. 일을 해야 돼. 이
대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죽고 말거요.”

주인장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옆에 서 있
기만 하였다. 윤희가 힘들게 정신을 차리
고 일어나며 말하였다.

“그럼 필사 일거리라도 좀 많이 챙겨
주시오.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관찰아질
지도 모르니 그건 차차…….”

“저기 필사 일도……. 저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도련님을 이쪽으로 아
예 발걸음도 못 하게 하라고…….”

윤희는 이제 휘청거릴 힘도 남아 있지
않았다. 주인장의 입장이 곤란해진다.

“그동안 신세 많았소. 시간이 지나면
한번 들러도 되겠소? 그들 기분이 나아질
지도 모르고 또 이 일을 하는 이들은 그
때그때 수시로 바뀌기도 하니까…….”

황설수설하고 있었다. 그는 안타까운지
위로한답시고 말하였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도련님, 꼭 복시를 보십시오. 듣자 하니 생원이나 진사라도 줄만 잘 달으면 작은 지방의 수령 자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과장에 좌상 대감댁 도련님과 함께 계셨다면서요?”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있었을 뿐 모르는 사이라고. 줄이란 게 그를 말하는 거라면 잘못 짚었소. 청탁이 먹히는 이도 아닐뿐더러 그는 노론이고 나는 남인이오. 소위 원수 사이라고 하지.”

윤희는 유난히 모나게 말하였다. 줄이라는 말에 그녀도 선준을 떠올렸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노론과 소론 사이만 할까요. 에구, 아무튼 파벌이 다르면 어렵긴 하겠구만요. 그래도 소문에 의하면 성상께서 노론과 소론을 견제하기 위하여 남인을 등용할지도 모른다는 말도 떠도니까 특별히 성적이 뛰어나면 지방 하급관리 자리를 청하면 어찌어찌 될지도 모릅니다요.”

“특별히 성적이 뛰어나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윤희는 기가 막혀 웃음만 나왔다. 어떤 초시는 어떻게든 통과되었지만 복시는 향시를 통과한 조선 팔도의 과유들이 한 자리에 모여 치러진다. 예전에 그리고 또 더 예전에 초시를 통과한 이들도 같이 모여든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합격을 넘어 뛰어난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건 기적에 가까웠다. 희망이 없는 자에겐 기적도 오지 않는다.

“정 그러면 성균관에 들어가는 것도 관찰을 겁니다. 거기는 먹고 자는 거 다 공짜에 푼돈이긴 하지만 시시때때로 용돈도 나눠 주고 군역도 면제해 준다 합니다. 그래서 10년 가까이 대과도 안 보고 거기서 놀고먹는 상유(성균관 유생)도 있다더라고요.”

“성균관이라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소? 생원, 진사 중에서도 걸러서 뽑는다고 하던데.”

“대과 급제보다 더 어려워도 조정에서 제대로 된 관직 하나 하려면 성균관에 가야지요.”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내가 소과를 치르고자 한 이유는 그리 큰 것을 바라서가 아니라 더 쉬운 거벽 일거릴를 위해서였소.”

“이젠 그 일이 더 어려워져 버렸는데 어쩍니까요.”

윤희는 그만 말을 끊고 가게를 나갔다. 정처 없이 걷다가 멈춰 옛 법궁 터와 동궐 사이를 보았다. 그곳에는 노론들이 살고 있는 북촌이 있었다. 길 가는 아무나 붙잡고 좌의정 댁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쉽사리 선준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서는 어쩌려고? 구걸이라도 하려고? 기껏 과장에서 몇 번 본 것이 전부인 그에게? 아니다, 그에게 무얼 바라서가 아니다. 그냥 그가 보고 싶어서다. 아무것도 없이 딱 그 하나만을 보고 싶어서다. 그를 보기 위한 핑계가 필요할 뿐인 거다. 그래서 그에게 갈 수 없다.

윤희는 길 가는 사람들에 아랑곳 않고 지나가는 바람에 슬픔에 짓이겨진 목소리를 심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이 나라에는 소론도 있고 남인도 있고 소북도 있는데 어째서 귀형은 노론인 겁니까? 아버지는 어째서 남인인 겁니까?”

윤희는 어머니 몰래 외가로 가서 그때 말한 혼처 자리를 이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임을 알고 있었다.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는 것이 효도이고 선임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그녀도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

희망은 없어도 욕심은 있었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살다 가는 이승이다.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 이 피와 살을 가진 윤희로 살아가는 것은 단 한번뿐이다. 지금의 윤희로 살면서 행복해지고 싶었다. 때문에 ‘천하의 악녀, 제 욕심만 챙기는 이기적인 여자’ 라는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행복할 수 없는 그 혼인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어쩌면 선준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쉽게 내릴 수 있는 판단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그를 만났고 그렇기에 지금의 윤희는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외가에 갈 수 없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윤식아, 미안해. 난 못 하겠어…….”

계절이 변개 갔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갔다. 겨울이 가면서 윤희는 스무 살이 되었다.

그녀는 혼기를 놓친 자신의 나이를 손꼽아 보지 않고 스물한 살이 된 선준의 나이만 손꼽아 보았다. 그동안 보지 못하였으니 그는 이미 나이 어린 과유의 존재를 잊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또한 적지 않은 나이인지라 해가 지나가기 전에 장가를 들었는지도 모른다.

윤희는 모든 것을 가슴 아래쪽에 숨겨 놓고 과거 공부만 하였다. 윤식의 차도 없는 병세와 어머니의 고생이 가끔 결심을 흔들기도 하였지만 그녀는 책에서 눈을 놓지 않았다. 밥을 지으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다듬이질을 하면서도 책을 읽었다. 뜻 모를 구절이 나오면 밤을 지새우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면서 고민하였다. 그러다가 안 되면 벽장 가득한 아버지의 책들을 뒤져 읽었다.

복시를 위해 하는 공부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의 목적은 사라졌다. 어느 정도는 희망 없는 현실로부터의 도피이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심취해 있었다. 그러면서 차츰 드러난 문제는 홀로 하는 공부의 한계였다. 모르는 것을 물어볼 상대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줄 상대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상대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줄 상대가 없다는 건 괴로운 일이었다. 예전에는 윤식이 곧잘 대화 상대가 되어 주었지만 이젠 윤희가 너무 앞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월이 되어 오랜만에 윤식의 옷을 입었다. 복시를 보기 위해서는 녹명소에 녹명을 하기 전에 조흘강을 통과하여야 했다. 「소학」과 「주자가례」를 구두로 묻고 답하는 간단한 것이긴 하였지만 그녀에게는 어색한 시험이었다. 그동안 즐기고 그녀가 해 온 것은 읽고 쓰는 것이다. 방 밖으로 글 읽는 소리가 새어 나가지 않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조심하였기에 듣고 말하는 건 어려웠다. 게다가 남자들 앞에서 남자가 되어 말해야 하는 것이 더 신경 쓰였다.

걱정과는 달리 큰 무리없이 조흘강에 합격하여 녹명소에 녹명하였다.

그리고 시권에 외타인을 받아 근처를 서성거렸다. 우연처럼 선준을 만나기를 바라서였다. 하지만 날이 저물도록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날 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자, 어깨가 툭 떨어졌다.

복시에는 진사시가 있는 당일, 예조 앞 많은 과유들 틈에 선준은 없었다. 윤희는 일소(一所)인 예조를 배정받았지만, 아마 그는 이소(二所)인 성균관을 배정받은 듯하였다. 초시와는 다르게 문 앞에서 입문관이 과유 한 명 한 명을 호명하여 문안으로 들여보냈고, 수협관이 숨기고 들어가는 책이 있는지 옷과 소지품을 일일이 검사하였다. 비록 여자인 걸 들키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였지만, 초시 때처럼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없는 건 그나마 다행이었다. 수협관은 윤희의 어리께와 도포 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맷자락을 긴 막대로 툭툭 쳐 보고 통과를 시켰다.

과장에 들어서니 입장하는 순서대로 여섯 자 간격으로 과유를 뚝뚝 떼어 앉혔다. 윤희도 배당받은 자리에 앉아 먹을 갈았다. 아직 쌀쌀한 날씨였지만, 붓을 들어 쓰기는 좋은 날씨였다. 단지 직사광선을 받으며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하는 건 고역이었다. 모든 과유가 입장을 끝내자 금란관이 과장의 문을 걸어 잠갔다. 끝끝내 선준의 모습은 없었다.

시제가 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다. 초시와는 달리 윤희는 크게 당황하지 않았다. 그리고 별 무리 없이 시권을 써 내려갔다. 그 와중에도 가슴 깊숙이에 꼬깃꼬깃 접어서 숨겨 온 예상 시문을 꺼내 보는 이가 있었고, 담 너머에 사람 머리가 훌쩍훌쩍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하며 시제를 보고는 과장 바깥에서 시문을 지어 안으로 넣어주는 거벽과 사수도 있었다.

윤희는 시험을 끝내고 과장을 나와 잠시 성균관 쪽으로 가 볼까도 생각하였지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선준이라면 더 일찍 끝냈을 것이 분명하기에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의 생원시에서도 그를 보지 못하였다.

“소과 진사시 장원, 이정무 자, 선준! 생원시 장원, 이정무 자, 선준이요!”

입격자 명단을 확인하러 예조 앞에 도착하기 전부터 고래고래 연거푸 외쳐 대는 소리를 들었다. 징을 한 번 치고 주르륵 외치고, 또 한 번 징을 치고 외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선순!

징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이름이 가슴으로 들어왔다. 보이지 않은 곳에서 그는 복시를 치렀고, 그리고 그중 장원을 하였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실로 대단한 인간이란 생각이 새삼 들었다. 다른 세계의 다른 사람 이야기 같았다. 윤희는 방을 확인하기보다는 그를 찾는 눈동자를 더 바빠 움직였다. 없었다. 초시 발표 때는 윤식을 기다려 주었지만, 몇 달이 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난 지금은 이미 그의 머리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 버린 듯하였다.

방을 확인하였다. 열심히 중간 지점에서 찾는데,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차차 뒤편으로 눈을 옮겼지만, 끝으로 갈 때까지 없었다. 떨어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크게 실망스럽지는 않았다. 어차피 입격을 하였다고 해도 이제는 써먹을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중간 지점으로 돌아와 차차 위편으로 눈을 옮겼다. 앞으로 다가갈수록, 선준의 이름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비워졌다.

그런데 김윤식이란 이름 석 자가 있었다. 그것도 진사시에서는 선준의 바로 옆인 두 번째에, 생원시에서는 여섯 번째에 있었다. 윤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옆에서 떨어졌다면 낙담하여 돌아가는 이나,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이들 모두 적지 않은 나이다. 평생을 책에만 매달려 살아온 남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뚫고 합격한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두 번째와 여섯 번째에 이름이 있다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윤희는 옆의 선준의 이름을 보았다. 바로 옆에 이름이 있으니 그도 윤식이란 이름을 보고 지난날 초시에서 보았던 얼굴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방은 아니 보고 창방하는 소리만 듣고 좋다구나 하며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녀는 자꾸만 달음박질치는 생각들을 떨쳐 내었다.

웃기만 스치는 인연은, 스치지도 아니하는 인연보다 더 부질없다.

6.

웃기만 스친 그 부질없는 인연이 윤희의 눈 속에 들어왔다. 합격자 발표가 있던 옛새 뒤, 방방례를 위해 소과에 입격한 사람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였다. 선준은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멀찌감치 서서 그를 바라보아야만 했다. 여러 달이 지나고 본 그는 더욱 사내다워져 있었다. 아마도 꾀꼬리색 앵삼이 어떤 묘술을 부려서이리라 여겨졌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윤희는 그동안 어떻게 해서든 모든 의식에 빠지려고 건강이 나쁘다는 둥, 의복이 없다는 둥 갖은 핑계를 대었다. 비록 그녀와 윤식의 얼굴을 뚜렷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이름만 아는 친척을 만날지도 모를 위험 때문이었다. 하지만 사은레나 유가행진 등의 의식은 빠지더라도, 이번의 방방례에 참석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관리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다. 건강상의 이유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없는 의복은 예조에 여분으로 비치해 둔 앵삼을 빌려 주기까지 하였다.

그녀는 오늘의 이 앵삼이 남장의 마지막이라 생각하였다. 애초에 소과까지만 목표로 하였고 대과부터는 윤식의 몫이다. 더 이상 사수와 필사 일도 하지 못하게 된 마당이라 남자를 할 일은 이제 없다. 그러니 상투를 틀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도 될 터이다. 윤희는 선준을 눈 속에 잡았다. 다음에 다시 만난다면 남자 윤식이 아닌, 여자 윤희로 다가가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싶었다. 오늘이 그 앞에 서는 마지막 윤희의 모습이고 싶었다. 어쩌면 앞으로 윤희희로서도 만나지 못할 것 같아 더욱 그의 얼굴에서 눈을 땔 수가 없었다.

“모두 줄을 맞춰 서시오!”

서리의 외침에 비로서 선준을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홀로 서성이던 윤희희의 눈동자에 닿은 듯했지만, 달라진 옷차림에 알아보지 못했는지 금세 이름을 부르는 서리에게로 옮겨갔다.

“이선준, 진사 줄의 제일 앞에 서시오!”

선준이 앞으로 가서 서리가 지정해 준 곳에 자리를 잡았다.

“박성태, 생원 줄의 제일 앞에 서시오!”

마흔 살은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앞으로 가서 선준과 마주 보고 섰다. 그리고 다음으로 호명된 윤희희는 경박하게 두근대는 심장을 꾸짖으며 선준의 옆에 나란히 섰다. 그는 잠자코 서 있기만 할 뿐 먼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인사를 건네지 않았다. 그녀는 서먹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앞에 선 사람의 발끝만 보다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저…….”

윤희와 그의 눈이 마주치려는 순간, 예조 앞에 어수선해졌다. 갑자기 왕이 보낸 선전관으로 보이는 관원이 뛰어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관리들에게로 쏠렸다. 이내 예조 안에서 방방례를 준비하고 있던 관리들뿐만 아니라 판서까지 놀란 얼굴로 뛰어나왔다. 한참 동안 선전관과 판서가 말을 주고받더니, 선전관은 급히 예조를 빠져나갔다. 그리고 서리가 높이 서서 모여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헤아려 관서에게 보고하고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방방례 장소가 변경되었으니 모두들 따라오시오!”

우왕좌왕 소란스러운 사람들을 이끌고 관리들은 예조를 나갔다. 사람들 뒤로 상품으로 내릴 어사화와 일산 등을 실은 수레가 따랐다. 갑작스런 장소 변경으로 인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해 사람들은 불안한 심경을 말로 주고받았다.

“혹시 시권을 받았습니까?”

“아니오. 오늘 백패와 같이 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합격자 발표할 때 시권은 돌려준다고 하더이다.”

“그렇소? 그런데 왜 이번은 돌려주지 않았을꼬?”

“그나저나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대로 가면 쫄인데…….”

“설마요. 쫄에서 하는 방방례는 대과 급제자들 아닙니까? 우리 같은 소과 입격자는 예조에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예조 바깥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참!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

윤희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불안하였다. 하지만 옆에서 나란히 걷고 있는 선준은 전혀 그럴지 않은 듯하였다.

“혹여 건강이 많이 나빠져 좋지 않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일이라도 당하지 않았나 걱정하였습니다.”

대뜸 던져진 그의 말이 반가운 나머지 처음에는 누구를 향해서인지 헷갈렸다. 윤희의 둥그레진 눈이 얼굴에 달자, 그는 멍쩍은 표정으로 말하였다.

“그간 궁금하였습니다.”

“저도 궁금하였습니다. 혹여 그간에 장가라도 들지 않았…….”

윤희는 갑자기 입 밖으로 나온 말에 당황하여 얼른 입을 닫았다. 남자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나누는 안부에 여자의 마음이 먼저 튀어나오다니.

선준은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아직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였는데, 장가는 가당치 않습니다. 귀공은……?”

“저도…….”

선준은 옆에서 고개 숙이고 걷고 있는 윤희를 보았다. 그동안 내내 생각나고 보고 싶었다. 비록 연약하긴 하지만 어엿한 사내를 마치 연모하는 여인을 그리워하듯 하였기에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라서 해괴하다고 생각하였다. 오늘 모인 사람들 틈에서 그녀는 한눈에 들어왔지만, 당장 달려가 말을 걸고 싶은 것을 굳이 외면한 마음도 해괴하였다. 선준은 이러한 마음을, 자신의 불찰로 인해 선접꾼들에게 다치게 했던 미안함 때문으로 풀이하었다.

“건강해 보여서 마음 놓았습니다.”

윤희는 미묘한 감정이 스며 있는 그의 미소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에게 여자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 마음을 입에서 말로 전하고 싶었다. 당신 앞의 윤식은 윤희라는 여인이라 말하고 싶었다. 그가 대술(代述)을 치른 범죄자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불쾌히 여기고 돌아서 가 버리더라도 말이다. 어차피 앞으로 만나지 못하게 될 터이니, 여자로서도 설 수 없을 터이니, 말이라도 한 번 해 보고 헤어지고 싶었다. 그녀는 선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저……, 저기…….”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도 같이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보았다.

“말씀하십시오.”

“방방례가 끝나면 다른 일이 계십니까?”

선준은 여러 약속들이 있었지만, 머릿속을 싹 지우고 냉큼 답했다.

“없습니다.”

“저……, 귀형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방방례가 끝나면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귀공께 의논코자 하는 것이 있으니.”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웃는 틈으로 관리한 명이 소리쳤다.

“빨리 걸으시오!”

둘은 다시 사람들에게 섞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걸었다. 하지만 윤희의 심장은 입을 다물지 않고 계속 조잘거리듯 소리쳤다.

예조를 나선 사람들은 관리의 인도에 따라 영문도 모른 채 걸기만 하였다. 그런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데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왕이 살고 있는 궁궐이었다.

“멈추지 말고 걸으시오!”

관리의 외침에도 사람들은 발걸음을 멈춘 상태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떤 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관리에게 말하였다.

“이보십시오. 여긴 궁궐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여기로 온 겁니까? 설명이라도 하여 주시오.”

“뭘 알아야 설명할 게 아닙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관리들의 힐책을 받은 사람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라도 된 듯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다.

“서, 설마 임금께서 친람하시려고?”

“친람이 아니라, 부정으로 입격한 시권을 친히 가려내시려고 하나 봅니다. 초시 때부터 그런 소문이 돌더니만, 기어이…

“그래서 시권을 안 돌려주었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이 말이 불쏘시개처럼 번져 사람들을 긴장으로 몰아넣었다. 당당한 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건 오직 선준뿐이었다.

한양 사대문 안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창덕궁이 위협적인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멀리 창덕궁을 나지 막하게 감싸 안은 응봉 산자락이 있었고, 이를 다시 바위 봉우리인 보현봉이 감싸 안고 있었다. 월대에 올라 돈화문을 지날 때 윤희는 고개가 꺾어져라 올려다보았다. 여기를 드나드는 임금의 키가 이리도 커서인지 문이 끝도 없이 높아만 보였다. 그들이 돈화문을 지나가기 전에 시위하는 군사들이 긴 막대 같은 몽둥이로 몸의 앞뒤와 옆을 일일이 쳐서, 숨기고 있는 무기가 없는지 확인하고 통과시켰다. 돈화문 안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제 임금이 있는 궁궐에 들어왔다는 위압감으로 인해 숨도 제대로 내쉬지 못하였다.

윤희가 보기에 궁궐 안에는 웅장하고 기품 있는 것들만 모아 둔 것 같았다. 발아래에 밟히는 박석들도 그렇고, 한낱 회화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나무조차도 그러했다. 녀를 잃고 걷는 그녀의 팔을 선준이 갑자기 잡아당겼다. 그래서 얼떨결에 그의 품에 안기듯 부딪쳤다.

“가운데는 어도이니 발을 올리면 아니 됩니다.”

윤희는 재빨리 발아래를 보았다. 넓은 길의 가운데는 양옆의 박석으로 된 길과는 다른 돌판으로 돋워 낸 길이 있었다. 하마터면 임금만이 디딜 수 있는 그곳을 밟을 뻔했던 것이다. 깜짝 놀란 사람들은 일제히 길옆에 붙다시피 하여 걸었다.

금천이라 불리는 개울이 졸졸졸 평화롭게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위를 가로지르는 금천교를 지났다. 그 난간 네 귀퉁이에는 돌집승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하듯 노려보고 있었다. 윤희는 그것들이 사내들 틈에 웬 계집이 섞여 있느냐며 꾸짖는 것만 같아 오금이 저렸다. 금천교를 지나서도 한참 동안 그것들의 눈이 따라오는 공포를 느꼈다.

사람들의 입과 입으로 전해들은 궁궐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황금으로 뒤덮여 있고, 심지어 나무도 황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아무리 가도 누런 금빛은 나타나지 않아서 이상한 기분도 들었다. 금천교라 하여 다리와 심지어 흐르는 물도 황금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하였다. 소문으로만 들었던 신문고가 매달린 진선문을 지날 때도 또 한 차례 몸 검사를 받았다. 그리고 그 뒤로도 몇 번의 검사를 받고 나서야 위용으로 우뚝 솟은 인정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인정전 내부의 모습을 볼 겨를이 없었다. 곧 임금께서 납실 거라는 관리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이 분주했기 때문이었다. 살펴보지 않아도 적어도 황금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만은 알 것 같았다. 관리들은 왕이 불식간에 소과 입격자들을 쫓아 불러들였기에 뭘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느라 바빴다. 그들은 우선 불러온 사람들을 진사 줄과 생원 줄로 나눠서 두 줄씩 세웠다. 관리는 윤희의 자리를 선준과 나란히 하여 제일 앞에 두려고 하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고, 그녀는 한사코 물러나 선준의 뒤편에 몸을 숨기고 서려고 하여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결국 관리의 조급한 신경질을 받고서야 제일 앞에 서게 되었다.

줄을 정돈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윤희는 얼이 빠진 상태로 있었다.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임금의 용상과 그녀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었다. 사람들의 중간쯤에 파묻혀 있으면 눈에 덜 띄련만, 그녀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건 겨우 소맷자락뿐이었다. 그나마 용상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것이 다행이라 하겠다.

임금께 네 번의 절을 올리는 것을 연습하고, 하문에 답하는 방식에 대해 주의를 다 받기도 전에 바깥에서 지옥의 소리가 들려왔다.

“주상 전하 납시오!”

소란스럽던 인정전 내부가 순식간에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윤희가 발작이라도 하듯 화들짝 놀라자, 선준이 어루만지듯 따뜻한 눈길을 보내왔다. 그는 왕이라 하여도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마냥 당당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수 있겠지만 그녀는 처지가 달랐다. 여자인 것을 속이고 윤식의 호패를 빌려 대술을 치른 죄인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전까지는 범법 행위인 사수까지 하였던 적이 있다. 세상을 꺾어 본다는 왕이 한눈에 여자인 것을 알아차린다면, 그녀뿐만이 아니라 동생과 어머니까지 극형을 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몸을 숨겨야만 했다.

윤희가 다른 방도를 찾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왕이 왔다! 바닥만 보고 있어도 그 느낌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거대한 공기덩어리 같은 것이 용상에 앉는 느낌도 와 달았다. 그녀는 허리를 숙이고 팔을 앞으로 하여 모아 쥐고 최대한 얼굴을 가렸다. 호령에 맞춰 절을 네 번 하는 동안 윤희의 팔과 다리는 눈에 떨 정도로 후들후들 떨렸다. 예조 정랑이 나눠 주는 소과 합격 증서인 백패를 잡는 손도 바들바들 떨렸다.

모든 사람이 백패를 내려 받고 나자, 인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정전 안을 낭랑하게 메우는 어성이 들렸다.

“자고로 소과 방방례는 예조에서 치르지만, 내가 오늘 만기를 짓혀 두면서까지 특별히 그대들을 이곳으로 오라 한 이유는 몇 가지 듣고자 함이다.”

왕의 말이 끝나자 시권 몇 개를 받쳐 든 내관이 왕의 옆에 섰다. 왕의 손이 시권 두 개를 잡아 차례로 겹쳐 펼쳤다.

“이선준은 앞으로 나오라.”

선준은 호명되자마자 망설임 없이 곧장 앞으로 나가서 예조 정랑이 가리키는 곳에 섰다.

“너를 기다린 지 오래되었다. 결국 만족스런 시권으로 나에게 왔구나. 지금 나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왕의 목소리는 사뭇 상냥한 기운이 있었다.

“황공하옵니다.”

“네 재주는 익히 알았으니 이제 그만 출사함이 어떠하겠느냐?”

대과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관직을 내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주겠다는 뜻이었다. 다른 이들 같으면 감
읍하며 냉큼 받아들일 윤언이지만, 선준
은 목소리 하나 변하지 않고 단정하게 말
하였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아직 미진하기
이를 데 없사옵니다. 하여 좀더 학문을
뒹고 싶사옵니다.”

“자꾸만 미루는 까닭을 알 수가 없구
나. 관직이 싫은 것이냐. 내 곁이 싫은
것이냐?”

“천부당만부당한 윤음이시옵니다! 천신
이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자 하는
이유는 관직에 나아가 주상 전하를 뒹시
옵기에 현재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생원 시권에 적힌 글을 묻겠다. 『논
어』에서 양화가 공자에게 이르기를 ‘홀
륭한 보배를 품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버
려두는 것을 인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니, 공자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하였고, 양화가 ‘종사하기를 좋아하
면서 자주 때를 놓치는 것을 지知라 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수 있는가?’ 하고 이르니, 공자는 ‘그렇다고 할 수 없다.’ 하였고, 양화가 마지막으로 이르기를 ‘해와 달이 흘러가니, 세월은 나를 위하여 기다려 주지 않는다.’ 하니, 공자가 답하길 ‘알았다. 나는 장차 벼슬을 할 것이다.’ 하였다. 너는 이 부분을 정확히 써 놓았다. 이에 대해 네가 시권에 해석해 놓은 것을 암송해 보라.”

윤희는 얼이 빠진 채였지만, 선준이 난처한 상황에 봉착했음은 느낄 수 있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시권을 작성한 이가 거벽과 사수 등을 통한 대수리 아닌 선준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 같으나, 실상은 달았다. 양화는 이환자의 가신이었지만, 일찍이 그를 가두고 나라의 정사를 전횡한 자였다. 하여 공자는 양화가 불러도 가지 않았다. 어찌 보면 관직을 내리려는 왕과 그것을 거절하는 선준과 비슷한 모양새가 아닌가. 그러니 말을 잘못할 시엔 주상을 양화와 동격으로 놓는 불경을 저지를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금의 동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요도 하지 않고 대답하였다.

“보배를 품고서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은 도덕을 간직하고서도 나라의 어지러움을 구원하지 않는 것이고, 대를 놓친다는 것은 일의 기회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장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만 꼭 기필하지는 않…….”

“그만 하고 네 생각을 말해 보라. 너의 도덕으로 나라를 구원하지 않고, 기회를 뿌리치는 것이 공자와 같은 이유냐?”

“양화 같은 자가 어찌 주상 전하께 미칠 수 있으며, 천신을 어찌 공자에 비교할 수 있겠사옵니까? 그러니 감히 공자와 같은 이유가 될 수 없읍니다.”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 깊은 내면에서는 둘만의 대화가 이뤄지는 듯하였다. 왕이 먼저 혼잣말처럼 침묵을 깼다.

“좌의정은 과분한 아들을 두었군. 반악(潘岳)이 다시 환생하였대도 너만하겠는가?”

왕은 선준의 시권을 내려 두고, 이어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다른 시권 두 개를 펼쳐 잡고 말하였다.

“김윤식은 앞으로 나오라.”

윤희는 잠자코 서서 윤식이란 사람이 앞으로 나가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얼이 빠진 채로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호명한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할 만큼이었다.

“김윤식기 누구냐? 어서 앞으로 나오지 못할까!”

그녀는 자신을 호명한 것임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천둥과 번개가 요란하다가 이내 하얀 재만 부스스 흩어졌다. 실성한 사람인 양 선준의 옆에 가서 섰다. 하지만 자신의 발로 걸어서 나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했다. 윤희의 넋을 더 빼앗는 왕의 말이 들렸다.

“김윤식은 잠시 고개를 들어 보라.”

이대로 미적거리다간 여자인 것이 들통날 가능성이 더 많아진다. 그 생각 하나만으로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예의에 어긋날 정도로 번쩍 든 탓에 용상에 낮아 내려다보고 있던 왕과 정면으로 눈이 마주쳤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윤희의 눈이 둥그레졌다. 왕이 젊었다. 그녀가 이제껏 상상해 왔던 임금의 모습은 얼굴에 주름도 있고, 허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산신령 같은 거였다. 지금 왕좌에 있는 임금의 나이가 서른 즈음이란 것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그런 상상 이외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눈앞의 왕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새까만 눈썹에 거뭇하게 조금 자란 수염, 야윈 듯 한 볼을 지닌 ‘사람’ 이었다.

윤희가 놀란 것보다 더 크게 놀란 이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왕이었다. 고개를 든 소과 입격자의 외모가 너무도 옛되어서였다. 윤희는 왕의 놀란 눈을 보고 혹시 여자인 것을 들켰나 싶어 고개를 푹 숙이고 소매로 얼굴을 가렸다. 손에 잡힌 백패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잠깐! 김윤식이라 했느냐? 다시 고개를 들어 보라.”

윤희는 고개를 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을 가린 소매도 내리지 않았다.

“나이가 어찌 되느냐?”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여, 여, 여, 열아……흡 되었사옵니
다.”

“열아흡? 그토록 어린 나이에 진사시와
생원시에 모두 입격을 하다니, 이선준과
더불어 나의 기쁨이 아닐 수 없구나. 이
번 식년소과는 이선준 하나만으로도 충분
하다 여겼더니만…….”

왕은 윤희의 시권 두 개를 번갈아 다시
읽고는 더욱 환해진 얼굴로 말하였다.

“진정 열아흡이란 말이냐?”

“그, 그, 그러하……옵니다.”

왕은 윤희가 유난히 바들바들 떨면서 말
을 더듬는 것을 나이 어린 티를 내는 거
라고만 생각하고, 기특한 얼굴을 더 보고
자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고개를 들어 보라.
어명이다!”

어명! 이 말로 인해 멍해졌다.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심정으로 터벅터벅 걸어
용상에 오르는 계단 바로 앞에 섰다. 왕
이 가까워졌다. 윤희는 더 가까이 보고자
몸을 앞으로 내민 왕 때문에 다가가 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거리보다 더 가까운 것처럼 느껴졌다.

“열아홉? 열아홉이란 말이냐? 하하하. 이런 시권이 열아홉의 것이란 말이지?”

연거푸 나이를 확인하는 왕은 훌륭한 인재를 발견한 기쁨이 역력하였다. 나이만으로도 이러한데 여자임을 알게 된다면 기함할 듯하였다.

“너의 시문이 염체(艷體)라 생각하였더니만, 외모는 더 그러하구나.”

“화, 화, 황송하……옵니다.”

“원래 그리 말을 더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앞이라 그러한 것이냐?”

“주, 주, 주상 전하의 안전이라 그, 그러……하옵니다.”

“그렇다면 앞에 내가 없다 여기고, 진사 시권에 네가 적은 글을 한번 말해 보라.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

시권의 주인이 눈앞에 있는 새파랗게 어린놈의 것이 맞는지 시험하려는 것임을 알 것 같았다. 윤희는 조금 더듬긴 하였지만, 얼굴을 보이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하게 암송을 하였다.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았다. 게다가 풀이도 곁들였다. 귀를 기울여 듣던 왕이 만족스런 표정으로 말을 잘랐다.

“그만하면 되었다. 물러나 이선준의 옆에 서 있도록 하라.”

“네.”

윤희는 후들거리는 발을 질질 끌다시피 뒷걸음질하여 선준의 옆에 섰다.

“박성태는 앞으로 나오라.”

왕은 불러 나온 이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였다. 이후로도 네 명을 더 불러내어 같은 질문을 하였다. 소과 입학자 수는 생원과 진사를 합하여 도합 200명이 되지 않았다. 그 중 선준을 좌우로 하여 나란히 선 이들은 모두 일곱 명이었다. 이들은 선준과 윤희처럼 진사시와 생원시 모두 합격한 경우거나, 성적이 상위권에 있었다. 왕은 질문을 모두 마치고 옆에 늘어서 신하들 쪽을 보며 말하였다.

“성균관 대사성에게 명하노라. 지금 성균관은 대과에 급제한 이들로 인하여 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원이 제법 있을 것이니, 새로 신진을 선출할 시에 여기 앞의 입격자들을 우선으로 하라.”

북은 관복을 입은 수염 허연 신하가 허리를 숙이며 말하였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지금 성균관은 궐원도 몇 되지 않을뿐더러 오래전부터 들어올 순서를 기다린 이가 많사옵니다.”

“난 이 입격자들을 우선으로 하라 명하였다!”

“네! 분부 받자와 거행하겠습니다.”

윤희가 이 뜻을 헤아릴 시간도 주지 않고 왕은 말을 이었다.

“특히 이선준과 임윤식은 성균과에서 거관수학하길 바라노라.”

윤희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거관수학! 성균과에서 남자들과 기숙 생활을 하며 학문을 익히려 뜻이 아닌가! 당황한 나머지 누구 앞인지조차 망각하고 소리치고 말았다.

“아니 되옵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윤희의 불경에 왕은 물론이고 인정전 안의 모든 대신들이 놀랐다. 그중 그녀의 무례함을 탓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왕은 인자한 얼굴로 물었다.

“나에게 급히 하고픈 말이 있는 듯하구나. 말해 보아라.”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천신은 어려서부터 한호한 데다가 속환까지 있사옵니다. 하여 서당과 사부학당도 가지 못하고 홀로 수학하였사옵니다. 주상 전하의 성은은 망극하오나, 받들고 싶어도 그리 하여선 아니 될 듯하옵니다.”

“마음이 급해서인가, 이제 말을 더듬지 않는구나? 한데 한호한 데다가 속환까지 있는 어린 네가 이런 시권을 썼으니 더 기특하고 탐이 난다. 이를 어찌면 좋겠는가?”

이때 이제까지 아무 미동 없이 서 있던 선준이 입을 열었다.

“주상 전하, 천신이 누견을 아뢴 수 있도록 윤희하여 주시옵소서.”

윤희는 옆의 선졸을 보았다. 어찌면 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것만 같았다. 그래서 도와 달라며 애처로운 눈빛으로 그를 뚫어지게 보았다.

“말해 보라.”

“이번 소과에서 비록 복시에서는 김윤식을 만나지 못하였으나, 초시에서는 두 번 다 함께 앉아 과거를 보았사옵니다. 그때 천신은 참으로 놀랐사옵니다. 뛰어난 필체를 눈 깜박할 사이에 써 내려가는 김윤식의 솜씨가 실로 귀신과도 같았기 때문이옵니다.”

“호오, 네가 놀랄 정도의 솜씨란 말인가?”

왕은 다시 한 번 윤희의 시권을 꺼내 필체를 만족스럽게 음미하였고, 선준은 계속 말을 하였다.

“그때도 김윤식의 건강은 좋지 못하였사옵니다. 이런 인재를 주상 전하께오서 건사하지 못한다면 이는 나라의 슬픔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천신이 듣기로 성균관 안에 약방이 있다 들었사옵니다. 김윤식은 한호하여 비싼 약제를 제때 쓰지 못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하니, 자칫 나라의 인재를 잃을까 저어되
옵니다. 차라리 성균관의 동서재(東書齋)
-성균관 유생들의 기숙사. 청재-에 거관
수학도록 하여 그곳의 약방에서 숙환을
다스리게 함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

밀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윤희에게
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그가 은
인인지 원수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그
의 말은 그녀를 꼼짝 못하게 울아매는 것
이었지만, 왕에게는 좋은 제안이었다.

“성균관 대사성에게 묻겠다. 요즈음 성
균관의 약방은 어떠한가?”

“혜민서에서 경균관 약방 전담으로 파
견해 준 의원이 상주 중이긴 하나, 비싼
약제는 갖다 놓질 아니하고, 그나마 있는
약제들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옵니다.”

대사성의 말대로라면 성균관 약방이 별
효력이 없으니 그녀에게는 핑계가 가능하
였다.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벗어나는가
싶었지만 하해와도 같은 왕의 배려가 이
를 막았다.

“김윤식은 걱정하지 말라. 내 속히 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민서에 일러 이를 고치도록 하마. 일반 백성이 혜민서에서 치료받으려면 돈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성균관의 약방은 상유들을 무상으로 치료하니 가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니라. 허니 너는 학문에만 전념하여 하루라도 빨리 대과에 급제해 나에게로 오라. 내 너의 미려한 용모를 기억하고 이겠노라.”

시커먼 피가 등줄기를 거쳐 머리 위로 솟구쳤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다. 그런 만큼 윤희는 절망에 빠졌다.

눈치 없이 왕을 도운 선준이 잘되었다는 듯 축하의 미소를 보내왔다. 그녀도 덩달아 미소를 보이긴 하였지만 육체와는 달리 이미 정신은 기절한 상태였다.

소과에 입격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성균관, 그중 동서재에서 거관수학한다는 것은 대과에 급제하기만큼이나 하늘의 별따기다. 그럴기에 그녀가 진짜 윤희이었다면 가문의 영광이요, 높은 성은을 입은 것이겠지만, 윤희이기에 멸문지화의 위기가 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성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균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어명을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왕이 내린 은혜까지 저버리는 짓이다.

어쩌다 한 번씩 남장을 하는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남자들 틈에 섞여 매일 부대끼면 여자임이 쉽게 발각이 날 터이다. 만의 하나로 들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과를 치르는 건 더 큰일이다. 왕이 말한 용모를 기억하겠다는 말은, 윤희란 존재는 소멸케 하고, 그녀로 하여금 영원히 윤희란으로 살게끔 하는 위험을 의미했다.

이러한 윤희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소과 입격자들은 하나같이 그녀를 부러워했고, 간혹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이들도 있었다.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이는 오직 선준뿐이었다. 선준이 누견이랍시고 아뢰지 않았다면 지금의 시간이 지난 뒤 그의 앞에 여자로 설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창덕궁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을 때부터 이미 그러한 꿈은 망상이 되어 버렸는지도.

각자 자기 자리로 돌아와 섰다. 그 뒤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도 연이어 불러 나간 이들은 왕으로부터 시권에 적힌 내용을 시험받았다. 그중 불법으로 시험 친 것이 적발되어 끌려 나가는 이들도 속출했다.

이러한 소란 한가운데 서 있던 윤희는 사람들의 소리가 희미한 듯 요란하게만 느껴졌다. 오로지 선준의 모습만이 뚜렷하였지만, 희미한 사람들 틈으로 그 뚜렷함은 멀게만 느껴졌다.

“이를 어찌할꼬, 이를 어찌. 이 낭패를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며칠 동안 되풀이되는 어머니의 한탄하는 소리가 윤희의 가슴을 짓눌렀다. 어머니는 앉아서 한탄하다가 누워서도 끄끙 앓기를 되풀이하였다. 높은 성적으로 합격한 것을 좋아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그 성적이 원망스러웠다. 적당히 중간 정도였다더라면 이런 화가 닥치지 않았을 지라 생각하니 더 기가 막혔다.

그렇다고 윤희의 실력을 탓할 수도 없었다. 딸의 얼굴에서 핏기를 구경한 지도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알아누운 건 윤식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달리 입술을 깨물고 신음 소리를 내뱉지 않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기고 보이지 않는 눈물만 삼켰다.

윤희는 벽에 기대앉은 어머니 옆에 웅크리고 앉아 친척들이 보내온 쌀과 옷감 등을 보았다. 소과에 입격한 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눈에 든 것까지 소문이 난 모양이다. 남인 아비라 무시하고, 노론 어미라 멸시하던 그들도 왕의 총애 아래서는 당파란 것이 무엇인지도 잊어버린 듯하였다.

그녀는 이제까지의 천대는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이 문제였음을 알 것 같았다. 단지 그들은 행여 먹을 것을 달라고 손 내밀까 봐 당파를 핑계 삼았을 뿐이다. 또다시 어머니의 한탄이 이어졌다.

“어쩌나. 우리 윤희. 우리 윤식이. 내가 죽는 건 관찰지만…….”

“그만 하세요. 아직 세상이 끝난 건 아니니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럼 어떡할 건데? 야반도주 외에 무슨 방법이 남았다고.”

“제가……. 성균관에 들어가는 방법도 남아 있어요.”

어머니는 이제 한숨을 내쉴 힘도 남아 있지 않은 듯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말하였다.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그건 안 된다. 남녀가 유별한 법인데, 큰일 날 일이야. 차라리 산속에 숨어 사는 게 나야.”

윤희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간곡하게 말하였다.

“야반도주하여 산속에 숨어 산다는 것은 조선의 백성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니, 나라로부터 흉년일 때 구휼을 받을 수도 없고, 도적 떼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도 없어요. 게다가 약제도 살 수 없는 곳에서 윤식이는 어떻게 하고요? 산속에 사는 것보다 성균과에서 사는 편이 백번 나아요.”

어머니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이제껏 제가 여자인 걸 한 번도 들키지 않았잖아요.”

“가끔씩 남장하여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았다고, 성균관에 들어가서도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다, 들키는 건 시간문제야. 우선 수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매달 있는 월경은 또 어떻게 숨길 거야? 이번에 성상께서 스물다섯 살이 되도록 혼인을 하지 않은 백성은 없게 하라는 어명을 내리셨다 하여, 한성부에서 수시로 나와서 수무 살인 널 왜 여태 혼인시키지 않느냐며 미리부터 들볶는데, 그 눈은 또 어떻게 피해갈 거냐? 네가 여자인 게 발각이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야. 살아 있는 우리 목숨뿐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네 아버지의 목숨은 한 번 더 앓게 될 거야.”

윤희는 이미 성균관에 들어가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다. 산속으로 야반도주 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은 어머니의 억지일 뿐이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머니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가 버릴 수는 없었다. 이해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부분은 숨기고, 긍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 말해야 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위해 차근차근 설복에 나섰다.

먼저, 예전에 기생도 그녀를 보고 남자로 속은 적이 있던 것을 말하며, 매일 남자만 상대하는 그런 여인도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가망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수영에 관한 문제도 요즈음 젊은 남자들은 하얀 얼굴을 위해 분세수는 물론이고, 나중에 짙은 수영을 만들기 위해 면도칼로 수영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깔면서, 스물서너 살이 되면 의심을 받겠지만 열아홉이면 이것도 그러려니 할 거라 안심시켰다.

적어도 스물세 살까지는 반드시 급제하겠노라 큰소리도 쳤다. 그리고 매달 있는 월경은 함께 사는 어머니와 윤식도 눈치 채지 못하게 넘기지 않았냐며 충분히 숨길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덤으로 그동안 등골이 휘던 윤식의 군역도 면제받을 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있다고 부추겼다. 여기까지는 어머니도 어느 정도는 넘어 왔다.

문제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성균관 안에 있는 윤희는 어찌하더라도, 남아 있는 어머니와 윤식이 한성부 관원들과 이웃들, 그리고 갑자기 왕래를 시작하게 된 친척들의 눈을 어떻게 따돌리느냐는 점이었다. 윤희에게 q아도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먼저 입에 담을 수는 없었다. 고개 숙인 그녀를 보고 있던 윤식이 힘든 몸을 일으켜, 이불 더미에 기대 앉았다.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누이의 머릿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양 희미한 미소와 더불어 말하였다.

“누님, 제가 여장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놀란 눈과 윤희의 미안한 눈이 그에게로 쏠렸다.

“제가 누님이 되겠습니다.”

“윤식아, 네가 비록 아파서 누워 있는 몸이긴 하지만, 어엿한 사내놈인데 어찌 계집의 옷을…….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딸은 아들이 되고, 아들은 딸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된단 말이냐!”

울먹이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윤식이 말하였다.

“누님이 남장을 하는 거에 비하면 쉬운 일입니다. 누님은 쉬이 하는데 사내인 제가 고작 그거 하나 못 해서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전 아프다며 누워만 있으면 됩니다. 아픈 사람을 굳이 보겠다 하지 않을 터이고, 아파서 혼인 못 하는데 한 성부에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아픈 사람은 윤식이 아니라 윤희가 되는 거지요.”

윤식은 누이가 성균관에 들어가려는 것이 왕의 어명 때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움에 있어서 자신보다 훨씬 열심이었고, 뛰어났던 누이었다. 그런데 요사이 그녀는 무서울 정도로 공부에 집중하였다. 지식에 대한 갈망과 배움에 대한 열의가 그녀의 마음을 성균관에 기울게 하고 있는 듯하였다. 어찌 보면 중구난방으로 해 오던 공부를 처음으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그동안 궁금해 하던 많은 것을 질문하고 토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벗조차 되어 주지 못한 자신에 비하면 훨씬 뛰어난 글벗이 그녀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것이 누이의 마음을 성균관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원인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이가 원하는 대로 성균관으로 보내 주고 싶었다.

윤희는 동생 앞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을 윤식이 더 껍잡았다.

“널 이런 일에 끌어들여서 미안해.”

“제가 더 죄송하죠. 일이 이렇게 되기까지 첫 시발점은 저로 인한 거였으니까요.”

“나, 열심히 공부해서 하루라도 빨리 급제를 할게.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모르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관직을 주상 전하께 청해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어차피 우리같이 힘없는 가문은 조정으로 들어가기는 힘들고, 먼 지방의 한직으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만 돈대. 그러면 넌 윤식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대술을 쳐 줄 사람을 공자와 누님 둘 중에 선택하라 한다면, 전 기꺼이 누님을 택할 겁니다. 분명 빨리 급제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윤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도 안심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윤희는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얼른 옆방으로 건너가 남장을 하고 밖으로 나갔다.

입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더욱 남자다워져야 한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 선비로 보이는 사내들의 행동과 말투를 유심히 보며 공부하거나 따라서 흥내 내며 연습하였다.

제 2부.

신방례 (新榜禮)

1.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멀리 성균관의 모습이 윤희의 눈에 들어왔다. 정문인 신삼문은 왼쪽 문 하나를 제외하고는 굳게 닫힌 채로 있었다. 그동안 몇 번 와 봤던 곳이지만 오늘은 사뭇 다르게 보였다. 이제부터 밤낮없이 남자인 채로 지내야 하는 곳이다. 성균관을 에워싸고 흐르는 반수라고 불리는 인공 개천을 넘어가면 모든 일은 시작된다. 두려움이 왈칵 올라왔다. 두려움에 밀려 미적대는 다리가 반수 위를 가르는 돌다리 반수교로 더디게 돌아섰다. 그녀는 다리 아래의 개천에 비친 하늘을 보며 간청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들키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아직 성균관 안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윤희에게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예쁜 선비님! 그간 안녕하셨습니다니까?”

큰 덩치에 여전히 도깨비 같은 얼굴의 순돌이었다. 그는 성균관 옆 담장 너머에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서 나오고 있었다. 윤희는 그의 뒤에 없는 선준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반가워, 환한 미소로 말하였다.

“순돌이구나. 오랜만이다.”

“선비님께선 어째 여전히 고우십니까요. 앗, 제 입이 경박스럽게 또 예의 없이…….”

“괜찮다. 요즘은 그 말도 칭찬이라 하더구나.”

순돌이는 그녀가 두 손으로 힘들게 들고 온 고리짝과 서책 꾸러미를 한손으로 가볍게 들고는 신삼문이 아닌 성균관 옆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이제껏 미적대고 있던 걸 잊고 얼떨결에 그를 따라 들어가며, 자신의 얼굴보다 더 큰 그의 주먹을 보았다. 무거웠던 짐이 그에게 킁털처럼 가벼운 듯 보였다. 과연 저런 힘 차이를 속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이 진사께서는?”

“이 진사……? 아, 우리 도련님! 벌써 오셨습죠. 짐꾼으로 따라왔는데, 안 돌아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가고 버틴다며 호되게 내침을 당해 지금 가던 참이었습니다요. 비적거리길 잘했네요. 안 그랬으면 이렇게 선비님도 못 보었을 텐데요.”

순돌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우람한 어깨를 힘없이 늘어뜨렸다.

“왜 그러느냐, 순돌아?”

그가 큰 몸을 웅크리고 앉아 울먹이며 말하였다.

“전 도련님 곁에 있고 싶은데 절대 안 된다고 하십니다요. 동서재에 소속된 관노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노비는 옆에 둘 수 없다 하시며……. 전 이제 어떡합니까?”

윤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떡하다니? 뭘? 그냥 자택에 돌아가면 되질 않느냐.”

“이제 자에는 도련님이 아니 계시질 않습니다니까! 제가 무슨 낙으로 돌아갑니까요.”

그가 갑자기 얼굴을 들어 그녀에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말하였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선비님이 도련님께 절 옆에 두라고 말씀 좀 해서 설득시켜 주실 수 없습니까? 전 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래. 오죽하면 주인어르신도 도련님을 무서워하시겠습니까요.”

순돌이를 몰랐다면 애처로운 눈빛이 아니라 험박하는 눈빛으로 보였을 것이다. 윤희는 빙긋이 웃으며 그의 옆에 작은 몸을 쫓그리고 앉아 소곤거렸다.

“몇 번 몬 적 없는 사이에 이런 말하긴 그렇다만, 나도 네 주인이 무섭단다. 그 분이 옳지 않다고 하시면 옳은 것이 아니겠지.”

순돌이는 더욱 풀이 죽었다. 그렇게까지 선준의 옆에 있고 싶은 걸까? 덩치와 달리 귀여운 어린애를 상대하고 있는 것 같았다. 윤희는 그를 놀리듯 우스개처럼 말하였다.

“무서운 사람 곁에 왜 있으려는 것이냐?”

“세상에서 제일 무섭긴 하지만, 또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니까요.”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아랫사람을 보면 윗사람도 알 수 있다더니, 선준이란 사람의 인품이 느껴졌다. 순돌이는 풀 죽은 마음을 떨쳐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나저나 선비님도 대단하십니다요.”

윤희도 따라 일어서며 되물었다.

“내가 왜?”

“떡하니 합격을 하셨잖아요. 전 사실 조금 의심했습지요.”

“의심이라니?”

“여자가 아닐까 하고요.”

윤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하지만 여유 있게 웃으며 연기를 하였다.

“워낙 자주 듣는 말이라 놀랍지도 않구나.”

“아, 아닙니다요. 제가 또 말실수를... 하지만 합격한 것을 보고 진짜 사나이구나 싶었습니다. 계집들이 무슨 글을 알겠습니까요. 남자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척 볼기 힘들죠.”

“하하하, 맞는 말이다. 계집들의 머리로 글을 읽는다는 게 어불성설이지, 암!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

윤희는 이런 식으로 속여 넘길 수 있다는 사실에 선입견이란 것도 고맙게 여겨졌다. 여자의 머리도 성명(性命)이 무엇인지, 이기(理氣)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인성과 물성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 궁금해한다는 것을 사내들은 미처 모르니 다행이 아닐 수가 없다.

임금의 가마가 내려서는 하련대가 높게 돌워져 있는 곳을 지나쳤다. 윤희는 순돌이가 가는 대로 성균관 동쪽 건물들을 따라 계속 갔다. 동삼문을 지나쳐, 여러 문을 따라가니 커다란 전향문이 보였다. 그 문은 활짝 열려 있었는데 순돌이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대성전과 명륜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뒷문으로 명륜당의 동쪽 편에서 있는 동재로 들어온 것이었다. 거기엔 좁고 긴 뜰과 단정하게 줄지어 선 방문들, 긴 마루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마루 아래에는 각 방문당 하나씩 섬돌이 놓여 있었고, 이 모든 동재를 낮은 월대가 이고 있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도련님!”

순돌이가 열려 있는 방문 중의 한 곳으로 달려가자, 그 곳에서 선준이 고개를 내밀며 말하였다.

“돌아가라 일렀거늘, 어찌하여 아직...
...”

그는 순돌이 뒤에 따라오는 윤희를 발견하고는 말을 멈추고 환한 미소를 보였다. 선준은 옥색의 천에 목과 소매 등에 검은 테두리를 두른 행의(行衣)를 입고, 머리에는 위쪽 양옆에 처마 모양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는 유건을 쓰고 있었다. 그녀가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였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간 안녕하십니까?”

선준도 방에서 나와 섬돌 위에 벗어 둔 신발을 신고, 뜰로 내려서서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잖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쪽문으로 들어오십니까?”

선준의 말에 순돌이가 깜짝 놀라며 말하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였다.

“어이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쪽으로……. 선비님은 신삼문을 들어오셔도 되는데.”

“괜찮다. 덕분에 가까운 문으로 들어왔는걸. 다음부터 그리 다니면 돼.”

순돌이는 월대 위로 올라가 마루에 짐을 올렸다. 두 사람도 올라가 마루에 걸터앉았다 윤희는 동재를 이리저리 살피면서 말하였다.

“오긴 왔는데, 어떤 방에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면식이 있는 이들과 한망에서 동거를 합니다. 혹여 아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네? 하, 한방을 쓰다니요? 각자 방 하나씩 쓰는 게 아니었습니까?”

윤희의 머릿속이 휘청하였다. 그녀는 이제껏 방은 따로 사용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속을 알지 못하는 선준은 부드러운 어조로 설명하였다.

“동재와 서재를 합하여도 방은 모두 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큰 두 개에 불과합니다. 그중에서도 약방과 장의(掌議)-성균관 재회의 의장으로 오늘날의 학생회장. 서재(서장의)와 동재(동장의)에 각각 한 명씩 있었음-의 방을 빼면 스물아홉 개지요. 하지만 상유의 수는 150여명에 달합니다. 허니, 한 방에 여러명이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 수를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편하겠지만, 참아야지요.”

윤희는 열심히 계산해 보았다. 150명이 스물아홉 개의 방을 나누어 사용한다면 한 방에는 대략 다섯 명 정도가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녀는 열린 방문 안으로 방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세 명도 수용하기 힘들 정도의 좁은 방이다. 그럴다는 건 단순히 부대끼는 수준이 아니라 남자들과 살을 포개고 자야만 한다는 의미다. 윤희는 너무도 아찔하여 무의식중에 도망하기 위해 가져온 짐을 잡았다.

“대체로 두세 명가량이 한방을 씁니다.”

선준의 말에 정신이 차려졌다. 독방보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는 못하지만 두세 명은 그나마 관찰을 것 같았다.

“동서재에 다 수용하지 못한 상유들은 그럼 어디에서 묵습니까?”

“근처 반촌(?村)-성균관 주위의 마을. 주로 성균관 소속 노비들의 거주 지역이기는 했지만, 오늘날의 대학가와 비슷한 구실도 함.-에서 하숙을 하거나, 집이 가까운 이들은 집에서 다니지요. 그러니 우리들은 주상 전하의 성은을 입어다 하겠습니다.”

성은이 아니라 재앙이다. 아무튼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아시게 된다면 거품 물고 넘어가고도 남으리라. 윤희는 방 안을 한번 더 들여다보고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한 얼굴로 말하였다.

“면식이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럼 어찌지요?”

“저와는 면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안심을 넘어 설레는 표정으로 그를 보았다. 그와 한방을 쓴다는 건 불행 중 다행이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과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한방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부분도 있었다. 그 위험은 순전히 그녀 마음의 문제였다.

“그. 그럼 저도 귀형과 같은 방을……. 그런데 우리 말고 다른 이도 있습니까?”

“아직 보 적은 없지만, 있는 듯합니다. 제가 들어올 때부터 어지러이 물건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보면. 지나가는 수복(守僕)한테 물어보니 모든 방이 두 명 이상 들어차 있고, 오직 이 방만 한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인지는 물어보았습니까?”

“아니요. 신경 쓰입니까?”

“전혀 모르니까 아무래도……. 저기, 서재 쪽은?”

선준은 그녀를 물끄러미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서재는 대부분 노론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동재는 그 외의 소론이나 남인, 소북 등이 있고요. 귀공은 남인인 듯한데…….”

“어, 어찌 아시었습니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렇지 않을까 짐작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순돌이는 이유도 모르고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윤희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하였다.

“아참, 서재가 노론이라면 귀형은 어찌 하여 이곳에?”

선준이 묘한 미소를 띠며 말하였다.

“자고로 서재에는 진사가 머물고, 동재에는 생원이 머무는 것입니다. 한데 근래에 와서 노론과 노론이 아닌 자들로 서재와 동재가 나뉘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저는 진사이기도 하면서 생원이기도 하기에 그 어느 곳에 머물러도 무방하다 여겨집니다.”

그의 묘한 미소의 뜻을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도 노론이나, 같은 노론들이 모여 있는 서재가 지내기 편할 터인데, 굳이 동재로 들어온 까닭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상한 남자다. 어찌 되었건 선준과 한방을 쓰는 것이 가장 나은 선택이었다. 그가 아닌 다른 동거인이 그 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이다. 선준이 제
땀엔 농담이랍시고 말하였다.

“이곳이 유일하게 한 명만이 있는 것을
보니 다른 이들은 모두 이번 대과에 급제
를 하여 나간 것 같습니다. 이를 보면 이
방의 터가 명당이 아니겠습니까?”

윤희는 긍정의 답으로 웃었다. 그는 단
지 농담이었지만, 그의 얼굴과 목소리를
빌어서 나온 그 말은 마치 사실처럼 느껴
졌다.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그랬다.

윤희는 우선 짐부터 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준도 마루에 올라가 짐을 안
으로 들이려다가 서책 꾸러미 제일 위에
있는 책의 제목을 보았다.

“잠깐, 이게 무슨 책입니까?”

그는 재빨리 주위를 살핀 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순돌이 외에는 없는 것을 확
인하고, 윤희의 귀 쪽으로 입술을 붙였
다. 단순히 귓속말을 위한 것임을 알았지
만, 그녀의 귓물은 화끈거리고 심장은 미
친년 널뛰기하듯이 쿵쿵거렸다.

“이런 노자 계열의 책은 읽어서도 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되고, 청재 내부로 서책을 반입하여서도 안 됩니다. 학령에 위반됩니다.”

“네? 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심심풀이로 읽는 건데…….”

선준은 심심풀이란 말에 오히려 더 놀랐다. 비록 이단서라 하여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책이다. 이런 것을 심심풀이로 읽는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어떻게 하죠? 어디에 숨겨야 하나?”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그녀를 두고 그는 서책 꾸러미의 끈을 풀었다. 거기엔 노자 계Duf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책들이 있었다. 그중 금서인것만 추려내어 제목이 보이지 않게 책을 뒤집어서 끈으로 다시 묶었다.

“청재 반입 금서에는 장자, 불경 등과 각종 잡류나 백가자집도 해당됩니다.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걸 당장 집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 순돌이더러 저의 집에 잠시 가져다 놓으라 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르겠습니다.”

“그리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순돌아, 부탁한다.”

순돌이는 무섭게 웃는 얼굴로 선준이 건네주는 서책 꾸러미를 잡으며 물었다.

“그런데 어째 이불과 요가 안 보입니다. 그건 안 가져오셨습니까요?”

윤희의 눈이 놀라서 급히 선준을 보았다. 따로 가져와야 하는 것인지를 눈동자로 물었다. 희한하게도 그는 이 말을 알아 듣고 대답하였다.

“저는 가져왔지만, 이곳 양현고에 말하면 지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마침 증인으로 보이는 좁은 갓을 쓴 서리가 북쪽으로 난 문에서 들어와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새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윤희와 선준이 동시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서리는 서류 뭉치 같은 것을 꺼내 펼치며 다시 물었다.

“성함이 각자 어떻게 되십니까?”

선준과 윤희는 차례로 이름을 말하였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서리는 명부에서 명단을 확인하고는 붓으로 기록을 하였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였다.

“방은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선준이 정중한 태도로 대답을 하였다.

“이 방에 한 사람만 기거하고 있다고 하여, 우리 둘 다 여기 중이방으로 정했소.”

서리는 서류를 뒤져 현재 방의 주인을 찾아 확인하였다. 그런데 순간 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연거푸 이름과 방의 팻말을 번갈아 보았다.

“무슨 잘못된 거라도 있소?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오?”

“아, 아니 한 분만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다른 방에 빈자리가 있나 확인해 보고…….”

서리는 한참을 찾다가 포기한 듯 억지로 웃으며 말하였다.

“다른 방은 다 만석이니 어쩔 수가 없군요. 뭐, 관참을 겁니다요. 어차피 청재에 잘 들었는 분도 아니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는 이쪽에서 이사하게 생각하자, 급하게 말꼬리를 돌렸다.

“문방구와 책상이나 세숫대야 등의 각종 필수품은 잠시 후에 수복이나 재직이 가지고 와서 지급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의복은 몸의 크기를 재어서 차차 준비해 드릴 겁니다. 그 외에 필요하신 거라도 있습니까?”

선준이 선뜻 말 못하고 미적거리는 윤희를 대신하여 말하였다.

“여기 김 진사께서 이불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는 어찌 되오?”

“그렇습니까? 창고에 여분이 있긴 합니다만, 요즘 이불을 안 가져오시는 분들이 없기에 미처 손질을 해 두지 못하였습시다요. 손질을 한다고 해도 워낙에 낡고 좀을 먹어서 쓸 만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곰팡이도 피고, 그냥 웬만하면 집에서 다시 가져들 오시더라급쇼.”

주절주절 길게 말하긴 하였지만, 결론은 있지만 쓰기 힘들 정도의 이물만 있으니 그냥 집에서 가져오라는 거였다. 윤희는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당혹스러웠다. 하지만 집에서 쓰는 것도 못지 않게 낡은 것이고, 가져올 이불도 없었다.

“그래도 내어 주시오.”

“지금부터 손질하면 며칠이 걸릴 텐데요?”

“그래도……, 가져오고 싶어도 가져올 것이 없소.”

서리는 중인인 자신의 의복보다 낡은 그녀의 도포와 갓을 보고는 수궁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선준이 대뜸 끼어들었다.

“놔두시오. 이 사람의 이불은 내가 알아서 준비할 터이니.”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필요한 것이 계시면 저기 꼬맹이들이 재직들이니까 언제든지 심부름 시키세요.”

동재 뜰 모퉁이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고 있던 어린 남자애들이 자기들을 이야기 한 것을 들었는지 고개를 쪽 빼서 이쪽을 보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뭐라고 소곤거리며 장난질을 하였다. 어린 머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들의 옷이 윤희의 옷보다 사치하였다. 서리가 인사하고 가자, 선준이 순돌이에게 말하였다.

“넌 냉큼 집으로 돌아가서 이불과 요, 베개를 가지고 오너라.”

“당장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잘 챙겨 주실 게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가져오너라.”

“이렇게까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형.”

“아닙니다. 귀공의 건강이 좋으면 모를까, 창고에서 썩은 이불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윤희는 그의 배려에 몸 둘 바를 몰라 고개만 숙였다. 세상에는 멋진 남자는 있어도 착한 남자는 없다더니, 이 남자만큼은 멋지기도 하면서 착하기까지 한 듯싶었다.

짐을 방 만으로 다 들이고 대충의 정리가 끝나자, 순돌이는 서책 꾸머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윤희는 선준과 좁은 방에 단둘이 마주하고 앉아 있으려니 서먹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하기도 하고 두근거리기도 하여, 애꿎은 방바닥만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러다가 열린 방문 너머의 뜰로 눈길을 돌려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다지 넓지 않은 뜰이건만 선준의 숨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좁은 방과 비교되어 넓게만 보였다. 뜰 건너에 나무를 등성등성 박아 놓은 창이 보이는 긴 건물을 보다가 괜히 침묵을 깨 보았다.

“저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아, 보아하니 진사 식당인 것 같습니다. 동서재생들이 식사하는 곳이지요.”

“아…….”

“그건 그만 벗어나세요.”

“네? 뭐, 뭘 벗어나라고요?”

윤희가 소스라치게 놀라자 그도 덩달아 놀라서 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갓 말입니다. 성균관 안에서는 더 이상 갓을 쓰지 않아도 되기에…….”

“아……, 네. 버, 벗어나야지요.”

갓을 벗어야 함은 물론이고 옷도 갈아입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어야 했다. 알고는 있지만, 버젓이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선준 앞에서 자꾸만 부끄러워졌다. 옷을 훌랑 다 벗고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도포만 갈아입으면 되는 것임에도 그랬다. 천천히 갓끈을 풀고 갓을 벗는 그녀에게 선준이 말을 던졌다.

“모든 사내가 그러지 a라란 법은 없지만, 귀공은 유달리 부끄러움이 많으십니다.”

더없이 부드러운 그의 미소건만 윤희의 가슴은 더할 나위 없이 뜨끔하였다. 혹시 여자로 의심하는 건 아닌지 지레 발이 저려 얼른 벗은 갓을 방바닥에 내려 놓았다. 그리고 옷가지 몇 개를 넣어 가지고 온 짐을 풀어, 그 안에서 유건을 흥내 내어 만든 머리쓰개를 꺼냈다.

시중에서 파는 유건은 말총 등으로 만든 것이라 값이 상당하여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맨상투를 드러내는 것 또한 예의에서 어긋나는 것이기에 쓰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유건 만드는 방법을 물어서 검은 천으로 어머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가 손수 만들었다. 일반 천은 뺏뺏하지가 않아 헝겊과 헝겊 사이에 골이 성성한 삼베를 넣어 힘을 주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긴 하였지만, 초라한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윤희는 초라한 유건보다 더 부끄러운 자신의 상투를 숨기기 위해, 재빠른 동작으로 머리에 유건을 쓰고 끈으로 턱 아래를 묶었다. 더 이상 땀기를 드릴 수 없는 상투 머리. 딸의 재직들보다 더 짧은 그것이 선준 앞에서 무엇보다 부끄러운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이 다가왔다. 그녀가 놀랄 틈도 주지 않은 그의 긴 손가락이 유건의 끈을 다시 풀었다. 윤희의 턱에 그의 손끝이 잔인할 정도의 파문을 일으키며 훑고 지나갔다. 선준은 그녀가 급하게 쓰느라 끈이 꼬이고 비뚤어진 것을 고친 뒤, 다시 턱 아래에 끈을 묶어 주며 말하였다.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지 못하였으니, 수줍음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앞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으로 이곳에서 지나다 보면 차차 나아지겠지요.”

윤희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 이 숨막히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온 옷들을 벽에 걸린 옷걸이에 척척 걸었다. 제일 창 쪽에는 기존의 이 방 주인의 옷인 듯한 것이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널려 있었고, 그 옆에 깨끗하고 단정한 선준의 옷이 각이 잡힌 채로 걸려 있었다. 윤희는 자신의 낡은 옷을 그 옆에 걸었다. 그의 체취가 스며 있는 옷과 겹쳐지면서 나란히 걸린 자신의 옷을 보자, 기분이 야릇했다. 그래서 선준의 옷을 보느라 그 옆에 있는 기존 방 주인의 옷에 난 칼자국은 보지 못하였다.

윤희는 옷걸이 아래쪽에 손수건 같은 천 쪼가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아무렇게나 뭉쳐져 있는 것을 보니 선준의 것이 아니라, 기존 방 주인의 것인 듯하였다. 그녀가 천 쪼가리를 잡자, 앞의 선준이 말하였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이전 방방례 때 저에게 할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 아무리 불려도 그냥 가 버리시기에 묻지 못하였습니다.”

방방례가 끝나면 여자임을 그에게 실토하기 위해 기다려 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그날 왕의 어명에 워낙 얼이 빠졌던 터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모든 의식을 다 끝내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던 것 같다. 윤희는 당황하여 잡은 것을 옷가지들 위에 펼쳐서 널면서, 고개만 돌려 그를 보면서 말하였다.

“그, 그랬었군요. 달리 할 말이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축하도 드릴 겸……. 아! 귀형도 제게 의논할 것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윤희의 손에 의해 펼쳐진 손수건에는 덜 빠진 핏자국이있었고, 귀통이에는 불로초가 수놓아져 있었다. 하지만 눈은 선준액가 있었기에 보지를 못하였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그의 말을 기다렸다.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무엇이기에 지나갔다 합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같이성균과에서 수학할 생각이 없느냐 묻자고 하였는데, 성상께옵서 먼저 어명을 하시었기에 더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귀형은 어찌하여 제게 꼬박꼬박 공대를 하십니까? 아우라 생가하시고 편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제 한방을 쓰게 되었으니, 그럼 그럴까요? 절반만 낮추겠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는 없으니 호를 지어서 가르쳐 주십시오.”

윤희는 고민스러웠다. 호를 짓는 건 이름을 짓는 것만큼 골치 아픈 것이다. 하지만 이제 태학생이 되었으니 필수로 만들어야 한다. 이때 지나가던 상유가 방안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인사를 건네왔다.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군요. 반갑습니다.”

두 사람도 반갑게 인사하며 마루로 나갔다. 선준이 물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안녕하십니까? 이 방에 계신 분이가요?”

“아, 아닙니다. 전 저쪽 편에 있는 하종방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호랑이를 발견한 듯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방은?”

“네? 무슨 일입니까?”

“아, 아니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그는 다시 한 번 방의 팻말과 두 사람을 살피다가 후다닥 어디론가 달려갔다. 윤희는 기분이 이상해졌다. 아까의 서리도 그렇고 이번의 상유도 그렇고, 이 방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 양 놀라는 것이 꺼림칙 하였다. 기분이 이상한 건 선준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같은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2.

선준은 마루에 걸터앉아, 뜰에서 해작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질하고 있는 재직을 불렀다.

“애야, 이리 온.”

아까부터 이쪽을 힐끔거리던 재직 하나가 선뜻 오기 민망한 듯 엉덩이를 빼다가, 제 무리의 밀침을 받고서야 가까이 왔다. 하지만 그놈의 목적은 선준의 부름이 아니었다. 선준이 미처 말도 꺼내기 전에 그의 얼굴만 들입다 보다가 제 무리로 쫓아가서 흥분된 목소리로 떠들었다.

“나 봤다, 봤어. 진짜 잘생겼어.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어. 저렇게 생긴 사람은 처음 바. 우와, 우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진짜? 진짜?”

재직들이 아까부터 모여 안장 수군거린 원인이 선준의 외모 때문이었던 모양이다. 그들의 재잘재잘 떠드는 소리에 그는 멧쩍은 표정으로 웃었다. 윤희는 꼬마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어 피식 웃으며 말하였다.

“꼬마들이 놀라서 떠들 만큼 잘생기긴 하였지요. 저도 처음에 보고 놀랐으니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요.”

그녀가 놀리는 것처럼 느낀 선준은 짙은 눈썹 사이를 일그러뜨렸다. 꼬마들 사이에 밀치고 미적거리는 가벼운 사랑이가 일더니, 또 다른 한 놈이 이쪽으로 쭉쭉 달려왔다. 그리고 선준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제 무리로 돌아가다가 엎어져 버렸다.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고 도망가는 쥐의 모습과도 흡사하였다.

엎어졌던 놈이 땅에서 벌떡 일어나 제 무리로 가서, 그를 본 감상을 다시 한 차례 늘어놓았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펄쩍펄쩍 뛰고 난리가 났다. 윤희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숨을 꼭 들이삼켰다. 그런데 이번에는 꼬마들의 눈이 선준이 아닌 윤희 쪽으로 몰렸다. 한 놈이 책임자가 되어 그녀에게로 조르르 왔다. 그리고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볼뿐만이 아니라 귓볼까지 시뻘게져서 제 무리로 쫓아가 침을 삼키며 보고했다.

“꿀꺽! 예, 예뻐. 우리 옆집의 순임이 누나보다 훨씬 훨씬, 더 예뻐.”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리고 제 주먹을 쥐고 앞으로 보이며 말을 이었다.

“얼굴이 내 주먹만큼 작아.”

아무리 얼굴이 작아도 조막만 한 제 주먹보다 작을까마는, 그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다. 윤희가 난처해하자, 이번에는 선준이 놀리듯 말하였다.

“꼬마들이 여인과 비교해서 말할 만큼 예쁜 건 사실이지요.”

그는 섬돌 위에 벗어 둔 신을 신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 번 재직들을 손으로 불렀다. 그들이 한꺼번에 워랜 아래로 몰려왔다. 같은 높이의 땅에서 보아도 키가 큰 선준이기에 월대 위에서 있는 그는 꼬마들 눈에 얼마나 더 크게 느껴질 것인가. 그야말로 까마득하였다. 선준은 허리를 숙이고 다정한 목소리로 질문하였다.

“얘들아. 혹시 이 종이방에 기거하시는 문을 아느냐?”

“미친 말.”

가운데 한 놈이 대뜸 입을 열었다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실수로 튀어나온 말이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었다.

“방금 무어라고 하였느냐?”

선준이 상냥하게 물었지만 말을 했던 농은 제 아랫입술을 힘껏 물고 도리질만 하였다. 양만을 욱되게 하는 말을 내뱉은지라, 겁에 질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꼬마가 가여워 더 이상 묻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였다. 풀 죽어 자기들이 놀던 자리로 돌아가던 무리 중, 한 농이 용기를 불끈 내어 선준에게로 와서 말하였다.

“손네는 좋은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무엇이?”

“이 방에 계시는 분이요. 다른 유생님들이 ‘미친 말’ 이라고 그러셔도, 전 어느 분들보다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 물론 무서워서 가까이 가 본 적은 없지만요.”

“그러하느냐? 네 말이 그렇다면 이 방의 주인은 분명 좋은 분일 게다.”

선준은 친절하게 웃으며 재직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윤의의 머릿속은 두렵고 복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잡하였다. 미친 말이라니, 그런 비정상적인 별명을 가진 사람과 한방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재직들과 이야기 나누는 사이사이에 몇 명의 상유들이 동재로 들어와 선준과 윤희를 훑쳐보다가 사라지기를 몇 차례 하였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오호, 자네들이 지금 반궁(泮宮)-반궁, 학궁, 태학, 현관, 근궁 모두 성균관을 일컫던 말-을 온통 떠들썩하게 만든 신입들인가?”

두 사람은 소리 나는 곳을 동시에 보았다. 체구는 왜소하지만, 머리끝부터 신발 끝까지 부티가 짹짹 흐르는 상유가 월대 위에 올라 이쪽으로 걸어 오고 있었다. 말총으로 만든 유건이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다. 그가 쓴 것은 수많은 종류 중에 촘촘하면서도 투명한 것이 단연 최고 급품이고, 귀 옆의 조그마한 관자는 바다 거북 등딱지로 만든 외점박이 대모관자로, 최상의 사치품이다. 행의 또한 값비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싼 비단이 찬란한 광택을 내며 주름을 잡고, 신발은 가죽과 비단을 이어 붙여 금색 실로 세밀하게 장식한 태사혜를 신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접선은 더 가관이었다. 그건 펼치지 않고 접은 상태였지만 갓대와 선추의 정교한 조각을 보건대, 화려함은 짐작을 하고도 남았다. 동서재의 좁고 낡은 방과 너무도 큰 괴리감이 있어서 이곳에 기거하는 유생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들 정도였다.

선준과 윤희는 나란히 섬돌 앞에 서서 인사를 하였다. 그런 후, 선준이 물었다.

“이 방에 계신 분이십니까?”

“조금 전 재직이 미친 말이라 하지 않았나. 내가 미친 말로 보이는가?”

두 사람이 당황하여 쳐다보자, 그는 유쾌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하하하, 농담이네. 난 자네들 옆방인 중일방에 기거하는 여림이라는 호를 쓰는 생원이라네. 이름은 구용하, 본관은 능성이지. 나이는 스물셋이니 말은 편하게 하리다. 자네들의 소개는 따로 필요 없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이미 소문이 반궁을 덮고 있었으니.”

소문이라니? 선준이야 반궁이 아니라, 장안에 소문이 나도 남음이 있지만, 그녀 자신은 있는 듯 없는 듯 존재감 없이 지나다가 소리 소문 없이 여기를 나가야 하지 않는가. 그렇기에 썩 달갑지 않은 말이었다.

“처음 뵈겠습니다.”

윤희가 인사를 건네자, 그의 눈이 선준에게서 벗어나 그녀를 꼼꼼히 살폈다.

“자네가 녹빈홍안이라 소문난 김윤식인가? 난 원래 뜬소문은 1할도 믿지 않는데, 자네에 관한 것은 실제에 비해 도리어 그 절반만 소문으로 흘러 나왔던 게로군.”

의심스러운 듯 온몸을 훑어 내리는 시선이 윤희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가 시선을 접고 선준을 향해 말하였다.

“그나저나 노론의 거두를 아비로 둔 사람이 어찌 이곳 동재로 들어왔단 말인가. 조정의 당파싸움이 이곳이라고 비껴가겠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는가? 험한 꿀 당하기 전에 서재로 옮기는 편이 나을 거네.”

선준은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기며 말을 돌렸다.

“그런데 이 방의 유생은 어디 계십니까?”

“넌들 아나, 걸오 그놈을 못 본 지 며칠이 넘었는데.”

“걸오?”

“그래, 미친 말. 다들 별호로 그렇게 부르지. 정히 방을 못 옮기겠다면, 자네들은 그놈하고 잘 지내게나. 어느 놈이라도 같은 방에서 두 달을 못 넘기고 도망을 하거든. 그럼 난 이만…….”

용하는 마치 재직들에게 할 말이라도 있는 것처럼 슬그머니 그들 쪽으로 가면서 윤희를 뚫어지게 보았다. 윤희는 그를 의식하지 못할 만큼 걱정스러웠다. 걸오! 길들지 않은 말이란 뜻이지만, 성질이 포악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두 달을 넘기지 못하는 동거인들, 이것은 그녀를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충분히 두렵게 만들었다. 선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머릿속 걱정을 쫓아냈다.

“더 이상 우리는 할 일이 없으니, 귀공의 호를 지으러 가 봅시다.”

“어디로요?”

“서책이 많은 곳이라 하니, 귀공도 좋아할 겁니다.”

“네, 가요. 그런데 왜 계속 공대하십니까?”

“아, 알았소. 이제 낮추었소.”

그들이 웃으며 동재에서 명륜당으로 통하는 위쪽 문을 나가자, 용하는 재직들에게서 멀어져 그 문으로 다가가 멈춰 섰다. 그리고 사라진 윤희의 뒷모습을 되새기듯 왼쪽 눈을 가늘게 뜨며, 접선 끝으로 입을 가리고 혼잣말을 흘려 내었다.

“계집은 피부 아래에 흐르는 피의 향기부터가 사내와 다른 법. 앞태를 보나 뒤태를 보나 의심할 여지없는 계집이다. 책으로 세월을 지낸 순진한 유생들은 속일 수 있어도, 계집질에 이골이 난 내 눈을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속일 순 없지. 이거, 간만의 재미있는 놀
잇감인걸.”

그는 재빨리 걸어서 북쪽 멀리에 있는
향관청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많은 상
유들이 모여 앉아 담뱃대를 물고 장난스
런 회의를 하고 있었고, 다른 한 무리는
그 옆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그 중 한
유생이 안으로 들어서서는 용하를 보고 반
갑게 말하였다.

“어이, 여림 자네가 여긴 어떤 일인가?
지금쯤이면 기생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있을 시간이 아닌가!”

“명륜당의 수업이 아직 한창인데 절 어
찌보고 그런 농입니까?”

“자네에게 그깟 수업이 계집보다 중하
던가?”

용하는 그들 사이에 앉다가 소리 내어
웃으면서 말하였다.

“하하하, 그럴긴 합니다. 그건 그렇고
조금 전의 내기 말입니다. 그거 저도 하
겠습니다.”

“시큰둥하더니만, 그새 마음이 바뀌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나?”

“네, 전 ‘김윤식은 사흘이 지나기 전에 여기를 나가고, 이선준은 닷새가 지나기 전에 방을 옮긴다.’에 걸겠습니다.”

“이런, 자네 성격답지 않게 야박하구먼. 하긴 걸오가 노론이라면 아비 죽인 원수보다 더 칠색 팔색하지. 더군다나, 이선준의 아비인 좌의정과 걸오의 아비인 대사헌이 철천지 원수 사이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기를 적은 종이에 키득거리며 그의 말을 적었다. 용하는 모인 사람들을 둘러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하였다.

“재미있는 일을 의논 중이시라 들었습니다.”

“뭐, 신방례를 의논 중이긴 한데, 이전과 딱히 다른 의견은 없네. 게다가 이선준은 신진이라고 해도 워낙 어려워들 해서 심한 장난은 다들 꺼리고.”

“아니지요. 이선준과 같은 걸출한 신진이 쉽게 들어온답니까? 이런 기회를 그냥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버리면 아깝지 않겠습니까. 음……, 아무리 그러하여도 설마 고작 구정물 마시기라든가, 가랑이 사이 기어가기와 같은 낡은 의견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유생들의 낯빛이 변한 걸 보니 제대로 찔렸다. 용하는 그들이 민망한 듯 웃는 모습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한숨을 한 번 쉬고 입을 열었다.

“제게 좋은 착상이 있습니다. 한 번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야 물론 환영하는 바네. 자네는 이런 쪽으로 비상하지 않은가”

모두의 머리가 모아졌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열심히 이야기하는 용하는가 있었다.

선준이 지나가는 수복에게 위치를 물어가면서 도착한 건물의 현판에는 존경각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 건물은 명륜당의 뒤편에 있는데,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윤희는 그 글자를 보며 물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존경각? 이곳은 뭐하는 곳입니까?”

“ 상유들을 위한 도서관이라 하오. 나도 귀동냥으로만 알고 있소.”

윤희는 그의 상기된 얼굴을 보고 속으로 빙그레 웃었다. 호를 만들자고 유혹하였지만, 이곳의 서책에 더 욕심이 있었던 듯하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 건물 안에 들어서니, 문 바로 앞에 존경각을 관장하는 서리의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내부 가득하게 가지런한 책장들이 늘어서 있었고 거기에는 서책들이 꽂혀 있었다. 윤희는 많은 장서에 기쁜 얼굴로 그를 보았지만, 선준은 그녀와 달리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수만 권이라 하더니……. 개유와를 이곳으로 옮겨 놓으면 좋으련만.”

그가 상상한 것에 턱없이 부족한 모양이다. 그들은 빼격 거리는 나무 바닥을 조심스레 걸으면서 책을 살피듯 이것저것 구경하였다. 그리고 서너 권의책을 꺼내어 구석진 창가 쪽에 겨우 하나 있는 책상과 의자에 앉았다. 서리는 이들의 모습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을 힐끗 보고는 흥미가 없는지 반납 받은 책을 분류해서 책장에 꽂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윤희는 책을 펼쳐 앞을 가리고, 마주 보고 앉아 책을 일느라 정신없는 선준을 훑쳐보았다. 재직들이 잘생긴 그의 얼굴에 흥분하여 구경하던 모습이 생각나 웃음이 머금어졌다. 그에게서 가장 잘생긴 부분을 찾아보았다. 눈이다. 아니, 눈동자인가? 흔들림조차 없는 윤기 있는 새까만 눈동자. 아니다, 콧날인 듯도 싶다. 그의 심성처럼 똑바른 콧날. 아니다, 입술인 듯도 싶다. 따듯한 피가 돌아 달콤할 것 같은 입술. 그 입술이 도톰한 물기를 머금은 듯 벌어졌다.

“내 얼굴에서 호를 찾으소?”

화들짝 놀란 그녀는 붉어진 얼굴을 숨기느라 책에 고개를 박으며 핑계를 대었다.

“저, 저도 아까의 재직들과 같은 심정이 되어…….”

선주는 책에서 눈을 들어 손으로 턱을 괴고 윤희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다. 입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가에 한가득 짓궂은 미소를 머금은 걸로
봐서 그도 장난을 치고 싶은가 보다. 그
녀는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나도 아까의 재직들과 같은 심정이 되
어서.”

윤희는 더욱 얼굴이 붉어져 어깨까지 움
츠리며 책을 들여다보았다. 선준은 다시
책을 읽었다. 그러다가 언뜻 앞의 얼굴이
눈을 강하게 잡았다. 햇빛이 창살을 뚫고
들어와 몽땅 그 얼굴에 보여들었는지, 투
명한 피부가 눈이 부셨다. 재직들이 여자
를 들먹여 가며 비교를 할 만큼 수염 자
국 하나 없는 아름다운 남자다. 아직 아
기와도 같은 검고 커다란 눈망울 때문인
가. 아니면, 부드럽게 솟은 콧등 때문인
가. 이도 저도 아니면, 적당히 부풀어 오
른 맑은 분홍 빛깔의 입술 때문인가. 자
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 뚫어져라 보고 있
던 선준은 갑자기 즈녀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앗, 내가 찾으려고 했던 책이 어디 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나?”

그는 허둥지둥하며 책장 하나를 넘어갔다. 책장에 꽂힌 책들 너머로 윤희가 보였다.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책을 읽고 있었다. 선준은 인상을 찌푸리며 자신의 주먹으로 가슴을 힘껏 때렸다.

“미쳤군! 사내를 보고 뛰는 가슴이라니.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내는 사내인 것을.”

그는 정신을 차리고 책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 언제 가슴이 뛰었냐는 듯 독서 삼매경에 빠졌다.

조용한 존경각 안으로 나이가 마흔 살 가량 되어 보이는 가벼운 창옷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외출했다가 온 것인지 머리에는 갓을 쓰고 있었다. 그는 윤희와 선준이 책을 읽는 모습을 유심히 보다가, 문 앞의 책상에 앉아 사무를 보고 있는 서리에게로 눈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보게, 안녕한가?”

“장 박사 나리, 오셨습니까?”

“내가 저번에 부탁한 책은 구해 두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다.”

“네, 힘들긴 했지만 예조에서 몇가지 책을 더 얻어 주었습니다.”

장 박사는 서리가 건네주는 책들을 받아들고 그의 옆에 앉아 책을 펼치며 말하였다.

“자네가 끓여 주는 차 한 잔 마시고 싶군.”

“그러실 줄 알고 일어나려던 참입니다. 하하하.”

존경각 안으로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서 말을 던졌다.

“차를 마시려거든 정록청에 가지. 무슨 염치로 매번 이곳에서 폐를 끼치나? 이왕이면 내 잔도 하나 얻어 주게.”

그는 자주색 관복을 입고, 관모를 쓰고 있었다. 서리는 소리 없이 웃음으로만 대답하고 존경각을 나갔다. 장박사는 그를 힐끔 쳐다보고 가벼운 눈인사만으로 인사를 끝낸 뒤, 계속 책만 보았다.

“여기로 들어오는 뒷모습이 장 박사인 것 같더라고. 하여 얼른 따라 들어왔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

“유 박사, 조용히 말하게! 저기 글 읽는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가?”

“응? 어디?”

유 박사는 책장들로 인해 잘 보이지 않자 몸을 젖혀 윤희와 선준이 책 읽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놀란 눈으로 장 박사 옆에 앉으며 소곤거렸다.

“처음 보는 놈들인데, 그럼 저들이 소문의……?”

“그런가 보군.”

“허허, 오래 살다 보니 별꼴을 다 보는군. 이곳 반궁에 널리고 널린 게 제정신 아닌 유생들이라지만, 입재 첫날부터 존경각을 찾는 놈들은 더욱 정신 나간 놈일세그려.”

유 박사는 여전히 책에서 눈을 들지 않는 장 박사를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하였다.

“성상께옵서 자네가 오후에 잠깐씩 사부학당에 출장 강의 나가는 것도 완전히 작파를 시키고, 성균관에 들어왔힌 게 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전히 저놈들 때문이지?”

“난 모르네.”

“이보게, 내일부터 저들의 『대학』 강의권을 전담 받지 않았는가. 나도 그래. 난 오후에 저들에게 경국대전을 강의해야 한다고, 그러니 주상 전하의 뜻이 무엇인지 귀뜸이라도 하여 주게나.”

장 박사는 그제야 책을 덮고 그들이 있는 곳을 보았다. 서리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다시 존경각으로 들어와 찻주전자에게 차를 넣으며 한마디 했다.

“주상 전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저들에게는 가히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

“왜?”

“두 분의 실력이야 이곳 최고겠지만, 그만큼 따라가기 힘들어 태학생들 모두 꺼리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 두 분의 강의를 오전과 오후 모두 소화해 낼 유생이 과연 있을까요?”

장 박사는 찻잔을 들면서 여전히 선준과 윤희를 보았다. 그리고 딱 부러지게 말했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못 따라오는 학생은 강제로 끌고 가진 않아. 고작 우리 같은 스승 아래서 헤매는 놈이라면 일찌감치 버려야 나라에 득이 돼. 여기는 사부학당이 아니라, 성균관이니까.”

유 박사가 팔을 내두르며 펄쩍 뛰었다.

“어이, 우리라고 하지 말게. 난 자네만큼 독종은 아니야. 같은 줄에 서는 건 달갑잖구먼. 난 안 되는 놈이라도 포기하지 않아. 벌을 주어서라도 끌고 가지.”

“쯧쯧, 그러니 자네를 더 독종이라고 하는 거야.”

서리는 찻주전자를 천천히 돌이다가 두 개의 찻잔에 차를 따른 뒤, 옆에 내려놓으면서 빙긋이 웃었다. 장 박사는 조금이라도 수업을 못 따라오면 가차 없이 낙제를 시키고, 유 박사는 될 때까지 호되게 공부시키는 품이다. 결국 오십보백보다. 이 둘은 교육 방법이 다르다뿐이지, 강의가 뻑센 건 상유라면 모르는 자가 없다. 학관의 이동이 발표될 때마다 유생들은 이 두 박사만은 비껴가길 기도할 정도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리고 재수 없게 걸리면 그날부터 줄초상은 각오해야 한다. 저녁만 되면 기생집과 술집으로 달려가던 유생들도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유 박사가 싱긋이 웃으며 장 박사의 컷가에 소곤거렸다.

“내가 궁금한 주상 전하의 뜻은 말일세, 규장각으로 젊은 인재를 모으고자 하시는 주상 전하의 의지가 하늘을 찌르는데, 자네같이 뛰어난 각신-규장각의 종1품이나 정2품의 벼슬을 말하는 것이지만, 규장각 소속의 신하들을 통칭해서 쓰기도 함.-을 고작 성균관 박사로 보내신 거거든.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따로 어명 받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

장 박사는 미동도 없이 차를 마시며 말하였다.

“내 귀에 입술을 가까이 하려거든 돼지털처럼 뺏뺏한 수염부터 자르게나. 따갑네.”

“이봐, 동무끼리 이러지 말자고. 정보는 교환해야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난 남인이고, 자네는 노론인데 어찌 동무인가? 노론 동무는 둔 적이 없네.”

유 박사는 그의 냉담한 말에 화를 내는 듯한 너스레를 떨며 차를 흘랑 마셨다. 그런데 너무도 뜨거운 나머지 몽땅 뱉어 내고 혀를 짝 빼서 털털 털었다. 소란스럽고 칠칠맞은 성격이다. 그에 반해 소배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그의 입가를 닦아 주는 장 박사는 꼼꼼하고 침착한 성격이다. 비록 당파는 다르고 매사에 장난처럼 말싸움을 툭툭 주고 받지만, 둘도 없는 벗인 건 사실이다. 유 박사는 다시 빈 잔을 채우면서 투덜거렸다.

“자네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입을 열지 않으니 섭섭하네, 섭서해.”

그는 비어 있는 장 박사의 잔에도 차를 따랐다.

“좌천을 당한 주제에 입이 있어선 아니 되지 않겠나.”

“그래, 대사성을 제외한 성균관 학관 직은 관직에 있는 자들의 유배자라 일컬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어질 만큼 다들 꺼리는 곳이니, 그런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게나.”

장 박사는 다시 책을 펼쳐 잡았다. 하지만 날카로운 눈은 선준과 윤희에게 가 있었다. 유 박사도 그의 눈길을 따라, 몸을 돌려 그들을 보았다. 서리도 덩달아 시선을 두었다가 갑자기 생각난 듯 말하였다.

“아참,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노론의 이선준 쪽이 동재에 방을 잡았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걸오 유생의 방에. 같이 들어온 김윤식도 함께요.”

그 어떤 말에도 미동이 없던 장 박사가 이번에는 정말 놀랐는지, 책을 잡은 손이 움찔하였다. 유 박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지금 반궁 전체가 그 이야기뿐인데 모를 리가 있나. 상유들끼리도 내기를 하고, 우리 학관들도 내기를 하고 있네. 이번 내기는 대사성 영감까지도 돈을 걸었다네, 하하하. 난 적어도 두 달은 버텨 준다는 쪽에 걸었는데.....”

“우리 서리들도 그 내기로 시끄럽습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다. 듣기로는 수복들끼리도 내기를 한다 더군요. 대체로 석 달을 넘기는 쪽에 돈을 거는 이는 없다 합니다.”

갑자기 장 박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기 따위의 경박한 것을 싫어하는 그이기에 화가 난 듯 보였다. 책을 가지런히 챙겨 드는 그에게 유 박사가 물었다.

“왜 일어나는가?”

“그 내기 어디서 하는가?”

“어디서 하는지 알면/”

“나도 돈 좀 걸어 볼까 하고.”

“자네가? 이거, 정말 놀랄 노릇인걸. 그런데 어디에 걸 건가?”

“난 ‘둘다 급제하기 전까지는 나가지 않는다.’ 는 쪽에.”

“에? 그건 돈 날리는 거야. 걸오 놈의 불한당 같은 성격 모르나? 그냥 적당히 석 달에 걸게나.”

“아니, ‘덤으로 이선준과 걸오는 친해진다.’ 이렇게 거는 것도 좋겠군.”

“이보게. 자네가 내기란 게 뭔지 모라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서 그러는 것 같은데, 자고로 영원에 돈을 거는 건 결코 아니라 하였네.”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서리가 선준을 유심히 보면서 말하였다.

“전 이선준 유생을 직접 보기 전에 돈을 걸었는데,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사람, 보통이 넘겠는걸요? 오히려 걸오 유생이 쫓겨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두 분 밖께서 오전, 오후 강의를 맡는다면 어떤 유생이 사흘을 넘길 수 있겠습니까?”

장 박사는 입가에 떠오른 미소를 애써 감추며 선준과 윤희를 보았다. 유 박사도 차를 들이켠 뒤,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보았다. 신입들은 인상을 쓰며 무언가에 열중해 있었다. 열중한 것이 그 무엇이든간에 아름다운 광경이다. 장 박사가 분위기 깨는 소리를 하였다.

“저리 평화스러운 것도 지금뿐이야. 오늘 밤은 신래침학이랍시고 청재의 유생들에게 곤혹을 당하고, 내일부터는 우리한테 곤혹을 당할 터이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어이고, 우리라고 하지 말래도. 난 자네와 달리 인자한 스승이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두 박사는 티격태격하면서 존경각을 나갔다.

3.

“지금부터 상읍례가 있으니 속히 서재로 오라합니다.”

동재에 신입들만이 덩그러니 남은 듯 적막한 가운데, 수복이 외치는 소리가 유달리 크게 들렸다. 선진과 신진 간에 하는 신고 인사인 상읍례를 치르기 전에는 아직 청재생이 아니기에, 식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규칙이다. 조금 전에 저녁 식사를 마쳤으니, 지금 상읍례를 하면 내일 아침부터 식사가 허락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준과 윤희는 저녁을 쫄쫄 굶은 상태였다. 그녀는 배고픔을 참고 집에서 가지고 온 고리짜를 수복에게 내어 주었다. 그리고 선준도 자신이 가지고 온 고리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을 건넸다. 거기에는 상읍례 때 선진에게 바치는 음식들이 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친척들에게서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것을 듣고 와서 고민했었다. 음식이 시원찮으면 모욕도 당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딸을 위해 힘겹게 준비한 음식이었다.

고리짜를 든 수복의 뒤를 따라 선준과 윤희는 명륜당의 거대한 마당을 가로질러 서재로 들어갔다. 그곳은 동재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서재의 긴 마루에는 북쪽 끝에 서장의가 앉고 그 옆으로 서재생들이 주르륵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남쪽 끝에는 동장의가 앉고 그 옆으로 동재생들이 주르륵 앉아 있었다. 월대 아래의 서재 뜰에는 선준과 윤희 외에 다른 세 명도 서 있었다. 그들은 서재에 방을 잡은 신입들이었다. 선준과 윤희가 먼저 와 있는 그들 옆에 나란히 서자, 수복은 가지고 온 고리짜들을 동장의 앞에 놓았다.

해가 뉘엿뉘엿 지는 것을 알리는 노을이 짙어지고 있었다. 그 노을을 등에 진 신입들은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며 서 있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다. 이윽고 서장의 옆 월대에 서 있던 수복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부터 상음례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동, 읊!”

대청에 앉은 선진들과 뜰에 선 신입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가 바로 하였다.

“이선준은 앞으로 나와 서시오!”

선준이 월대 바로 앞으로 다가가 서자, 양쪽 끝에 서 있던 수복 두 명이 동장의 와 서장의에게 각각 종이 하나씩을 건넸다. 그 종이에에는 선준이 머무르는 방의 이름, 진사. 생원, 호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청에 앉은 선진들이 그 종이를 모두 돌려보고 나자, 수복이 다시 외쳤다.

“읍!”

선준은 몸을 돌려 서장의에게 먼저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다음으로 동장의, 그리고 가운데를 향해 절을 하였다. 도합 세 번의 절을 마치니, 선진들도 선준을 향해 일제히 한 번의 인사를 하였다. 그 다음으로 세 명의 서재 신입들이 차례로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그와 같은 순서로 인사하고, 마지막으로 윤희가 인사를 마쳤다. 여기까지는 시작에도 들지 않는 의식이었다. 시작은 이제부터다.

바친 음식을 타박하는 것으로 신진 길들이기는 시작되었다. 그러다 보니 제일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윤희의 음식이 담긴 고리짜이었다. 다른 이들의 고리짜에는 오색떡과 전, 각종 다과, 심지어 육포까지 들어 있는 것에 비해, 그녀의 고리짜에는 우중충한 썩떡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썩떡이라고 해도 쌀은 거의 없고 썩이 대부분이라 엉켜 붙지 않아 퍼석했다. 동장의 옆에 앉은 색장-성균관 재회의 간부로 오늘날의 학생회 임원. 서재와 동재 각각 두 명씩, 도합 네 명이 있었다.-이 소리쳤다.

“대체 이것을 먹으라고 가져온 건가, 아니면, 버리라고 가져온 건가?”

윤희의 등이 긴장하여 뻗뻗해졌다.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어 잠자코 고개만 숙였다. 그들은 그녀가 머리에 쓰고 있는 초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라한 유건을 보고, 쓱떡이 든 고리짝과 함께 키득거리며 비웃었다. 선준이 아무렇지 않게 대했기 때무네 유건에 대해 전혀 의식을 못 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 당황하였다. 윤희가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하니, 색장이 고리짝을 발로 차면서 소리쳤다.

“우리를 네 집의 돼지썸으로 여기는 거냐!”

그의 발길질에 고리짝이 마루 아래로 떨어져 월대 위에 엎어졌다. 안에 든 쓱떡은 땅바닥에 흩어졌다. 그것을 본 윤희의 가슴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돼지가 이런 것을 먹는다면, 어머니와 동생은 돼지보다 못하단 말인가. 여기 가져온 것을 집에서 먹었다면 어머니와 동생이 며칠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어머니가 들에 나가 며칠을 고생하여 장만한 음식을 땅에 패대기치다니, 윤희가 고개를 들고 색장을 향해 소리쳤다.

“유학을 배우는 유생들이 아니십니까? 그 수많은 책들 속에 가난한 음식은 함부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로 해도 된다는 가르침이 있더이까!”

대청에 앉은 상유들 사이에 일대 소란이 일었다. 그 가운데 앉은 용하는 이 광경이 아주 재미있다는 듯 접선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당찬 계집일세. 몸을 숨기고 있어도 시원찰을 마당에, 저리 반항을 하다니. 하긴 남장을 하고 금녀의 구역인 청재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간이 큰 년이지.’

색장이 얼굴을 붉으락푸르락하더니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신진이 감히 선진을 가르치려 드느냐! 어린놈이 진사와 생원에 입격하였다고 아주 기고만장하구나!”

윤희가 반항을 하려고 하자, 선준이 이에 앞서 불쑥 앞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 뿐만이 아니라 대청의 선진들도 모두 어리둥절하여 조용해졌다. 그는 월대 위로 성큼 올라가 쏟아진 음식 앞에 단정히 무릎 꿇고 앉았다. 그리고 고리짝에 하나씩 흠을 털어서 넣었다. 다 담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입을 여는 자가 없었다. 그만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큼 선준이 뱉어내는 분위기가 엄숙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어 올린 떡을 흠도 털지 않고 입에 넣었다. 윤희가 깜짝 놀라 그에게 다가가 입에 든 것을 손으로 빼내려고 했다.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으니 어서 뱉으세요.”

하지만 그는 끝까지 꼭꼭 씹어 삼켰다. 그리고 그녀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다.

“맛있소. 백성의 고향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는 자라면 아마 이 맛을 모를 거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땅에 떨어졌던 떡을 담은 고리짜를 들고 가, 패대기 찢던 색장 앞에 내려놓았다. 색장은 이미 선준의 기에 놀려 꼼짝도 못하고 있었다.

“드십시오. 어넨가는 선진께서 출사하여 돌보아야 할 백성의 고향입니다.”

색장은 아무 말도 못 하고, 대신 옆의 동장의가 목에 힘을 주며 꾸짖듯이 말하였다.

성균관유생들의나날1.txt

“양반 체면에 어찌 땅에 떨어진 것을 먹는단 말인가! 어서 치워라!”

“소생은 양반 체면은 버렸습니다. 대신 인간의 도리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양반 체면과 인간의 도리 중 하나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리겠습니까?”

동장의를 비롯한 수많은 상유들이 그 한 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다. 그의 말과 태도에는 힘이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밀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기에 말이 아닌 화로 대응을 할 조짐을 보였다.